교 회 에 서 배 우 지 않 았 던 것 들

예수의 경이로운 목적과 주장

앤서니 버저드 지음 | 정형철 옮김

BOOKK

예수의 경이로운 목적과 주장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

예수의 경이로운 목적과 주장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
발 행 | 2023년 4월 12일
저 자 | 앤서니 버저드 Sir Anthony F. Buzzard
역 자 | 정형철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 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410-2448-2
www.bookk.co.kr
ⓒ 정형철 2023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예수의 경이로운 목적과 주장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

The Amazing Aims and Claims of Jesus:

What you didn't learn in Churches

[Chapters 1 to 9/Appendices 1 to 5]

앤서니 버저드 경

Sir Anthony F. Buzzard, Bt., MA(Oxon.), MA Th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십

www.restorationfellowship.org

애틀랜타 성경대학

Atlanta Bible College

800-347-4261 • 404-362-0052

©2006 앤서니 버저드

ISBN 0-9673249-6-3

일러두기

*저자 앤서니 버저드Anthony Buzzard의 원저서『예수의 경이로운 목적과 주장: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The Amazing Aims and Claims of Jesus:What you didn't learn in church* 에는 9개의 장Chapters이 있고 이어서 7개의 학습Lessons들이 "성경의 믿음으로 안내하는 가이드"A Guide to the Faith of the Bible라는 표제하에 수록되어 있으며 5개의 부록Appendix이 첨부되어 있다. 이 번역서는 그 9개의 장들 Chapters과 5개의 부록Appendix을 묶은 것이다.
(7개의 학습들을 번역한 것은『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출간한다.)

*이 번역서는 한글로만 이루어지도록 원저서의 언어인 영어나 기타 외국어의 병기를, 하주footnote를 포함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배제했다.

*이 번역서에서 인용한 성경은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을 주로 활용했고, 본문 속에서 짧게 인용한 것들은 원저서의 영어번역을 그대로 번역한 것들도 있다.

이 장들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변함없는 동반자인 제 아내 바바라Barbara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대업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숙련된 일꾼인 제 딸 사라Sarah,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요컨대, 한때 이곳에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것의 원래의 상태였던 에덴으로 변모시키고자 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나”(사도행전 20:24-26).

“그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7의 예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말을 이용하여 자신을 알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계시,” 『뉴 샤프-허족 종교지식 백과사전』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그리스도교가 택한 공식적인 노선은 ... 역사적 예수의 실제적인 언어와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 (바트 어만 Bart. D. Ehrman, 『예수: 새천년의 묵시적 예언자』*Jesus*: *Apocalyptic Prophet of the New Millennium*)

“예수님의 역동적인 종교에 비해 완전히 진화한 그리스도교는 다른 세계에 속한 것 같다”(게자 버미스Geza Vermes, 『예수의 정통 복음』*The Authentic Gospel of Jesus*).

“다신교가 위장하여 교회에 들어갔다”
(프리드리히 루프Friedrich Loofs 교수, 『도그마의 역사』*History of Dogma*; 폴 슈로트Paul Schrodt, 『최근 신학에서 도그마의 시작 문제』*The Problem of the Beginning of Dogma in Recent Theology*).

목차

머리말 /9

1. 예수는 무엇에 대해 설교했는가? /17

2.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가 정보 /31

3.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51

4. 일부의 공백들 채우기 /67

5.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추가 정보 /83

6. 하나님이 의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시다 /103

7. 다윗왕: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또 다른 위대한 인물 /121

8. 참하나님, 참메시아와 불멸성의 보배로운 씨앗 /135

9. 메시아 예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고백을 공개하기 /163

부록 1: 하나님 나라 복음의 다양한 신약성경 제목들 /173

부록 2: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179

부록 3: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도적인 권위자들 /187

부록 4: 주요 권위자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들의 상태 /197

부록 5: 영혼은 하늘[천국]으로 가는가? /205

책소개

역자후기

저자/역자 소개

머리말

이 책의 처음 아홉 장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훈련을 특별히 받지 않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불멸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히브리서 1:1-2 참조).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큰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항상 복음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의 주요 주제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두 부분으로 된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기본적인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지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같은 토대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요한복음은 같은 것을 말하기 위해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신약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교 복음과 관련된 사실을 매우 쉽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구약성경에서의 약속에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1-2).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성경의 모든 번역본들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놀라운 드라마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한 훌륭한 결말을 약속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목적과 주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미래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대리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아들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가능한 운명, 즉 영생과 죽음(혹은 소멸)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은 약속이기도 하고 경고와 도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 나중에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처음 아홉 장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독자는 내가 쓴 것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성경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번역본이든 이 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확증할 것입니다.『리바이즈드 스탠더드 역』또

는『뉴 리바이즈드 스탠더드 역』 또는『뉴 어메리컨 스탠더드 바이블』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읽기 쉬운 버전입니다. 될 수 있으면『킹 제임스 역』은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킹 제임스 역』(1611년)의 영어 번역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번역이었지만 그 언어는 우리가 성경의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킹 제임스 역』을 가장 좋아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고대 영어로 된 것을 읽어도 분명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현대 번역본을 구해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쓴 모든 것은 학술 문헌, 성경 주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 문헌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자신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증거가 희박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잘 보고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다지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배우는 데에 그것이 필수적인 정보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요소가 빠진 복음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분석도 하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제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술은 우리의 그리스도교 문헌들, 신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에 그것의 배경지식과 함께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아이라도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분명하게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독자들에게 다만 열린 마음으로 읽으시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처음 9개의 장은 상당히 단순한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장은 일반적으로 길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 책의 2부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개의 안내 학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학습들에는 더 쉬운 처음 9개의 장들에 있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중복하거나 반복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내 학습들에는 외부 권위자들로부터의 더 많은 확증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더 많은 성경적 세부사항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처음 9개의 장들에 대한 보충 자료들입니다.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의 빈번한 반복도 있습니다. 스타일은 의도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안내 학습들은 탐구하는 독자에게 복음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불멸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발표 자료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독자는 형식적이든 덜 형식적이든 다양한 환경에서

배운 내용을 전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불멸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단연코 가장 귀중한 문서입니다. 그것은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교회 전통에 의해 놀랍게도 많이 은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 본문들 목록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요 기초들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추가적 확인도 포함한 부록을 첨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와 행동의 방식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독자들은 사려 깊고 분석적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베뢰아의 접근 방식(사도행전 17:11)은 항상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읽으며, 일단 확신하게 되면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성경의 인용문은 다양한 번역에서 가져왔으며 나는 때때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번역했습니다. 많은 현대 번역판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아주 잘 전달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절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대의 의역 성경을 조심하십시오.[1]

교회는 그들이 믿는 것의 대부분을 성경이 아닌 초기의 성경 이후 "교부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1517년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도들은 새로운 "교부들"로서 루터와 캘빈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루터의 접근은 역사적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

1 예를 들어, 『리빙 신약성경』 *Living New Testament*의 요한복음의 서두

에 이상하게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 자신의 복음 전파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복형제인 야고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루터의 이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터는 복음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발견되지만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복음서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에 관한 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이 생각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서 어떤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문을 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닌 칼빈은 또한 중요한 교리에 대해 자신에게 도전한 저명한 성경 학자를 화형시키는 것을 승인했습니다.[2]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이 옹호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교리를 이유로 다른 신자를 죽이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살인에 불과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예수님의 현재 대표자이며, 선포된 신적 권위의 "의자에서" 교황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틀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교황은 자신이 무오하다고 주장합니다. 교황은 자신이 신약성경 사도들의 유일한 진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따르면 교회 전통

---

2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Cervetus는 1553년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감동적인 설명은 로렌스Lawrence와 낸시 골드스톤Nancy Goldstone의 『불꽃으로부터』*Out of the Flames*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은 성경의 가르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몸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확실히 마리아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성공회 고위 인사들의 모임을 열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대부분은 영구적인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 인종, 배경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지속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교가 먼저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지도 전파하지도 않는 분으로 묘사된다면 그는 진정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경건한 종교적 사상과 희망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의 유대인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유일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그리스도교 메시아(그리스도)이며 불멸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땅에 발을 디딘 인물 중 가장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관찰했듯이, "이와 같이 가르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성경의 저명한 학자들의 말을 되풀이합니다. 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예를 인용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용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가톨릭 신학도 개신교 신학도 성경적 신학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경우는 그리스 사상에 의해 변질된 그리스도교 신학의 교파들입니다. ...이교 사상이 "그리스도교" 사상을 크게 지배했습니다...영혼의 불멸은 전혀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3]

"영혼의 불멸"이라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 읽으십시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구인지,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환영받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신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정확한 교회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요한복음 4:24)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과 교회 생활의 의미에 대해 배운 것을 예수님께서 승인하실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독자에게 하는 나의 제안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고 전파하신 본연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항상 지혜로운 일입니다.

---

3 노먼 스내이스Norman Snaith 교수, 『구약성경의 독특한 사상』*The Distinctive Ideas of the Old Testament*, p. 188, 89.

제1장

예수는 무엇에 대해 설교했는가?

이 책에서 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즉 우주의 창조주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염두에 두셨던 것에 대해, 하나님의 위대한 설계에 대해, 복잡하지 않은 언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분이 당신과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많은 돈을 통제하는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금융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매일 당신 앞에 모인 젊은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사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감사하게도 말라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하거나 일터에서 끊임없이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하시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주 잘 아는 아프리카의 말라위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급여가 있고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운 좋게도 알게 된 대부분의 선량한 말라위인들은 직업이 없고 직업을 가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를 주

식으로 먹고 삽니다. 그들은 그것을 "은시마"라고 부릅니다. 말라위의 많은 친구들은 다른 많은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전기도 배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며, 그들에게 더 적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지위에 의해 감동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창조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전달하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위치," 직함, 학위 또는 성취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불멸성과 당신의 영원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불멸성을 염두에 두고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불멸은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멸이라는 것은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갖지 못한) 불멸성을 얻으면 결코 살아있는 생명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불멸일 때, 당신은 질병에 걸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연코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깨지지 않는" 어린이용 장난감들 일부에 대해 주장되는 것처럼!).

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불멸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 복잡한 계획은 아닙니다. 만약 복잡하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지적 숙련과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멸성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뛰어난 두뇌나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과 열정적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

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열망이란 이해하고 행동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 "주리고 목마른" 상태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멸성의 비밀을 찾는 추구를 값진 보물을 찾는 것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는 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일을 간단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불멸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그 진술을 평가해 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수년간의 훈련을 받은 학식 있는 학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일반 사람들이 성경, 즉 성서를 이해하도록 의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교육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교육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불멸성 메시지를, 그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할 그 메시지를,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그 목표를 가차 없이 추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반대나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불멸성, 즉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에서의 목표들을 마음을 다해 추구합

니다. 그들은 종종 궁극적인 가치가 없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온 마음을 다합니다. 진정으로 지속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유일한 목표인 불멸성을 얻기 위해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청중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하셨습니까? 그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과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1] 펴서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구절에서 예수님 자신의 사명에 대한 진술,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목적,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소중한 지배언어, 그가 옹호하고 사랑하신 모든 것의 요점[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는 당신의 눈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대답이 당신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 아버지가 없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생명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서 시작되었고, 아담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

1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도 계속 읽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아마도 적어도 한 권의 성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종종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할 것입니다.

에서 설명합니다. 잠시동안 나는 당신이 내가 방금 언급한 누가복음 4장 43절의 그 구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정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4:43. 그것을 쓰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의 놀라운 압축을 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경력,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또는 그의 단일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자 보물입니다. 당신은 그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은 예수님의 생각, 경력, 목적에 대한, 따라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훌륭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의 전체 경력과 사명을 이끌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도록 위임받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게 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진술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2000년전 이스라엘에서 약 3년 동안 그가 행하신 일의 요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43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번역이든 읽어보세요. 의미가 매우 명확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고, 위임하셨고, 바로 그 일을 하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그리스도교 해석에 대한 첫번째 사실입니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반복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약 진술입니다. 예수님도 그렇다고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지금부터 그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관심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말했듯이 예수님의 "심오한 집착"이었으며, 당신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면 그의 사명에 대한 진술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집결 외침과 슬로건입니다.

물론 당신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급히 달려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일 뿐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대변자이신) 그분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는 당신이 우주의 의미나 당신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일을 진척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복음이 영생의 비밀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경 전체에 대한 당신의 이해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가능하다면 성경을 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의

사명의 전체 요점과 그리스도교에 관한 그의 위대하고 고전적인 진술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절들을 주목하도록 초대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절은 성경, 특히 신약성경을 파악하려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구절입니다. 서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미국"이라는 용어를 미합중국의 약어로 인식하는 것처럼, 누가는 여기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약칭"을 설정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의 핵심이요 중심이기 때문에 "뜻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위대한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 즉 복음 메시지로 지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단순히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종 미합중국 대통령을 단순히 "대통령"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신약성경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항상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면 중요한 정보의 방대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구절인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언급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교회와 라디오와 TV에서 이 중요한 구절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언급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사용됩니다. 이 점

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성서 전체, 즉 성경이나 거룩한 기록이라고 불리는 이 성서 전체에서 우리는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 구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항상 대중에게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 점이 분명합니까? 많은 예들 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을 매우 자주 읽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단지 성경 어디에서나 설교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이고 모호한 진술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는 특수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설교로 돌아갑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더라"(사도행전 13:44). 그들은 "각처에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파"했습니다(사도행전 8:4). 이것은 성경에 대한 일반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그대로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은 우리를 위한 "말씀"을 아름답게 정의합니다. "말씀"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의 핵심은 신약성경에서 복음이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번 불립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성경을 묘사한다고 생각하여 혼동하는 것은 런던과 영국의 차이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런던에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영국 어딘가로의 여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구절을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하나

님의 불멸성 계획의 열쇠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의 첫 번째이자 권위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2]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모든 사람이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구원은 주(예수님)께서 먼저 전파하셨느니라." 당신이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그에 따라 당신은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했는지 알아보려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일부이지 전체 복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생명의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 삶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물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실을 포함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멸성에 관한 복음이며, 우리는 히브리서 2:3과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불멸성의 첫 번째 모범 설교자이심을 주장합니다. 바울이 이 흥미롭고 중요한 개념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다]" (디모데후서 1:10)고 썼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그 놀라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영생의 비결을 밝히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영원히 사는 놀라운 비밀을 찾도록

---

2 물론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초대받은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있었고, 다른 어떤 메시지에서도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복음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 없이 그것이 정의됩니다!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을 결코 들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사라졌거나 억눌렸습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예수님과 바울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때때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많은 사람들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흡연이나 기타 관행으로 인해 너무 일찍 사망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는 과학이 그들을 되살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고 시체를 냉동 보관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질 수 있는지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자신의 복음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목적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펴보고 매우 주의 깊게 읽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복음, 즉 "말씀"에서 불멸에 이르는 길을 계시하셨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영원히 사는 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젊음을

갖는 것, 젊음의 샘을 찾는 것과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당신의 관심을 이끕니까? 그것은 나의 관심을 이끕니다! 영생의 비결은 바로 성경에 있는데 교회에서 분명히 그 점이 설명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나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성경 진리가 거대한 교회 조직에서 심각하게 상실된 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주의 깊게 듣고 복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과 같은 언어를 그 교회들이 사용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끊임없이 말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 두 분은 모두 "사람들을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모두 열정적인 하나님 나라 전파자였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누가복음 9:11과 사도행전 28:30, 31을 찾아보십시오. 그 점을 깊이 숙고하고 교회에서 들은 것과 비교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말했습니까? 홀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이사야 44:24) 우리가 숨 쉬는 모든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몸과 마음을 갖추게 하신 하나님은 태어난 모든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교 성경에서 찾을 수 있지만, 교회의 큰 혼란으로 인해 그 계획이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수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웅대한 사명에 대한 진술인 누가복음 4장 43절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체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무엇을 의미하셨는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질문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대답이 의심스럽거나 "아니오"인 경우 이것이 왜 그런지 궁금할 것입니다.[3]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교의 전체적인 요점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거나 거의 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처럼 정의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이 무엇인지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즉시 응답하지 않으면, 왜 그들의 대답이 누가복음 4:43(그리고 우리가 아직 볼 시간이 없는 수백 개의 다른 구절들)과 같지 않은지 그 이유를 물음으로써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17, 23, 9:35, 누가복음 8:1, 사도행전 8:12, 19:8, 28:23, 31을 찾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로잡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

3 『다가오는 메시아의 하나님 나라: 신약성경의 수수께끼 해결』*The Coming Kingdom of the Messiah: A Solution to the Riddle of the New Testament*(2002)이라는 우리의 책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며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주요 설교자들과 작가들의 수많은 진술들을 문서화합니다!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과 불멸성에 관한 이러한 대화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축구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최근 나의 머리를 자른 미용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던 여성인데 주 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 해 동안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내가 지적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서운 문제들과 불공정이 가득 찬 현 세상 제도를 구제해 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인의 중심 주제인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2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가 정보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에서나 가르치셨고 또한 그 믿음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말씀하신 방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즉 가장 위대한 복음 곧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사명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43; 마가복음 1:14, 15).

거의 모든 사람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알고 있으므로 당신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개념과 친숙한 편일 것입니다. 무언가가 이미 여기에 있다면 당신은 그 무언가가 오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미 왔다고 상상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를 혼동하는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1] 하나님 나라 기도는 여전히 그리스도교인의 핵심 기도이며, 우리는 여전히 미래의 사건, 곧 권능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1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와 함께 하는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를 지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불순종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요한복음 3:36).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지혜롭게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을 희구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계시록 22:20).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동일하게 염두에 둔 선지자 미가의 성구를 아셨습니다 (4:7, 8).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정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 산[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다스리시리로다… 네게 [예루살렘]이 이르리니 이전 권세 곧 딸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가 이르리라.” 히브리어 성경은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의 그 놀라운 구절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운영되는 회복된 정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깨달음을 주는 사실 중 하나는 사도행전의 첫 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약속된 하나님 나라는 오순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열방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이사야 2:1-4). 교회는 절망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지속적인 평화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할 것이라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사도행전 1:7).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며칠 후”(사도행전 1:5), 특별한 능력의 강림,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날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약된 것이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 7).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분명히 오순절에 놀라운 능력으로 영이 오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미래이며,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그 점을 예수님의 고도로 훈련된 사도들과 복음 설교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모른다면 이 책의 첫 번째 장이 예수님이나 신약성경을 (또는 사실상 구약성경도) 이해하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절망감을 심어주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나는 먼저 관련된 하나의 질문, 즉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 의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주의를 기울여 보기로 합시다.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다른 곳에서 살아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모든 것의 중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위한 탐구의 일환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미래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주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배운 구약성경의 배경에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부모에게서, 물론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활동에 끊임없이 영감을 주신 그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12세때부터 그 시대의 공식적인 종교 박사들 주위를 "돌아 다니"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신학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일종의 모차르트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신동으로, (신학의) 하나님과 우주와 생명 자체의 의미에 대한 매우 훌륭하고 재능 있는 설명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박사들은 자신들과 함께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어린 예수님이 논의할 때 그의 질문과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참조 누가복음 2:40-52).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해의 거장이신 예수님의 지혜와 가르침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지칠 줄 모르는 선생이자 랍비로 생각하도록 배웠습니까?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일 의심의 여지 없이 몇 시간 동안이나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47).

나는 예수님의 이해가 그가 성장하면서 배운 구약성경을 이해한 데에 크게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은 합리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일부 부분과 매우 소수의 다른 구절들이 히브리어와 같은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내가 구약성경에 들어 있는 39권과 같은 경전들을 그의 성경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던 성경에서는 경전들의 순서는 달랐지만 경전들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 귀중한 신성한 기록인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 "율법과 선지자와 성문서"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경전들의 순서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그 글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는 그 글들의 영감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계시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그 책들의 저자들을 사용하셨다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필자들을 로봇들처럼 사용하여 자신의 말씀을 받아쓰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치셨으며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배경을 무시하시지 않고, 세계 역사에서의 자신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물론 자신과 자신의 대리자들인 선지자들의 말을,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깊게 듣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불멸성을 주기 위한 계획을 종이에 기록하여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5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거를 알려줍니다 .) 당신은 아마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8:15-19의 위대한 예언에 따르면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물론 모세보다 큽니다. 신약성경은 사도행전 3:22와 7:37에서 그 예언을 예수님과 연결합니다. 사도행전 3:22, 23에서 베드로는 꽤 강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예언자"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모든 인간에게 미래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즉 히브리어 성경의 저자들에 영감을 주셨을 때,

그후에 신약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작가들의 개별적인 재능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분은 그들을 수동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일종의 "안내된 글쓰기"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에게 그분의 뜻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그들에게 큰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 가르치셨고, 그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경전 또는 거룩한 기록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됨을 의미합니다.[2]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서 필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영감의 매개체로 사용하신 방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고 내 혀에 있었다"(사무엘하 23:2). 다윗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영과 뜻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폐할 수 없습니다"(요한복음 10:35). 예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씀하신다고 거듭거듭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위해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디모데후서 3:16). 그는 사실 성

---

2 필사자들에 의해 손상된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증거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며 학자들은 우리가 원본 버전을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의도에 대한 분명한 진술 없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 즉 전문적인 성경 학자들을 보내어 복음 선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태복음 23:34; 비교. 다니엘서 12:3).

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뜻과 영이 담긴 성경의 말씀들에 숨을 불어넣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성경, 특히 그리스도교의 기초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의 모든 어려움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불멸성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전달하신 내용에 대한 신성한 기록인 성경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성경 시대에만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인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히브리서 1:1-2을 읽으십시오. 당신은 그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세상의 시대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불멸성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깊은 위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천국]을 향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안내하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교회를 강타한 가장 큰 혼란과 혼돈 중 하나는 그리스도교인의 목표로

“하늘”[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하늘”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죽을 때 영혼이 가는 곳이라는 뜻의 “천국”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지만 죽은 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소 충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인간의 운명과 목적지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당신이 미래의 목적지로 “하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성경에 대해 혼란스럽게 되는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당신이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때 “하늘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대한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3]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돌아가신 날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늘에 갔다고 믿지 않았습니다.[4]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신자로 죽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덤에서 죽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나 다른 사

---

3 예수님께서는 그 도둑이 장래에 낙원인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둑은 장래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누가복음 23:42) 기억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그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누가복음 23:43). 예수님은 자신이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2:40), 부활하신 후에도 즉각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17).

4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이 나중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금 하늘에 있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계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람이 하늘의 화려한 저택이나 불타는 지옥에 갔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신약성경을 들고 읽으며 "예수님은 추종자들에게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제시하셨습니까?"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하늘에 있는 죽은 친척들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탈신체화된 영혼 (육체 없는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존재하기 위해 이 땅을 떠났다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그 많은 언어를 어디서 배웠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다른 교인들의 말을 듣고, 주일이나 안식일 학교에 앉아,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를 듣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배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하나의 위대한 조직으로 연합된 엄청난 수의 교인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어디서 배웠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무엇을 이해했는지 자문하기 위해 자주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교회의 신도석 좌석에 앉아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사실 수많은 훌륭한 성경 학자들이 "성경에서의 하늘은 어디에서도 죽어가는 자들의 목적지라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습니다.[5] 이 사람들은 성경 연구 분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

5 케임브리지의 J.A.T. 로빈슨Robinson 박사, 『결국, 하나님』 *In The End, God*, p. 104.

대해 읽는 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그들의 미래 희망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믿음, 사랑과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두 번째 큰 덕목이며, 소망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에 다니는 대중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에 의존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즉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무덤에 남겨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 브라운의 영혼은 계속 행진하는" 동안 무덤에서 썩어가는 "그 존 브라운의 몸"에 대해 노래합니다. 우리는 주소를 땅에서 하늘로 변경하고 육신의 옷, 몸을 벗어 버린 채 "불멸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늘로 치솟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인기 있는 한 찬송가는 하늘로 날아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위안이 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든 사실입니까?

우리 모두는 반복적으로 장례식에서 "죽으면 천국"이라는 개념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린 관을 보고 "그것은 즐거운 생각이 아닌가? 죽은 사람이 실제로 관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또는 그녀는 사실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더 나은 곳으로의 "출발"을 슬퍼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즐기고 (?)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가 "떠났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큰 오해를 계속해서 강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방식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의식하기 위해 하늘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죽은 친척들이 옷과 몸을 무덤에 그대로 두고 떠나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육체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오랜 전통은 죽은 자들이 실제로 다른 어딘가에서 살아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 서점들은 "사후" 경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대중적인 설명으로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확증합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주장합니다. 지옥을 방문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이 책들이 "복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중은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다른 곳에서 살아 있다는 생각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것은 교묘하게 당신의 주의를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다르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말을 하시지 않았고,[6] "죽으면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성경이 아니라 교회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더 신중한 연구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

6 예수님은 때때로 하늘의 상급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의 장래의 상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준비되어 있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와 같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교회가, 아마도 당신의 교회도, 어떻게 예수님과 극단적으로 다른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계속 읽을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간단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 남자나 여자는 육체와 결코 죽지 않고 그 육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의식적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모든 대중적인 관념이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혹은 사실을 말해야 한다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짓을 조장한 것은 원래 악마[사탄]였습니다 (창세기 3:4).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되어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의 부활"(누가복음 14:14) 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죽어 묻힌 채로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현재 당신이 존재하면서 추구하는 웅대한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조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안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되는 모든 종류의 거짓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항의해야 할 때입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 환영받을 것인지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약 교회에서 그의 친구 나사

로와 같이 죽은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그냥 가시라는 요청을, 우리 교회에 다시 오시지 말라는 요청을, 정중하게 또는 무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깨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11, 14에서 이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는 나사로가 하늘에 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사로의 무덤으로부터 불러내심으로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1:43). 무덤이 죽은 나사로가 있던 곳입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친척과 친구들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죽어 묻혔습니다. 그녀나 소위 특별한 “성인들”도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죽은 “성인들”이 기도에 응답한다는 개념은 거대한 동화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큰 교단에 속한 약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다.

요한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슬픔 상담 내용은 “더 나은 곳”인 천국에서 친척이 살아 있고 건강하다는 확신으로 유족을 위로하며 교회 목사들이 제공하는 잘못된 조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들립니다.

한 교직자는 우리가 그에게 성서에서는 죽은 사람이 하늘에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물론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죽은 친구 나사로가 무덤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도전이 되고 충격을 주기도 합니까? 나는 그 말씀이 당신과 나를 진지한 생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믿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조장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위험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으므로 나는 우리가 항상 모든 반대에 맞서 그와 그가 가르친 것을 위해 기꺼이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 (회당)로부터 가장 많은 반대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또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 하리라"(마가복음 8:38)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주의한 숭배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반대자이셨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전통에 근거한 예배, 부주의하고 생각 없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교회에서 영속되고 있는 그런 숭배를 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진리보다 전통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검증되지 않은 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요한복음 4:24)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경과 모순되는 전통은 교회에 치명적인 독이며 예수님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마태복음 15:7-9). 우리의 부모가 그것을 가르쳤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재된 종교적 전통이 우리의 생각에 강력한 힘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극소수만이 묻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질문은 "복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 성서에서 죽음에 관한 매우 간단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배우셨습니다. 그는 전도서 9:5, 10을 읽었고 아마 암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읽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더 이상 상을 받지도 못하고… 당신이 가고 있는 스올[‘무덤,’ 죽은 자의 세계]에는 어떤 행동도 생각도 지식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하지 아니하며 잠잠한 자들이 다 여호와를 찬송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115:17). 그리고 수십 개의 구절들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늘의 특권적인 위치에서 살아남은 친척들을 지켜보며 더 없이 행복해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과연 일종의 특권이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마련하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무의식 상태에 두며 미래의 위대한 순간까지 무덤에서 쉬게 합니다. 그 장대하고 놀라운 순간은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선포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 12장 2절의 그 놀라운 구절에 간결하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언젠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자던 자 중에 많은 자가 깨어날 것이며 [도래할] 시대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념을 매우 친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언급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세의 생명,” 즉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입니다.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이야기이자 드라마인 성경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관련 주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장대한 미래의 재림에 대한 간

단한 설명입니다. 왜 예수님은 돌아오셔야 합니까? 잠자는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담긴 위대한 약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고 공평하게 작동되도록 재편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새로운 세계 정부를 감독하실 것입니다. 성경, 특히 히브리 선지자들의 기록은 단순히 페이지마다 이 정보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사야 32:1(여러 버전에서)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왕이 공의로 다스리고 고관들이 공의로 다스리리라." "보라, 의로운 왕이 오신다! 그리고 정직한 군주가 그 아래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당신을 그 "정직한 방백들," 즉 군주들 중 한 사람으로 초대하여 그 미래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당신을 최초의 성공적인 정부의 왕이 임명하는 직분으로 부르십니다. 당신의 운명이 머나먼 천상의 영역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것이라는 허약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의 훈련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세상을 크게 축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세에서 당신의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땅을 주기를 원하시느니라" (예레미아 27:5). 지구가 주어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압제적인 정부의 한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그분이 동일한 왕의 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열방의 일을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감독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세계 정부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권능을 부여하실 때를 대비하여 그러한 은사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끈질기게 노력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했습니다!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종입니다. 당신은 작은 일에 충실했습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대로 열 개의 성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누가복음 19:17).

불행하게도 수백만 명의 신자를 대표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의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면 "하늘에서 우리는 무지개를 닦고 하늘 정원을 가꾸며 하늘의 요리를 준비할 것입니다"[7]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지개 닦기"는 솔직히 말해서 경건한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그가 우리 행성으로 돌아오실 때 도입할 새로운 행정부에 합류하기 위해 지금 준비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은 청중들이 신앙의 기본에 대해 무지한 것에 대해 약간 좌절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성자들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만약 세상이 당신의 관할 아래 있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6:2). 바울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지개를 닦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늘[천국]"에 관한 이 대중적인 허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리스도교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

7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그들은 그러한 전망에 대해 완전히 지루해 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운명이 혐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교적 목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 못을 박았던 유명한 런던 설교자의 웅대한 진술을 추가합니다.

> 우리는 **영화롭게 된 땅에서** 영화롭게 된 몸으로 거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완전히 잊혀지고 무시되어 온** 위대한 그리스도교 교리 중 하나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교 교회(내가 일반적으로 말함)는 **이것을 믿지 않으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었고, 이것이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치를 설교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1-3에서 말한 사도 바울에 따르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교회가 살아온 진리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박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이 그들이 그들의 인내와 오래참음과 그들에게 당한 모든 것을 이기게 한 비결입니다.[8]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즉 미래의 부활과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다루는 두 장들에 많은 정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8 마틴 로이드-존스Martin Lloyd-Jones, 『로마서 주석』*Commenary on Romans*, pp. 72, 75, 76, [진한 인쇄] 강조는 내가 한 것임.

다음 장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통합할 수 있는지 봅시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과 바울이 전파한 복음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분을 참여시키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꺼이 예수님께 그리고 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말입니다.

제3장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당신의 교회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과 목표가 "하늘"[천국]이라고 말해 왔다면, 나는 그들이 성경을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책으로 만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산 채로 영광스럽게 하늘로 보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도적인 철학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늘로 간다고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교 철학자 플라톤이었습니다. 플라톤은 교회에서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축구 경기의 목적이 공을 골대 안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높이 공을 차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러한 의견을 완전히 오도되고 잘못 학습된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 개념은 그런 것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심각한 언쟁을 벌이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종자들 누구에게도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토지나 "땅을 상속받기를" 열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토지와 지상의 온 땅에 세워질 것입

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그리스도인 기도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도록 배웠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 이야기를 지적으로 정확하게 따르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휘에서 "하늘[천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실제로 영적 건강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이교도의 철학적 아이디어가 자리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성경은 전혀 잘 섞이지 않고, 섞이면 영적인 독을 낳습니다. 플라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1]

사실 성경은 당신이 죽을 때 "영혼"으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서가 가르치는 것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께서 지상에 새로운 정부, 즉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28절을 읽으면 이 간단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논의하

---

1 우리는 선교사 에드워드 액튼Edward Acton이 교회에 스며들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전통적 가르침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플라톤 철학의 위험성에 대해 불평하는 "플라톤적 그리스도교" Platonic Christianity라는 제목의 CD 3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이미 부활하여 죽음에서 영생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다음은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살아날 것인데, 각자의 적절한 순서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이고 그리고 나서 그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그리스도인들]이니라"(고린도전서 15:22, 23).

부활의 계획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고 부활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작동할 새로운 세계 정부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는데도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라는 한 방향으로 당신을 유도하는 것이 무섭게 혼란스럽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건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일어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사건이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열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좌절감을 주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당신이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해 왔습니다.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도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죽는 순간 산 채로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음 이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게 되든지 그 동안은 무덤에서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의 틀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개요입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진정한 신자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잠을 자고" 무덤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평화롭게 쉬는 것" (Rest in Peace)이 맞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모든 충실한 사람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다시 살리고 불멸성과 그의 왕권, 즉 그의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간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확증되었습니다. 이 "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신약성경을 읽고 그것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모든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불멸성 계획에 대한 이 직설적인 설명을 공유했다고 믿습니다.

욥이 "사후의 삶"에 대한 심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욥기 14:14)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람이 죽으면 계속 살 것입니까?"라고 말하지 않은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욥은 죽은 후에도 계속 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대는 혼란스러운 모순을 낳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부활 시에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고린도전서 15:22).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살아날 때까지 죽은 자들은 죽은 채로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건들의 간단하고 일관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인간 대리인으로 예수님을 사용하여 하실 일이라는 확실한 지식 안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전도서 9:5). “죽은 나사로가 자고 있으니 내가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겠다”(요한복음 11:11,14 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관점에 대한 조바심을 보여 왔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시간을 뛰어넘어, 섣불리”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죽는 순간에, 잠시 후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즉각적인 의식적 존재가 되는 것을 약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가르침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인 죽은 자들의 미래의 부활이라는 가르침을 파괴했습니다. “불멸의 영혼”의 생존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교 철학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8에서 철학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교]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비성경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당신은 철학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므로 진리를 배움으로써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소망이 교회 전통이 만들어낸 비 소망으로 대치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의식이 있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때 이전에 이미 살아 있다면 왜 다시 살아나야 합니까?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성서는 죽은 자들이 장래에 있을 부활과 무관하게 지금 살아있다는 사상에 반대합니다. (참고: 다양한 종교 단체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관념에 매료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영, 천사로 선재했으므로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몰몬은 예수님이

사탄의 영적 형제이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여 이 땅에 내려오도록 했다고 봅니다. 다른 교회들은 죽은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공회는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든 산 자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인 생성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30대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가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불멸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불멸성 프로그램의 개척자이자 선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을 떠나 땅으로 돌아가라는 신호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 다음의 최고의 권위자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11).

그리고 그가 오실 때 그는 충실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음 속에서 눈을 감고 있다가 금방 깨어난 것처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2]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영원히 함께 지낼 것이며, 그들은 우리의 산산조각난 세상에 온전함을 복원하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여기 이 행성에 있을 것입니

---

2 이 아이디어를 확인하려면 브루스 F.F. Bruce, 『바울, 해방된 마음의 사도』 *Paul, The Apostle of the Heart Set Free*, p. 312.

다. 예수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땅/지상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5).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가장 분명한 묘사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여기 그림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잠자던 무덤을 남겨두고 부활되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들은 공중으로 올려져 (“휴거”), 주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지상으로 안내할 것인데, 이 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당한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으로 다시 오시기 7년 전에 은밀히 돌아오실 것이라는 대중적인 생각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고안된 신화입

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건은 장엄하고 가시적일 것입니다.[3]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요한계시록 1:7).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가 7년 동안 그리스도교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전혀 재림이 아니라 일종의 "주행 중의 납치"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재림이 아닌 방문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게에 간다고 하면서 "잠시 후에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평범한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곳에 거하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4] 만일 그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재림은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계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지금은 살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현재 의식이 없고 무덤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잠자던 죽은 자들을 되살리실 미래의 놀라운 순간에 대해 즉시 주의를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그 강력한

---

3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생각이나 1914년에 다시 오셨거나 (일부 사람들이 말하듯이) 더 이른 날짜에 다시 오셨다는 생각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4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6:28과 20:17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는데도 잘못 옮긴 NIV의 번역에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는 단순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거나 승천하는 것이지,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건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즉시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서 권능 안에서 재림하실 때, 땅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여 성경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복음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죽으면 천국"이라는 우리의 교회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인 성경읽기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조화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버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오래 전에 이미 우리의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위로하는" 약속을 선호하게 되면, 전체적인 위대한 하나님 나라 계획은 교회 신자들의 마음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죽으면 천국" 전통은 당신과 성경 말씀 사이에 여과기를 둡니다.

바울은 장차 부활하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두 명을 지명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암처럼 퍼질 것입니다.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그 예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디모데후서 2:17, 18). 교회는 죽은 자들이 장차 부활하기 전에 살아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유사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희망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차가운 위로입니다. 성경에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교회가 나중에 발명한 것입니다. 교회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의 무서운 분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가

다시 오셔서 왕이 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미래의 승리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순종했던 자신의 추종자들로서 죽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시대부터) 한 덩어리로 함께, 하나의 거대한 집단적 생명으로의 복귀가 될 것입니다. "영혼"이 하늘로 개별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신자들이 한 멋진 순간에 집단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다른 부활을 제안하고 신약성경 시대의 동료 그리스도교 신자들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신약성경 시대의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로마서 4:11)이며 첫째 부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일련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성경, 특히 신약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당신은 그리스도교적 희망을 붙잡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야고보 2:5)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믿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살아 있는 의식적인 영혼과 육체의 재결합이 아니라 전인의 생명으로의 복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 선교를 위한 그들의 봉사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다시 오시면, 세상은 점차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사도행전 3:21, 1:6). 도래하는 새 시대의 주요 요소는 현재

온 천하를 미혹하고 있는 악마[사탄]의 권한(계시록 12:9)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악마[사탄]를 잡아 결박하여 천 년 동안 가둘 것입니다(계시록 20:1-3).

그때에 충실한 사람들은 새로워진 땅에서 메시아와 함께 통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 당신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설명하는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있습니다.

>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9, 10).

예수님은 일찍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과 모순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혜롭게 이해하는 데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재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불멸성 계획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가혹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놀라운 말씀을 참조할 것을 권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하나님 나라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통해 악한 정부와 백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이 단어들을 예행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

을 미래의 개입에 수반될 사태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을 당신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

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사야 24:1-23).

이것은 위대한 성서 예언자 중 한 사람인 이사야가 직접 그린 생생한 그림입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본 재앙을 그가 그 그림으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파괴적인 쓰나미와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산을 파괴한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자연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파괴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언서들에서 지진과 큰 폭풍에 비유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무한한 나약함에 대한 인상을 우리에게 새겨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는 "주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에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세계의

엄청난 인구 감소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의 미래의 마지막 개입입니다. 그 날은 위에서 방금 인용한 긴 구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다가오는 이 "주의 날" 또는 "그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혼란과 파괴와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누가복음 21:2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에 주목하십시오. 주의 날이 끝나면 "소수의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4:6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세상을 공허하게 만들 것인데, 실제로 지상에는 단 한 명의 필멸의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잘못 가르친 큰 교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노아 시대의 홍수와 정확히 평행이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 인구의 극소수만이 보호의 방주에서 상처를 입지 않고 나왔습니다. 당시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자녀와 그들의 아내는 죽음을 피했습니다. 나머지 인류는 거대한 심판 사건인 홍수에 휩쓸려 익사했는데, 예수님은 그 심판이 자신의 오심과 평행을 이루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27). 예수님은 혼돈과 혼란의 시대에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권능으로 오실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나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37-44).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가장 생생하고 강력한 묘사는 데살로니가 후서 1:7, 8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순종 하는 자들의 구원의 창시자”(히브리서 5:9)라고 말합니다. 구원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미래의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은 때, 부주의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멸망, 그 다음

에는 소수의 생존, 그리고 남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인류를 재건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전 세계에 평화와 질서를 회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독 아래 형언할 수 없는 상황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불멸의 신실한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세상의 이상적인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을 읽기 시작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세상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이라는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땅에 대한 이 장엄한 전망에서 당신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미리 준비하면서, 심판을 피하고 (하늘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불멸성과 영생을 얻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제4장

일부의 공백들 채우기

이 성경 이야기가 당신에게 새로운 것이라면 (많은 수의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는 지금까지 단지 성경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관념만 가지게 되었다면, 빈틈들의 일부를 채우고, 당신이 읽으면서 마음 속에 형성되었을 수 있는 질문들 중 일부에 대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교적 쉬운 언어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와는 다른 문화에서 시작된 고대 유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메시아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문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확실히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성경의 기술적인 구석이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아주 좋은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태초부터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 메시아적 나라의 목적이 모호하게 왜곡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매우 자주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심으로써 그러한 왜

곡을 허용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경에서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계시록 12:9)라고 불리는 악마[사탄]에게 우리를 속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악마[사탄]의 거짓 종교 버전에 너무 쉽게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악마[사탄]의 현재 영향력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에서만) 그는 “이 시대의 신”(고린도후서 4:4)이라고 불립니다. 사도 요한은 “온 세상이 그의 권세 안에 있느니라”(요한일서 5:19)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나라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적 [그리스도교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은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에만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 또는 악마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불멸성 계획을 거침없이 반대하며 인간의 천부적인 연약함을 이용하여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다가와 말을 걸고 그를 시험하여 “성공”(마태복음 4:1-11)에 이르는 쉽고 놀라운 길을 택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교활한 거짓말과 (일반적으로 가장 해롭고 효과적인 거짓인) 반쪽 진실에 저항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고 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진리, 곧 우리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이 아들을 악마[사탄]가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여 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다음과 같이 선언한 간단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성령이 네 위에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누가복음 1:35).

아주 간단합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기적적으로 생성된(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브리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적 영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여 기적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브리엘이 여기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에게 해 주는 말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열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마리아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적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듭니다. 예수님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인간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임신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기적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적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적적인 잉태 혹은 기적적인 탄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이유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35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에 대한 귀중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전통 신학에서 폐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엄청난 사실

을 확실히 배우지 못했다고 간단히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 교회 전통이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매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 전혀 다른 설명을 채택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비성경적인 “아들 하나님”이라는 칭호로 대체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반대되는 어떤 교회의 신조나 이론보다 그에게서 배우도록 초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입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당신은 첫 사람 아담의 창조와 직접적인 평행을 이루는 것을 즉시 이해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담은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흙으로 지은 그에게 생기가 있는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아담은 살아있는 창조물이 되었습니다.[1] 살아있는 창조물은 바로 그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큰 고래 및 기타 창조물들도 “살아있는 창조물들”로 불립니다. 아담이나 어떤 동물도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영혼”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죽어도 살아남는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는 거짓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

1 KJV는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를 "영혼"으로 번역하지만 동일한 단어가 동물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도 또한 “살아있는 창조물” 또는 “영혼들”입니다.

심각한 거짓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첫 부부에게,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조차도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사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께 불순종할 때 혹은 만약 불순종한다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 첫 인간 부부의 후손들도 죽습니다. 죽음과 세금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고들 말합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나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현세의 나라들이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아들인 메시아 예수님께 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넘어가는 때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19절의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말씀에서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재의 세계 체제들이 어떻게 전세계적인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일곱째 나팔" 구절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모든 좋은 성경 공부는 다양한 저자들의 관련 정보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행해집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명한 "일곱째 나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중요한 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장엄하게 다시 오실 엄청난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이자 비전입니다.

>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계시록 11:15-19).

이 찬란한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일어날 거대한 혁명과 회복을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일한 궁극적이고 진정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구적으로 존속할 유일한 정부입니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가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올 때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일곱째 나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또한 하나님 나라 확립을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충실한 사람들의 부활을 연결합니다.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린도전서 15:52-54). 이것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불멸의 생명에 희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최고의 순간

입니다.

이제 잠시 인간의 체질로 돌아가 봅시다. 이 점은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즉 여러분과 나는 불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간으로서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필멸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죽을 수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경우가 아니라면)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당신은 필멸에서 불멸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멸의 영혼"과 같은 내부적인 부품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 영혼은 몸만 죽은 상태에서 참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 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불멸의 영혼이 없다면 사람은 죽을 때 전인적으로 죽고 그 비극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불멸의 부분으로 만들어졌다는 다른 견해는 참그리스도교에 속하지 않는 이교 철학의 한 요소입니다.

여러 교회 그룹들과 다양한 교단의 많은 우수한 학자들은 고맙게도 인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혁가인 마틴 루터(그의 글 중 일부는 아마도 그가 말한 내용을 약화시키기 위해 "요리"되었을 것입니다)와 성경을 영어로 옮겼고, 그 때문에 비극적으로 순교당한 영웅적인 번역가인 윌리엄 틴데일은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들의 "영혼"은 죽을 수 없으며 죽은 자는 지금 천국이나 지옥에서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한다는 비성경적 생각을 고수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교회의 역사에서 어떤 때에는 아직 “하늘”[천국]으로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일시적인 고문과 고통의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연옥”에서 그들의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이 지내야 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제들이 집전하는 특별 “미사”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회원들에게 권장하기까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주류 교회들은 일시적인 지옥, 즉 연옥이라는 개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곧장 가서 끝없는 시간 동안 고문을 당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스템을 단순화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대중이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여러 가닥을 한데 엮어 그 모든 것이 훌륭하고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중 일부는 당신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모든 것을 숙고하십시오. 밤에 그것에 대해 마음 속으로 숙고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베뢰아인이 되십시오. 베뢰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고귀한 영혼들로서 삶과 구원의 의미에 관해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멸성 계획에 대한 바울의 계시에 의해 설득되고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모든 상황에서 동료 신자들 앞에서 물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추종자들에게 사역을 위한 지시들

의 일부로 물 침례를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19, 20). 예수님 자신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대리인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3:22, 26; 4:1, 2). 베드로는 침례 행위를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여겼고 물에서 "명하사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47, 48 참조). 베드로는 물 침례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이방인) 신자가 물 침례를 받는 것을 막는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풂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사도행전 10:47, 48). 물 침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적 행위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물 침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사도행전 11:17). 개종자들에게 물 침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거부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2] 어떤 사람들은 물 침례가 그리스도교 관습의 일부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받아 비극적으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

"믿는다"는 것은 설득당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도행전 28:23, 24).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성경 시대에는 선지자의 형태로 대

---

2 사도행전 10장 47절과 11장 17절에서 헬라어로 "거부하다, 금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리자들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 의해 매우 자주 거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시대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의해, 후에는 그의 하나님 나라 소식이 다른 모든 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들에 의해 크게 거부당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많은 선지자들, 곧 하나님의 대변자 및 대리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 가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혼란스럽게 되어 그들에게 진리를 친절하게 보여주려는 사람에게 쉽게 적대감을 느낍니다. 어떤 컬트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을 너무 심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재교육 [디프로그램]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지혜 있는 자"와 전문 신학자(서기관)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34).

종교적인 "진리"의 일부를 잘못 배웠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일종의 "영적 수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다른 관점을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로 사랑하는 교사들로부터 배운 것을 집요하게 고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컬트의 기술은 그 교인들을 성경 연구와 주석의 더 넓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이해능력에 대한 잘못된 감각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연구의 과거 역사에서 실제로 들어보지 못한 교리나 실천을 누군가가 제안한다면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적절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조언과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신학은 "섬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종교 당국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악마[사탄]의 대리자이며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에 의해 눈이 멀게 되어,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자들의 말에 따라) 어둠의 세력을 위해 일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대단히 잘못 믿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친구들도 예수님이 신비술사이자 일종의 마술사이며 공공 질서와 영성을 위협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2).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인들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까? 인류는 서서히 계몽되고 현명해졌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진리와 오류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거나 듣는다면 거짓 교사나 선지자를 발견하겠습니까? 아니면 진리에 반대하여 오류를 편들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난 후에 자신의 가르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믿음이 존속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까지 하시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8).

이와 관련하여, 나는 당신을 기록된 모든 말씀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무서운 것으로 안내하면서 이 장을 마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는 합당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심하거나 자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하늘 나라=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21-29).

성경의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끔찍하게 속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교 설교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그렇게 상상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이 번역에 따르면 "권

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팀의 일원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무서운 구절들입니다.

우선, 나는 어떻게 그런 파괴적이고 산산조각나는 상황이 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결정적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최종 대리자이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논의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상상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올바를 때가 한 번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올바른 길로 출발하지만 도중에 길을 잃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분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하지만, 이 미혹된 세상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모래 위에 지을 수 있습니다. 모래 위의 집은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러한 산산조각나는 붕괴를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개요는 우리가 말했듯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불멸성의 계획에 완전히 정통하려면 우리 쪽에서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좋은"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마가복음 1:14, 15)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불멸성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순종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듣는 것이 출발 지점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십시오"(마가복음 1:14, 15). 베드로는 첫 번째 서신을 시작했을 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그의 피 뿌림을 얻는 것"(베드로전서 1:2)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14, 15에 있는 예수님의 포괄적인 첫 번째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배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말했듯이(빌립보서 2:12)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여 개입된 삶과 죽음의 엄청난 문제에 대한 냉정한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에 대한 궁극적이고 전문적인 안내자이십니다. 그는 고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신명기 18:15-18, 사도행전 3:22, 7:37).

그는 불멸성으로 인도하는 길의 큰 스승입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가야 했고,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불멸성을 얻었고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좌에 앉을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불멸성 계획의 개척자입니다. 한편, 현재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에 이르는 길

을 걷는 이들을 돕는 긍휼과 자비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모험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이제 성경에 펼쳐진 위대한 계획의 퍼즐 조각을 몇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끊임없이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제5장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추가 정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조사한 결과 예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자이셨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1] 그는 필멸성이라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메시지로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대중에게 불멸의 비밀, 즉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전 세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가 누가복음 4장 43절의 기억할 만한 구절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그것이 그가 하도록 보냄을 받은 일입니다. 그 구절은 성경 전체의 놀라운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는 장엄한 지배 텍스트들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랍비이자 스승을 본받아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정력적인 설교자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생각해 볼 점은 단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

1 이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마태복음 4:17; 4:23; 9:35; 누가복음 4:43; 8:1; 9:11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과 후에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 바울은 똑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께 신실했습니다 (사도행전 19:8; 20:24, 25; 28:23, 31). 오직 하나의 복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서 지상을 떠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신의 일이 계속될 것임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 나라 과업을 위해 그의 일을 공유하는 내부 경영진인 첫 추종자들을 주의 깊게 훈련시켰습니다. 유명한 지상명령(마태복음 28:19, 20)에서 그분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것은 자신이 선포한 것과 똑같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로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추종자들이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철저히 훈련을 받은 후계자들이 선포작업을 이어서 수행하도록 합니다. 사도들 (대문자 A)[2]은 교체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다는 점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 복음,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의 정신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식 있는 주석가들이 관찰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미국의 선도적인 교회 개척자: "나는 솔직히 목회를 하며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갔습니까?"[3]

그리스도교 선교 전문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설명을 들

---

2 신약성경은 사도라는 단어를 이차적인 의미로도, 즉 여러 교회의 선교사 또는 감독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사도들 (대문자 A)[Apostle]은 일차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것으로 구별되었으며 그들이 행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고린도후서 12:12, 고린도전서 9:1).

3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교회 성장과 전체 복음』*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pel*.

어본 적이 있는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의 생각과 선교를 지배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과 이 침묵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4]

한 로마 가톨릭 성서 교사: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조직신학에서 거의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5]

캔터베리 대주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교 역사의 거의 전체 기간에 걸쳐 신학과 종교 저술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확실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거의 더 이상의 강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6]

복음에 대한 복음주의 작가: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7]

역사가 H.G. 웰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신 것에 대한 가르침에 엄청난 중요성을 부여하신 것과 대부분의 그리스도교 교회의 절차와 가르침에서 그것이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이지만, 그리스도교 교리에서는 아주 작은 역할만을 한 이 하나님 나라 교리는 인류의 사상을 뒤흔들고 변화시킨 가장 혁명적인 교리

---

4 『선교학』*Missiology*, 1980년 4월, p. 13.

5 비비아노 B.T. Viviano, 『역사 속의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in History*, 1988, p. 9.

6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 『개인의 종교와 친교의 삶』*Personal Religion and the Life of Fellowship* 1926, p. 69.

7 1974년의 세계 복음화에 대한 로잔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서의 마이클 그린 Michael Green

들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오늘날까지 이 갈릴리 사람이 우리의 작은 마음에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8]

나는 여러분이 교회 최고 권위자들의 놀랍고도 비범한 진술을 숙고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것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빠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 담화에서 예수님은 인상적인 말씀으로 "이 천국[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14)고 하십니다. 시대의 종말은 물론 전세계적인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기 위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규모로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계에 적절하게 경고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신성한 진술입니다. 그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약속이 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약속과 위협.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그 자체의 타락한 방식에서 구하기 위해 개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방만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실패에 대해,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분의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죽으셨습니다. 물론

8 『역사 개요』*The Outline of History*, vol. 1, p. 426.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 불순종한다면 용서는 무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을 명하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14, 15).

이제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세히 알고 사랑하셨던 구약성경으로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특히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의 큰 도시 (현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50마일)에서 일했던 다니엘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조국 유다를 느부갓네살이 침략하여 정복했을 때 바빌론으로 추방되었던 몇 명의 충성스런 젊은이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605년경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펼쳐질 중동의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역사의 특정 시기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정보는 그가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해석할 때 그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왕은 거대한 동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구운 진흙을 섞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2:31-45).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왕에게 그 꿈 환상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의 머리는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했습니다. 몸체는 바빌론에 건설될 다음 제국,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냅니다.[9] 동상의 세 번째 부분은 동일한 일반 지역을 통치하는 그리

---

9 일부 주석가들은 메디아 왕국을 페르시아 왕국과 다른 나라로 간주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동상이 위에서 아래로 바빌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스를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폭력적인 최후의 바빌로니아 왕국인 네 번째 나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나라는 다니엘 8장에서 그리스의 네 부분 중 하나로 확인되고, 11장에서 "북방의" 나라로 확인됩니다. 기원전 2세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잔인한 지도자가 지배한 그리스/시리아는 조각상의 마지막 무자비한 나라를 예고했습니다.)

그 최종 형태는 10개의 발가락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최후의 11번째 권세도 있을 것이며, 10명의 최종 통치자들과 함께 동시대에 하나의 파괴적인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13장과 17장에서 이 환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사악한 개체는 짐승이라고 불립니다 (계시록 11:7; 13:4-7; 17:8, 11, 12, 16, 17, 19). 바울은 그를 죄의 사람 또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10). 예수님은 없어야 하는 곳에 서 있는 멸망의 가증한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14).

성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구현할 미래의 악한 사람에 대한 증언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는 악마[사탄]의 직접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짐승의 권세가 끝날 때 일어날 일, 즉 큰 곤란 또는 "큰 환란"의 때 (마태복음 24:21; 다니엘 12:1; 다니엘 7:21-27 참조)가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 대답은 그리스도교 복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계시된 꿈에서 자신이 통치할 것으로 기대했던 나라의 환상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환상 속에 "손으로 베지 아니한 돌"로, 즉 초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돌로 아름답게 묘

점입니다.

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그 돌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형상의 부서지기 쉬운 발을 내리쳤고 거상 전체가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돌”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돌”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다니엘의 영감받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 2:44).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천하 나라들”(다니엘 7:27)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서 이야기의 목표는 새로워진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며 결코 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새로워진 이 땅에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메시아가 그 일을 맡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와 하늘 나라[Kingdom of Heaven]는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인들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주기도문”의 그 다음 행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충실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마태복음 5:5) 때이며,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5:10).

그리스도교 복음은 히브리 성경의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해 예수께서

언급하신 것들이 무시되면 훼손됩니다. 구원의 복음이라는 토대가 무너지게 되면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떤 형태의 막연한 영성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메시아주의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중에게 제시되는 예수님은 완전히 비메시아적입니다!

나는 많은 교인들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일반적인 바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당신의 현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정부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와 외침입니다. 그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사야 11:9)을 가리키고 갈망합니다.

야생 동물들도 함께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국가들은 고맙게도 국제적 전쟁을 영원히 포기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서로 죽이고 불구로 만드는 무의미한 폭력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탱크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으로 무기를 겨누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나라들은 그들의 무시무시한 파괴 무기를 녹여 농기구로 만들 것입니다. 치명적인 무기를 만드는 것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2:4). 평화는 필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조직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임재하실 메시아는 국가간의 분쟁을 중재할 것이며, 앗수르와 이집트와 같은 이전 적대 국가들은 공통의 믿음으로 기

뻐하고 서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9:22-25에서 그 놀라운, 미래의 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심지어 자연도 전 세계에 걸쳐 극적으로 다른 조건들을 반영할 것입니다. 사자는 어린 양과 함께 평화롭게 누워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지금은 독이 있는 뱀들이지만 그때는 그들과 함께 무사하게 놀 것입니다. 진정한 낙원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사야 11; 65:17-25 등).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가 "온 천하"(7:27)로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이나 창공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중적인 잘못된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상층 대기에 영혼으로 떠도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인기 있는 동화에 불과합니다. 성경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일에 성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지구를 파기하고 모든 사람을 하늘로 데려간다면 지상에서의 그분의 위대한 불멸성 계획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낙원은 한때 이 땅에 있었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만이 지상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본질은 우리 행성을 위한 하나님의 웅대한 설계의 집행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하늘]으로 가기로 되어 있다는 현재의 깊이 뿌리박힌 생각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 5:5, 시편 37:11 인용)라는 예수님의 탁월한 언술을 완전히 잠식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듣고 있는 "천국[하늘]으로 간다"는 부주의한 말을 하나님 나라에 관

한 예수님의 이 계시적인 가르침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웅대한 약속을 이해하려는 정직한 열망을 지니고 그 경전을 읽는다면, “하늘”을 우리의 미래의 집으로 지칭하는 것을 단호히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분의 언어를 본받아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목표와 희망에 대해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비합리적입니까?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전파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담긴 놀라운 보물입니다. 제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직전에 끔찍하고 짐승 같은 나라가 적어도 중동의 정치를 지배할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인 인물,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이 “죄의 사람”이라고 부른 그 인물에 의해 인도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직전에 대규모로 파괴시킬 이 악의 대리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의 폭군은 “적그리스도”(요한일서 2:18)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거짓말하는 영과 경향은 사회에서 이미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사도들은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개인으로서의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사람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은 “진리를 사랑하여 구원을 받는 것”(데살로니가후서 2:10)입니다.

환상 중에 다니엘은 하나의 정부와 그 지도자를 악한 인간 통치의 최종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뿔”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뿔은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패배할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놋이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다니엘 7:19-22).

그 결정적인 순간은 큰 환난의 끝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본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권세가 영구적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가져온 혼란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에 대해 주목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 7:18).

예수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약속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누가복음 12:32).

다니엘 7장의 환상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7장은 이 점을 세 번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웅대한 환상으로 끝맺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가 난동을 부리면

서 악의 짧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 줄 축복받은 안도감이 있을 것입니다.

>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25-27).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추종자들이 토지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마태복음 5:5), 그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5:10 참조) 약속하신 의미입니다.

자신이 본 것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상력과 관심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다니엘 7:28). 오늘날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공개 정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나중 장들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의해 대체될 마지막 악한 통치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 줍니다. 그는 다니엘서 11장에서 북방 왕이라고 불리며 극적인 군사 경력 후에 이스라엘에서 "그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다음은 다니엘의 말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1:41-45).

악한 북방 왕의 마지막 날에는 세계가 전무후무한 큰 환난의 시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은 구호救護는 그 끔찍한 고통의 기간을 끝낼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미래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1-4).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예언 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례 없는 "큰 환난"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다니엘서에서 찾은 구절을 인용하고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전에 없던 큰 환난이 있으리라 다시는 없을 것이며 그 환난이 그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마태복음 24:21, 22)고 하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29-31).

미래의 그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마치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독특한 고뇌의 폭발을 겪을 것입니다. 이 고뇌의 시간은 큰 환난의 때에 뒤따를 세계의 재탄생에 필요한 서곡입니다.

세상이 마침내 다시 태어날 때, 예수님이 직접 지도하신 새로운 정부 아래서 사도들은 지방 통치의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세상에서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운영]하리라"(마태복음 19:28).

나중에 그분은 이 사건을 확증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마태복음 25:31).

나는 현재의 세계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묘사하는 이러한 세부사항들이 앞에서 다른 성경구절들을 통해 설명한 기본 개요를 환기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죽은 충실한 자들의 부활과 빛나는 존재로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해 읽게 됩니다. 그 부활을 통해 그들에게 불멸성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이 구절을 사랑하셨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자신의 묘사에서 그것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14).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가 보고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태복음 13:43, 다니엘 12:3 인용)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불신자들의 끔찍한 운명에 대해서도 묘사했습니다.

>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사탄]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39-43).

세상과 인류의 미래에 관한 이 모든 자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큰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미래에 대한 이 지울 수 없는 이미지를 우리의 기억에 아로새겨야 합니

다. 성경은 우리의 완전한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된 생생하고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이 택하신 동료들이 감독하는 건전하고 항구적으로 안정된 정부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믿고 실천함으로써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세계의 많은 부면들에서 사회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불의는 끝날 것입니다. 혁명적인 새 정부가 지구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이자 최고의 대통령이자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세계 통치자입니다. 그는 "평화의 군주"로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 곧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평화를 성취할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래를 선포하셨고, 그 후에 그는 악한 종교 반대자들과 다른 광신자들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에 대한 적절한 대속물로 여겼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덮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는 모든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 복음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11, 12; 베드로전서 1:2).

다니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위대한 환상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 전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예수님과 신약성경과 같이 다니엘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천국으로 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와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부활과 생명으로의 복귀에 대한 약속

을 더욱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다니엘서 12:2). 이 간단한 구절은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들은 땅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그 다음부터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과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다니엘 12:13).

이것은 교회에서의 설교에는 전혀 없는 성경적 소망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다니엘은 이 유명한 구절 “시대의 생명”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뜻했습니다. 장차 부활 이후의 생명이기에 당연히 새로운 세대의 생명입니다. 물론 다가올 시대는 예수님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다가오는 시대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이 “항구적인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부정확한 번역이며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사탄이 지배하는 현재의 악한 시대를 대체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숨기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신”(고린도후서 4:4)이라고 하며 그 능력으로 “온 천하를 미혹”(계시록 12:9)하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대한 그의 통제는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요한 사도는 “온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안에 있다"(요한일서 5:19)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면적인 포괄이며 우리가 악마[사탄]의 속임수와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교묘한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안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약속과 정신을 지금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불멸성의 후보자들이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전됩니다 (골로새서 1:13). 회심과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이 세상이나 이 시대의 일부가 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충성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17).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재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요한복음 3:3). 현세에서 지금 거듭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려면 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러 온 랍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요한복음 3:3,5).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

단코 들어 가지 못하리라"(누가복음 18:17).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대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 나는 당신이 선지자 다니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듯이, 예수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온 땅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때를 고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개인과 사회로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끝장낼 것입니다. 다니엘은 일곱 번째 장에서 인자와 그의 동료들의 장래 활동에 대한 웅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인자는 그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 한 집단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리할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한, 자신에 대한 칭호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미래에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고 다니엘의 환상에 묘사된 그 운명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성경에서의 유일한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최고의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그는 극심한 반대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복음, 곧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모범 설교자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성경 드라마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2000년 전인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그 이후 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약 1000년 후에 살았고, 예수님의 탄생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불멸성 계획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첫 구절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 드라마의 저명한 구성원들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은 둘 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 역시 우리의 모범이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시련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품성의 사람들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직분을 위해 철저히 훈련되고 흠잡을 데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들로 임명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6장

하나님이 의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시다

하늘과 땅의 한 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상은 머지않아 무서운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악마[사탄]의 간교한 거짓말에 속아 낙원인 에덴동산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악마[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악의 하강하는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신생 인류를 압도한 폭력과 죄의 경향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1] 결국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악과 협력한 초자연적인 악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천사적 존재들이[2] 인간 여성들과 동거했고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거인의 잡종 자손을 낳았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도 유명한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악이 훨씬 더 널리 퍼졌습니다. 인간에게 선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창세기 6:6).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히 파괴적인 심판인 홍수의 형태로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

1 그 기록은 창세기 1-6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라는 표현(욥기 1:6, 2:1, 38:7, 비교.다니엘서 3:25)은 항상 사람이 아니라 천사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의 한 그리스어 버전은 창세기 6:2에 있는 용어를 "천사"로 올바르게 번역합니다. 신약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장에서 이 재난적인 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멸성 계획을 이해한 노아는 인류가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약 120년 동안 동료 인류에게 경고했습니다. 물론, 대홍수의 심판을 초래한 지상의 상황과 예수님께서 악인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상에 만연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상황 사이에는 직접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직전의 상황이 노아의 부주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대다수가 노아의 경고를 조롱하고 그를 일종의 종교적 광신자로 일축한 후에 닥친 홍수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직계 가족 8명을 제외한 사람들을 모두 익사시켰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베드로는 무서운 자만의 위험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베드로후서 2:5-9). 하나님은 계속해서 악한 사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에도 이 일을 하셨고 다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신 것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해력을 잃을 여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믿고 돕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중 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에 대한 그분의 표준은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폭력과 성적 부도덕을 가차 없이 반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형태의 성적 변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결혼”이라는 단어를 재정의하려는 현재의 시도는 인류가 창조주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셨고 그들이 "[좋은] 열매"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 모든 종류의 성적 타락을 행하거나 가르치는 경우 그들이 예수님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간음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옹호했습니다. 한 집단은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뿐만 아니라 물 침례의 필요성을 부인함으로써 메시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수로 인한 무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류가 다시 악으로 땅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홍수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반反하나님적 존재였던 니므롯의 땅 바빌론에서는 사람들이 자원을 모아 기념비적인 망대인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11장). 그것은 하늘에 도달하려는 인간 시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더 이상의 재앙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된 세계 운동으로 야기된 인류에 대한 엄청난 위험을 확산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바빌론에 있는 이교 도시 우르에서 한 쌍의 부부를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역사를 통해 참된 신앙의 영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아브람(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림)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만 의존하여 조국과 친척을 떠나 미지의 땅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순종했고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의

모델입니다.[3] 우리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로마서 4:16)이라고 부른 것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들로 정의됩니다 (갈라디아서 3:29).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다가 결국 그 도시를 떠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로 알고 있는 땅으로 여행했습니다. 그곳은 또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중심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창세기 13:15; 17:8 등).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미래의 부활 때에 그것을 받으리라고 온전히 확신하면서 죽었지만, 그는 그것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 점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명백한 진술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히브리서 11:13, 39). 저자는 하나님 나라 계획을 믿었던 모든 성경적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약속받았던 사람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4:12).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충실한 자들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4:11, 16).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로마서 4:16)은 바울이 참된 믿음, 즉 사실상 참된 그리스도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구절이라는 점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의 연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

3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과 13장, 15장, 17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을 다룹니다.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될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와 그의 후손(그리스도)/후손들 (그리스도교인들)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상속받을 것이라는 보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세계의 나라들의, 전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로마서 4:13)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멸성 계획에 대한 이해의 중요한 전망을 열어주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충실한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세상의 상속은 예수님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추종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리스도교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씨에 대한 구약성경의 중요한 정보 없이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씨(후손)와 흙, 땅에 대한 약속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씨앗과 토양, 그 개념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토지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토지와 지주 모두를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메시아가 언젠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실 것이며, 메시아는 가르치시고,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심으로써 세상의 정치를 인수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 대리

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땅과 세상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예레미아 27:5).

여기에 전체 성경 이야기의 열쇠가 있습니다. 붙잡아야 할 기본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복음 약속과 정확히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한 데에 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특별한 후손인 메시아 예수님의 소유가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며 자신이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그 탁월한 "씨"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땅의 궁극적인 상속자이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5). 이것은 교회에서 장려하는, 탈신체화된 영혼들을 위한 막연한 "하늘"[천국]의 약속과는 얼마나 현저하게 다른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로부터 완전히 "옆길로 들어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시한 그리스도교적 모험의 요점[죽으면 천국]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천국]에서 탈신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혐오스럽고 확실히 매우 지루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누가 "땅"을 얻는가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중동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땅을 얻으실 것

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인수하려고 하거나 유대인이나 아랍인이 지금 그것을 소유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 사이의 이 놀라운 연관성이 교회에서는 흔히 잘 알려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4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그 약속된 축복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갈라디아서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과 똑같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땅, 즉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상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의 약속은 성경과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확고한 계약, 즉 그 언약을 세우실 때 하신 말씀 전체를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참으로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창세기 17:1-9)

당신도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자신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거부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그가 참으로 오랫동안 약속된 그리스도,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봉사의 가장 중요한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이자 사도인 베드로에게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부활한 침례자 요한이거나 아마도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첨예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결정적인 질문에 유일한 정답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택함받은 후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에게 의존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자임을 이해한 것은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반석같은 확고한 고백을 토대로 예수님은 그의 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16-18).

전체 성경 이야기는 땅이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식별한 이 에피소드의 엄청난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들은 상호보완적입니다. 그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행해진 놀라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4장에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이후의 교회 전통은 예수님의 신분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모호하게 했습니다. 성서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아들," 삼위의 하나님 또는 삼위일체라고 불리는 것의 두 번째 구성원인 "아들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관념이 발생했습니다. 불행히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이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전환되었음을 확인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님은 항상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는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지위를 창조되지 않은 신의 지위로 끌어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 종속되셨고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조인 이스라엘 신조를 암송하고 확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십시오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두세 주님이 아니라 한 주님!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두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위험한 이교주의라고 일축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신조가 "신령[영]과 진정[진리]으로"(요한복음 4:24)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유대 서기관의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성경의 핵심 신조를 믿으셨습니다. 물론 그의 추종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3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신조는 그리스도교 신조이며, 그는 오늘날 어떤 유대인도 받아들이지 않을 하나님에 관한 후대의 이론들로 인해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구상의 10억 무슬림들도 성경이 기록된 후에 발전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신론자[4]라고 주장하는 지구상의 약 30억 명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정의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한 분"(요한복음 17:3)이라는 예수님의 신조를 다시 한 번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자신의 신조였던 그것을 우리가

4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 자.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 즉 예수님 자신은 자신에게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떤 교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나중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자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 다른 존재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아들들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게 종속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아주 명백한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것이 영어, 헬라어 또는 히브리어 사전이 알려주듯이 "낳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낳다"는 것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 귀중한 텍스트를 다시 제대로 읽게 될 때,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전통"으로 받아들여진 예수님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을 무효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 관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아들에게는 존재의 시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과 크게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낳다"라는 단어는 모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독생하게 된 분이라고 말하는 텍스트는 교회에 의해 교묘하게 공식집회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의 명백한 의미는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항상 아들이시며 시작이 없었다는 거짓 전통이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임명된 중보자인 죄 없는 인간에 의해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디모데전서 2:5). 이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이 질문에서 똑같이 중요한 것은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 결국 땅과 세상을 다스릴 오는 "씨" 또는 후손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씨를 확인하고 그를 아브라함의 법적 및 생물학적 후손으로 인정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권리 주장들은 사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씨와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엄격하게 인류의 일원입니다. 큰 교회의 한 현대 지도자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제 어머니가 되어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서 필자들은 그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거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홀로 불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16).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되기 전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전체 요점은 그가 인류의 일원으로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 이전에는] 죽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죄를 위한 희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불멸이시라면 (디모데전서 6:16), 예수님은 죽으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은 없습니다. 성경에 수천 번이나 언급되어 있듯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아들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 분으로 만들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든 일탈에 대해 경고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라면 결국 합하면 하나님 두 분이 됩니다. 웹사이트들에서 제공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운 진술들 중 일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위격이며...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넌센스입니다! 세 개의 'x'들은 하나의 'x'와 같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교인들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설교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엄격한 공식 가르침에 기초하여 단지 믿어야 하는 것으로 요구됩니다.

개혁가인 존 칼빈은 실제로 삼위일체에 대해 감히 의문을 제기한 젊은 신학자를 화형에 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하여 누구인지라는 물음에 대한, 교회를 뒤흔든 수세기 동안의 논쟁들은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 신조를 포기한 데에 따르는 끔찍한 결과를 보여주는 슬픈 기념물입니다. 한편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

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평범한 교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시라는 신비한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는 "교제의 왼발"[고린도전서 1:1-17]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쫓겨납니다.

고맙게도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거의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믿음과 모순되는 신조를 장려해 왔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류 학자들의 문헌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브의 씨와 아브라함의 씨가 사실상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인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했습니다. 마리아는 역사의 특정 주어진 순간에 그 왕족의 후손을 잉태했습니다. 그 씨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확실히 "아들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된 그 존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유래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생명에서 인간적 존재로 옮겨가는 일종의 "도관"이나 통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형의 관념은 일종의 이교 종교에 속합니다. 그것은 "환생"이라는 이교도 개념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변용태가 될 것이며 탄생이 전혀 아닙니다.

인간 이전이라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원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지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원은 마리아의 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새롭고 최종적인 창조의 시작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

은 성공하셨고 우리는 모두 그를 따르고 영생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 서두에 “예수님의 기원 ”(마태복음 1:1, 18; 헬라어는 “창세”)에 관한 전체 부분을 기록했으며,[5]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이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전혀 다른 이야기로 대체했습니다!

이 약속된 왕의 후손이 도착하기까지 아브라함은 그런 설렘으로 고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증하신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을 약속받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는 약속된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큰 기쁨과 설렘으로 고대하며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이 구절을 세 번 인용했습니다(로마서 4:3, 9; 갈아디아서 3:6). 야고보도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야고보서 2:23).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즉 그것이 사실임을 믿고 그 약속에 기초하여 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사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확증이었습니다(로마서 15:8).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

---

5 일부 그리스어 사본은 다음 단어로 대체하여 손상되었습니다. “창세“(하나의 n) [genesis]라는 더 명확한 용어를 피하기 위해 “제네시스“(2개의 n) [gennesis].

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꾸며내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거나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론을 믿으면 재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자신의 방법을 상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므로 믿음은 언약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성경을 기록하는 그의 사자로 임명하신 자들에 근거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보다 악마[사탄]의 거짓을 기꺼이 믿게 된 탓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인 그 비극을 역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아담 예수님과 그의 대리자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참된 믿음은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요약된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 구절은 전체 성경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그것은 누가 "땅을 얻는가"에 관한 것,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중동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분명히 끝없이 투쟁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을 얻습니다. 그분은 메시야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추종자들에게 그들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마태복음 5:5)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땅/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단지 모든 약속의 대상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펼쳐지는 드라마에서 또 다른 핵심 인물은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그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불멸성 계획을 수행하도록

선택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전체 활동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왕가와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했을 때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그 부분은 다음 장에 속합니다.

제7장

다윗 왕: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또 다른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이후 약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불멸성-하나님 나라 프로그램 전개에서 또 다른 주요 기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서 왕을 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색이 붉고 눈이 아름다운 막내아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왕실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후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계획에 대한 충성이 확고하게 고착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믿음의 여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깊이 상심했고, 아브라함처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 계획을 믿으면서 장수한 후에 죽었습니다.

먼저 다윗 왕을 선택한 일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일에서 다윗만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또는 다윗의 "씨"(마태복음 1:1)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될 메시아 계획에 원칙적으로 자신을 일치시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예시된 것을 봅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름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름부음으로 하나님

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2). 성경에 나오는 성령은 하나님의 작동하는 임재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신약성경 시대 이후)이십니다. 영은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16). 그 영에 의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불멸성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현재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사도행전 5:32; 히브리서 5:9)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앞서서 기름부음으로 영을 받습니다. 영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습니다(갈라디아서 3:2).[1]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난"(요한복음 3:5) 것으로, 또는 말씀인 복음(베드로전서 1:23, 야고보서 1:18, 갈라디아서 4:28, 29)으로 난 것으로, 일컬어집니다.

나는 다윗을 왕으로 선출하는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시편 기자이자 왕인, 이 유명한,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봅니다. 성경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2]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

1 영의 증거는 복음과 진리의 이해로 나타납니다. 영의 진정한 증거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으로부터의 치명적인 이탈입니다.
2 『뉴 리빙 번역』*New Living Translation*으로부터.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6:1-13).

다윗이 왕으로 임명된 배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히 상속받을 씨와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지리적인 장소와 그 장소와 함께 할 군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과 믿음, 자손, 번영과 재산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전제로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땅의 약속이 확고히 세워지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시작으로 왕족, 곧 왕을 마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신은 감독할 왕자나 왕 없이는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 메시아(기름부음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씨가 될 후손을, 즉 메시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교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 참된 그리스도교 역사가 학교에서 충실하게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실제 역사와 뿌리는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경적 유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흔히 자신들의 소위 유대-그리스도교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신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중추를 형성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유다 왕가의 일원입니다. 신약성경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갈라디아서 6:16)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진정한 영적 "유대인"을 의미하는 "참 할례"(빌립보서 3:3)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유대인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여권에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라고 씌어져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출생 증명서"는 "재생"에 대해, 왕 예수님의 왕족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먼저 육신의 친척이나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국제적 친척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 자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누가복음 8:21 참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마가복음 3:35; 비교 마태복음 12:50).

이 중요한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를 믿는 신자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동료들과 메시아의 사도들로 가족을 재정의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국제적인 교회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작은 그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 13:35). 그러나 현재 신자들의 사랑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 사라졌습니다. 국제적 전쟁들에서는 신자들이 출신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서로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국제적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어떤 외국 왕국의 대사였고,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그러한 지위의 모델이 되셨던 것입니까? 다윗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었습니다(역대상 28:3).

바울은 그의 친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배척한 것에 대해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영구적으로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동안 그들은 “복음의 적들”이었으며 다시 그들 자신의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로마서 1:11 참조). 물론 바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이 없는"(로마서 10:2) 유대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건으로 "종교를 행"했지만, 큰 하나님 나라 언약인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조건에 기꺼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28- 30).[3] 바울의 유대인 동포들은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유일한 종교, 즉 이미 오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 진리는 다윗의 삶과 모범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모범 신자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선구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신약성경의 신실한 조상(로마서 4:16)으로 정당하게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같은 구절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파된 것을 주목했습니다(갈라디아서 3:8).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왕의 언약을 맺으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범과 예증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

---

3 누가복음 22:28-30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추종자들에게 "계약" 하신다고 보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며 따라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조국과 부모와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약속의 땅, 약속된 땅으로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일종의 "영주권자"인 거주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사실상 약속에 의해 그 자신의 땅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인 메시아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직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8-9).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왕족적인 요소는 다윗왕이 나타남으로써 더욱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놀라운 구속력 있는 언약,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 말씀에 너무나 유쾌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 왕과 선지자 나단의 유명한 만남이 있습니다. 당신은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활동에서 이 다음 단계에 의해 위대한 불멸성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위대한 불멸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목표와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무엘하 7:1-17).

자신과 그의 후손과 세상에 대한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생애에서 부분적인 성취만이 있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헌장의 중심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민족에게 평화와 번영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심오한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4]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

4 이 구절은 아마도 "그리고 이것은 인류 역사를 위한 헌장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하늘에 계시지 않은 나의 조상: 유대인 예수의 잊혀진 그리스도교』*Our Fathers Who Aren't in Heaven: The Forgotten Christianity of Jesus the Jew*, 특히 6장을 참조하십시오.

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7:18-29).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다윗에게 나타나자 성경의 하나님 나라 드라마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펼쳐지는 계획의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초자연적 생성에 의해 마리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게 됨으로써 메시아 예수님이 도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35).

다윗은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죽어 잠들었습니다(사도행전 13:36). 그러나 많은 시에서[5] 약속들과 세상의 미래에 대해 썼습니다. 다윗은 그가 썼

5 특히 시편 2, 21, 96-100편을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은 여호와께서 통치하기 시작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한

듯이 결국 “죽음의 잠을 잤”습니다(시편 13:3). 그는 무덤에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를 찬송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시편 6:5; 115:17). 그러나 그는 미래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서 죽었습니다. 당신의 희망은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된 다윗의 소망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무엘하 23:1-5).

신약성경은 다윗의 미래의 아들에 대한 나단의 예언이 왕으로서 비참하게 실패한 솔로몬에게서 절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최종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사무엘하 7장 14절의 예언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은 이 예언

시편 72, 89편.

의 대상이 예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윗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그것은 또한 아들의 존재와 잉태에 관한 시편 2:7을 인용함으로써 같은 점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약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셨습니다(누가복음 1:35).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1:20에 유의하십시오. 그 구절에서 그리스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읽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예수님의 발생/기원(마태복음 1:18)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1). 그 중요한 단어인 "기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 존재의 시작을 가지고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항상 존재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일 것입니다.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하게 된 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인간 아버지의 협조 없이는 어떤 사람도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그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면, 그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계층에서 절대적으로 독특하게 만듭니다. 그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력 중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리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와 동등하지 않으며 그를 제외하고는 구세주가 없습니다. 그는 인간이 창조주이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며 그는 완전한 피조물이신 예수님의 삶 속

에서 가장 탁월하게 활동적이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예수님이 주장하신 것을 내세우거나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지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한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을,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로 경배할 가치가 있는 인간을, 생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신약성경의 말씀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6]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게 경의가 표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약에 대해 강렬하고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물론 예수님 자신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기쁜 소식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누가복음 4:43) 예수님께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전체 성경 드라마의 중심입니다.

---

6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는 *latreuein* [하나님으로 예배하기]의 예는 없습니다." (Arthur Wainwright, *The Trinity in the New Testament*, p. 103)

제8장

참하나님, 참메시아와 불멸성의 보배로운 씨앗

그리스도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류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불멸성 계획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인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이 계획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값진 보물로 취급하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마태복음 13:44).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신성한 프로그램에 협력하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운명과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에 해당합니다.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성경에 대해 부주의했고, 그리하여 우리의 불경건했던 행동과 믿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 혹은 정신과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에서 발견되는 진리에 비추어 삶과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

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마태복음 4:4)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메시지인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과 바울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대중에게는 사실상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것처럼 제시되었습니다! 이 참담한 실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친 일부 교회의 파국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개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취소하고, 구원하는 복음으로부터 그를 분리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신 지상명령과 대단히 크게 모순됩니다. 복음에 관한 예수님의 분명한 행진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하며, 요한이서 7-9, 디모데전서 6:3, 히브리서 2:1-3의 경고들을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전체 경력 동안에 바울은 은혜의 복음과 물론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전념했습니다(사도행전 20:24, 25). 바울은 순종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1]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

1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FF Bruce,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Acts*, pp. 379, 380).

님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그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하나님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매우 위협적이며 때로는 신자들을 두렵게 하여 불가능한 것들을 믿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넌센스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되시기 전에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대교 신조를 인용하셨는데, 이 신조는 확실히 하나님을 한 분의 신성한 인격으로 제한하고 (성경적 유니테리어니즘) 그 누구도 하나님은 신비하게도 셋이면서도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하나 안에 둘이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한 개성체로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라는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매우 분명한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4-6).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조입니다. 바울은 이교도 종교에는 소위 많은 신들과 주들이 많다는 사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

도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신조에 헌신해야 합니다(마가복음 12:28-34).

한 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다른 종교 체계에 있는 한 명 이상의 신 또는 많은 신들에 대한 믿음과 대조한 고린도전서 8장 4-6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신조는 "우리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음을 압니다...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있습니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한 분 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주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주 하나님이 분명히 아닙니다! 누가도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주 메시아"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메시아로 지칭됩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주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메시아입니다. 시편 110:1은 대조되는 두 주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야웨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 주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천 년 전에 주 메시아를 "나의 주"(시편 110:1에서 모든 신자가 기억해야 함)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를 히브리어로 아도니 ("아도니이"로 발음함)로 불렀습니다. "주"라는 단어의 그 형태 "아도니"는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 195번 나오며 결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2] "아도니"는 우리에게 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월한 인간 또는 가끔 천사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마태복음 16:16-18) 하

---

2 스트롱의 컨코던스는Strong's Concordance는 이러한 구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읽고 주요 사전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람에게는 분명합니다. RSV, NRSV는 올바르게 시편 110:1의 두 번째 "주"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문자 L을 넣지 않습니다.

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편 110:1에서 계시된 의미에서의 주이심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사도행전 2:36). 그는 그 말을 할 때 시편 110:1을 인용했습니다. 그 구절에서의 “주”는 하나님이 아님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기자들이 매우 자주 인용하는 시편 110편 1절에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혼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아도나이]는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 야웨, 즉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하나[아도니]는 하나님의 칭호가 아니라 우월한 인간에 대한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사용하여 청중이 메시아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마태복음 22:41-46).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마리아의 태에 하나님의 독생자(누가복음 1:35)로 잉태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다윗의 후손이었고 궁극적으로 승천하실 때 아버지의 우편으로 올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주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삼으셨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 귀중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사도행전 2:36).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이 바른 신조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근거로 분열되어 있고 잠재적으로 서로 적대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견해를 중심으

로 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사상 때문에 현재 (그리고 당연히) 불쾌하게 된 무슬림과 유대교 신자들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나머지 종교 세계 사이에 장벽을 세웁니다. 그 장벽은 매우 부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나 어떤 신약성경의 저자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하고 독특한 인간이십니다. 그는 어머니의 자궁에서 기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며 천사는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인간 여성과 짝을 이루는 기괴하고 사악한 경우를 제외하고. 창세기 6장 참조). 당신은 인간 이전이면서 인간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옮겨가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태는 예수님이 이전하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아담입니다. 그는 인간 메시아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그는 시간 속에 확실한 시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보다 6개월 어립니다. 그는 동시에 논리적으로 수백만년이나 더 나이가 많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 시기에 두 기원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원은 마리아에게 행해진 기적으로 거슬러올라 갑니다 (누가복음 1:35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교회 신조에서 제시되는 예수님은 시간 속에 시작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그를 인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것

은 그가 “이전 삶”으로부터 마리아의 태로 들어왔고 그것을 통과하여 인간 옷을 입고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그는 자동적으로 죄를 짓거나 유혹을 받거나 죽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그의 모든 유혹과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일종의 게임, 속임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모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라는 복수 주어]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며, 불멸의 하나님을 필멸의 인간의 모델로 삼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레슨을 단지 두 번 밖에 받지 않은 아이들과 피아노 경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들이 예수님의 “선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I pre-am, you pre-are, he pre-is"와 같은 동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단일한 사람이 “선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존재하기 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누가 누구를 선재합니까? 전체 이론은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의 평범한 설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는 교회 역사의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에 대해 읽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후 150년경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성경적 초상과의 접촉을 급속히 잃어가고 있던 교회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살아 계셨고 실제로 마리아에게서 자신의 잉태를 일으키셨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어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하와,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전통이 형성되었고, 나중에 대부분의 교회 신조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2세기의 중요한 "교부"였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장 35절의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완전히 다른 설명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스틴은 마리아를 덮은 능력(누가복음 1:35)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아들은 자신의 잉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교회의 신조가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이 개념은 환생에 대한 이교 개념과 더 유사합니다.

오늘날의 저명한 학자들은 비록 그다지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저스틴이 여기서 성경의 설명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에 대한 한 저명한 전문 주석가는 "나중의 전승은 누가복음 1:35에서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었다"라고 썼습니다.[3] "완전히 다른 것"? 그렇습니다. 그 본문은 누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말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스틴은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기원을 고안했는데, 나중의 전통이 그것을 오늘날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에서 시작되지 않고 그가 태어나기 전에 살아 있었으며 실제로 자신의 잉태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학자들은 누가와 마태가 지금 그리스도교의 핵심이라고

---

3 조셉 피츠메이어Joseph Fitzmeyer, 『성 누가의 복음서』*The Gospel According to St. Luke,* 1981, p. 350.

하는 교리, 즉 삼위일체의 두 번째 구성원이 성육신했다고 하는 교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육신은 누가에게는 (마태에게도 마찬가지로) 낯선 개념이다.”[4]

>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신성한 아들 신분이라는 관점을 마태보다 더 분명하게 지닌다(1:32, 35).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들 신분이 잉태되고, 생성되는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명백한데, 이것은 부름을 받을 사람이 존재하게 되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선재한 존재가 인간 아기의 영혼으로 이전되는 것, 즉 신적 존재가 인간 태아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누가의 의도는 분명히 출산의 창조적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다.… 유사하게 사도행전에는 선재의 기독론에 대한 어떤 징후도 없다.[5]

성경은 역사적 메시아, 인간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른 구세주들은 모조품일 뿐이며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바 그 구세주들 대다수가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분의 대리자로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리라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과 같은 면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불건전했습니다. 교회는 실제로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전통에만 근거하는 관념들을 그들의 신념 체계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릇된 것”에 대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공의 열쇠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뜻하신 바를 잘 아는 데에 있습니다.

---

4 같은 책, pp. 340, 350.

5 제임스 던James Dunn, 『형성중인 기독론』*Christology in the Making*, p. 51.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칭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일종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칠 줄 모르고 두려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가 되셨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마태복음 6:33)고 하셨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심으로써 그 점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복음 6:10).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상으로 토지나 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5:5). 그는 하늘[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충성스런 자들에게도 땅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 약속된 땅을 영원히 소유하도록 보장하셨으며, 이것은 물론 불멸성을 의미합니다. 그 불멸성과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복음으로 그것을 전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점이 이해됩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공정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와 같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교가 단지 우리가 정의하는 것처럼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의 문제입니까? “선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단지 “선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문

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현명한 조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태복음 4:4). 아마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시 지침으로 주신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살 것을 예수께서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한 믿음으로 연합시키는 새 언약을 도입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중심 주제라면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교 활동과 설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천국[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14).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마태복음 28:19, 20).

그것은 교회의 가장 간단한 업무 설명으로 보일 것입니다. 지상명령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후계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가르치라”(마태복음 28:19, 20)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설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변경되지 않고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예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물로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증거가 마무리되었을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국제적으로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모든 인종과 언어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천국[하늘 나라=하나님 나라]복음"(마태복음 24:14)이 충분하고 온전하게 전 지구를 횡단해야만 세상의 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됩니다. 다윗의 왕좌는 예루살렘에서 회복될 것이며 메시아는 세상의 왕으로서 그의 직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희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정보는 예수님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완전하고도 흥미진진한 세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마가의 보고에 따르면,[6] 그 비유는 비유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요점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그 비유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리라"(마가복음 4:13 참조)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열쇠이며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포장풀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재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완벽한 예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씨입니다. 우리는 모두 씨앗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모두 "씨앗"입니다. 모든 것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씨의 힘에 대한 증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씨앗"은 자연계에서의 생명의 열쇠입니다. 그것은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즉 불멸성의

---

6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는 4장에, 마태복음은 13장, 누가복음은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멸성 계획과 구원의 길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알아보려면 그 세 가지 기록들을 모두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열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자입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마태복음 13:19)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8:11). 마가는 그것을 "말씀"(마가복음 4:14)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누가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병행 설명에서 가장 단순한 방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복음" = "하나님의 말씀" = "말씀."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절대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가능성을 창조한 "씨 뿌리는 자"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말씀"[7]이 우주의 일관성의 원리를 묘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실제로 무엇인지 말씀하심으로써 삶과 우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씨는 말씀이니라"(누가복음 8:11). 씨앗은 불멸성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력의 불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가치의 유일한 "로고스", 값진 진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현대 철학과 과학의 모든 지혜를 대체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아는 철학자나 과학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

7 그리스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생명과 성장을 생산하는 에너지를 인식하는 "로고스 정자"(*logos spermatiko*)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첫 번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을 꿰뚫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쟁하는 수많은 매력적인 것들에 빠르게 주의를 빼앗겼고, 씨가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나가고," "그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씨앗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얕았고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만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8:13).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신자였지만 아주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시련과 시험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메시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범주만이 씨앗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씨앗은 그들의 이해 속에 깊이 심어졌고 마침내 인내로 시련 속에서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영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씨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이 개종자들의 마음에 깃들기 시작했고 때가 되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의 산출은 때때로 100배나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 메시지에는 새 생명의 불꽃, 불멸성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DNA를 전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목소리를 높이신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8:8: “그는 소리를 높이시며”). 그는 그것을 반복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운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멸성 메시지이었는데, 대중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디모데후서 1:10)를 기억합니다. 그 씨앗은 새 생명의 싹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인간 대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씨는 새로운 생명, 활력, 에너지의 가장 완벽한 예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씨앗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암컷 난자와 결합한 수컷 종자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기적에 의해 생성되며 모든 동물의 삶은 이 패턴을 따릅니다. 씨앗은 도처에 심어지고 우리는 씨앗의 열매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똑같은 씨뿌리기 과정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한때 육체적인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멸성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탄생, 거듭남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의 자궁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머니 교회의 모태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갈라디아서 4:26)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아들과 딸이고 약속의 자녀(갈라디아서 4:28)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며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거듭나면 “갓난 아기”가 되며, 그 다음에 “순수한 말씀의 젖”을 구해야 영적인 성인이 됩니다(베드로전서 2:2).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위한 그 젖은 사실 “복음의 젖”입니다. 베드로는 “말씀”(그리스어로 로고스)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젖, 즉 “로기코스”[합리적인/영적인] 젖을 지칭합니다.

씨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누가복음 8:11, 마태복음 13:19). 그 씨는 우리 마음과 이해 속에 현명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 과정을 파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씨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허락을 받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복음 메시지를 따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씨앗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악마[사탄]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12절, 놀랍도록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관찰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악마[사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집요하게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그 악마[사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로 작정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로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누가복음 8:12). 그 단어들을 주의 깊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소식은 여기에서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우리가 반드시 파악해야 할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말기에 일어났을 때 복음에 추가되거나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덮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진지하게 살기 시작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니라"(히브리서 5:9). 바울은 "믿음의 순종"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4:11, 12).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복음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14, 15).

이 필요한 마음의 변화의 기초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11, 12은 우리에게 공정한 경고를 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것, 즉 회개하는 조건에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조건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신약성경의 구원 체계에 대한 열쇠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마음을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이 매우 명확해집니다. 한 주석가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사회를 두 개의 반대 진영들로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입니다.[8]

이것이 마가복음 4:11, 12의 분명한 의미가 아닙니까? 누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진리를 보고합니다. “사탄이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제하여 저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함이니라” (누가복음 8:12). 예수님이 전하신 대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그가 설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17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매우 인상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것이 열쇠요, 지식의 열쇠입니다 (누가복음 11:52).

그의 사역 내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11). 바울의 선교 양식은 정확히 같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사도행전 28:30, 31). 바울은 지상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가르치라”(마태복음 28:19, 20).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파했다면, 일부 사람들이 잘못 말하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더하거나 빼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 대단히 우려했

---

8 조지 래드George Ladd, 『신약성경의 신학』*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p. 51.

습니다. 바울은 복음 왜곡자들을 일종의 저주로 위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바꾸는 것은 좋은 음식에 이질적인 첨가물을 더해 음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의 효과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는 반석 같은 견고한 기초를 빼앗는 것은 끔찍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 불멸성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는데 현대의 복음 전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성경 교사 사이의 유명한 대화에 대한 요한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지도자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 5)라고 도전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탁월한 종교 지도자였으며 밤에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도, 불멸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로의 진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우리가 지금 거듭나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아기로서 장성하여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마태복음 25:34) 초대받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다고 보고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8:17).

어떤 사람들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할 때까지는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 즉 자연적이고 비영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은 영을 생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직 영만이 영적인 것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와 개종을 통해, 그리고 불멸의 영적 씨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바람의 권세와 같습니다. 결국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흡 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충만한 말씀입니다(요한복음 6:63). 그들은 우리에게 성스러운 영을 전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감을 받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림으로써 진리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바울의 고전적인 말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당신은 영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2).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에베소서 1:13). 영을 받는 방법에 관한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울이 했습니다. 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을 전하고 그 영을 마음에 두는 것이었습니다(고린도후서 1:21, 22).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실제로 신약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으로 돌아갑시다.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요한의 설명에서, 거듭나는 것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보고서에는 "거듭나다"라는 정확한 단어

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가르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그처럼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언급하는 것을 잊었습니까? 구원의 열쇠를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거듭남"에 대한 동일한 가르침을 다른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씨앗"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경작, 농업에서 이끌어낸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학자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에 대한 요한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재생과 평행이 되는 영 속에서의 새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보고에서 인간의 탄생과의 비교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는 대중과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농업적 비교를 사용했습니다. 즉, 그는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를 새로운 탄생의 활력있는 대리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신약성경 기자들은 영생의 비밀을 제시하는 데 연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스승에게서 불멸성의 "교역"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불멸이 복음의 씨앗 메시지를 통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매일 다른 상황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려는 열정을 표현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들었습니다(누가복음 8:8, 요한복음 12:44).

예수님의 이복 형제인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상기시켰습니다(야고보서 1:18). (이 구절만으로도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태아 단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씨와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과거시제로 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였으니...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베드로전서 1:23-25)라고 말했을 때 이 중심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22-25).

"갓난 아기 같이 복음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2:2). 그리스도인은 태아가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기에 비유됩니다.

베드로가 진리, 거듭남, 씨, 말씀, 복음의 개념을 얼마나 아름답게 결합했는지 보십니까? 베드로의 스승인 예수님은 거듭남, 씨, 말씀, 복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같은 이해를 공유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으로 난"(갈라디아서 4:29)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약속으

로 난 자들"을 의미합니다(갈라디아서 4:28).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불멸성에 대한 위대한 약속의 산물입니다. 그 약속은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영으로 태어난"(갈라디아서 4:29) 자들이 아직 육신에 있는 자들에 의해 박해와 반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은 육을, 영은 영을 낳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요한복음 3:6).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의 전체 체계에 근거한 옛 언약을 새 언약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비교하여 "속박"이나 "노예"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새로운 율법 또는 "그리스도의 토라"(고린도전서 9:21; 갈라디아서 6:2)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토라는 문자가 아니라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옛 언약(창세기 17장) 안에 있으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된 신체적 할례는 이 새 언약에서는 오직 마음의 할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언약들 사이의 큰 차이의 패턴을 설정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깃들어야 할 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3:9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사는 씨에 의해 습관적인 죄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게 하는 씨앗입니다. 그 씨는 바로 복음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는 "하나님의 말씀"(누가복음 8:11)입니다. 그 씨는 영원한 생명의 씨,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불멸성의 씨입니다.

"복음/하나님 나라의 말씀" = "하나님의 말씀" = "말씀"이라는 공식을

결코 잊지맙시다.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제시하신 순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seeing, 듣고hearing, 이해하고understanding, 회개하고repenting, 용서받는forgiven” 것. (나의 학생들 중 한 명이 "SHURF"로 요약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의 “통로” 또는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씨를 받아 또 씨가 되고 더 많은 종자를 전파해야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2에서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말을 했을 때 자신이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의 말이 내 혀에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마음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영을 다윗의 마음에 두실 수 있었고, 다윗은 이 영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영”[혹은 성령]에 대한 이 정의를 매우 좋아합니다.

> 영 [혹은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호흡이 아니라 그의 자아 인식, 그의 마음, 그의 내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활력의 근원이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의 자의식, 그의 존재 자체, 그의 인격의 중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존재의 부수적인 모든 것들을 박탈했을 때, 그 사람의 영이 그의 궁극적인 실재이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내면의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성령]은 그의 내면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룹니다.[9]

---

9 W.R. 보위Bowie.

“영이 말한다”라는 구절은 영이 말로 자신을 분명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은 언어화된 영입니다. 물은 탱크에서 보이지 않지만 수도꼭지를 켜면 물이 보입니다. 영은 마음에 먼저 존재하며 말을 할 때 그 영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말씀의 효력은 같습니다. 영과 말씀은 모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힘을 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데살로니가전서 2:13). 모든 참된 영과 말씀은 영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그 근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영과 생명”(요한복음 6:63)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생[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의 말씀”(요한복음 6:68)을 가지신 것을 알았으며, 베드로는 “이 생명의 모든 말씀”(사도행전 5:20)에 대해 말했습니다. 신약성경의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시대, 곧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을 대중에게 전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이 예수님의 설교/가르침을 등한히 하는 것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불멸성의 은혜로운 제안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값진 진주를 버리고 영생의 비밀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천국[하늘 나라=하나님 나라]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44-46).

사도들이 그들의 회중이 예수님의 말씀/가르침을 버리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참조 디모데전서 6:3, 4).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귀한 씨의 상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요한이서 9).

결국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우리에게 합당한 이해를 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요한일서 5:20).

종종 무시되는 구약성경의 한 구절은 고통받는 종(예수님)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

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11)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이해의 열쇠는 예수에 대해 언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그의 말을 들으라"(마태복음 17:5). 물론 예수님의 죽음도 또한 필수적이지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가 죽는 것을 지켜보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9장

메시아 예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예수의 아버지에 대한 당신의 고백을 공개하기

예수님은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설교하실 때 교회를 향한 행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모으시고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 의해 개종자들이 된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마태복음 28:19,20).

다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이론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단지 하나의 복음만, 하나의 그리스도교만 있을 뿐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즉, 돌아가셨다가 부활되셨을 때] 불멸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친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우리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신 자니라"(사도행전 10:41).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1]가

---

1 하나의 대형 교파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분명히 천사장 미카엘Michael the archangel이 아닙니다.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실체가 있는 유형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 앞에서 살아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그와 함께 먹고 대화하였으므로 그가 죽음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뒷받침되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면 훨씬 더 많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고통을 겪게 될 텐데 사도들이 거짓을 증언한다면 그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여성들이 처음 그를 살아 있는 채로 보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매우 불공평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로 생각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은 상태로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불멸성 프로그램의 개척자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사실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이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이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활을 위한 성공적인 후보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요한복음 14:15)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남자

와 여자에게 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건축하기로 약속한 교회에 입회하는 공개 의식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신앙으로 개종한 남녀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어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간음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나 동성애를 계속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도둑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고린도전서 6:9, 10).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와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6:9, 10에 열거된 부도덕이나 술 취한 사람이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그분의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자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매우 쉽고 분명한 가르침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우고 나서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준비가 되었을 때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침례받은 친구가 이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회원이 있다면 그들은 이 엄숙한 행사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기도 후에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적 실천입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을 따랐고 또한 명령했습니다. 그는 그저 스승의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에서 물침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원래의 12명과 같은 사도가 없지만 우리 모두는 사도들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공동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삼위

일체라고 하는 훨씬 후의 교리, 즉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라는 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했고 항상 아버지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작용력과 임재입니다. 사도들은 개종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줌으로써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이는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의 대리인으로서 그를 대신하여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것으로서의 의례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는 하나님에 대해 반역했던 우리의 이전 삶과 함께 그분의 위대한 계획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상징적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침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다시 살아나심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봉인하기 위해 침례를 받을 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침례받기 전에 여러 해 동안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람들은 기본적인 가르침, 복음과 예수님의 목적과 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노출 후에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시는 빌립에게 기초교육을 받은 후 빌립에게 물에서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물에 내려갔습니다(사도행전 8:36-39).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빌립은 몇몇 사마리아인에게 "빌립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을 믿을 때에"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기 위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불멸성의 씨를 뿌렸던 것처럼 빌립도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개종자들의 마음에 불멸성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은 온 나라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그들이 교회에 입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특별한 방문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이 독특한 신자들에게 안수를 했고, 그 사도들이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에 대한 특별한 표징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 후로도 모든 개종자들이 배우지 않고 외국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일부 집단에서 다른 언어로 말하려는 노력은 성경에서 기적적으로 외국어를 말하는 공개적인 기적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침례로 봉인되면 우리는 남은 날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계속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보자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산상수훈의 조건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의 젊은 선교사들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발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입하신 새 언약은 단순히 옛 언약의 반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24).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과된 전체 법 체계의 요약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

님과 예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의 율법을 영성화하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한복음 1:17). 여기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언약을 섞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일 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을,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바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신약성경 교회는 연례 유월절을 정기적인 주의 만찬 축하로 대체했으며,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기억하고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재결합하기를 고대했습니다 (누가복음 22:14-30).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분”(요한복음 17:3)이라는 위대한 사실을 날마다 축하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썼을 때 동일한 위대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디모데후서 4:1, 2)고 권고했습니다.[2] 바울은 청중들이 진리를 견디지 못하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교사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디모데후서 4:3).

---

2 나는 나타남과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엄숙히 선포하라” (*diamarturomai)* 라는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엄숙한 사실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이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각 사람에게 증명하셨느니라”(사도행전 17:31). 다가오는 그 날은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와 함께 하고, 그와 그의 가르침을 믿으므로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실 때 부활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멸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셨습니다. “정하신 사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 뜻을 확증하셨느니라”(사도행전 17:31). 계속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불멸성-하나님 나라 계획에 대한 그 놀라운 설명을 굳게 염두에 두고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 명심하도록 하십시다.

>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

> 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3:24-30)

하나님 나라 복음의 약속, 우리 죄를 위한 그의 희생적 죽음을 포함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그리스도교가 기초해야 할 반석을 제공합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적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동물을 포함하는 전체 제사 제도에 의해 예표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선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형선고로부터 "덮어져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 한 생명을 사랑으로 내맡길 때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12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순전히 "슬픔의 사람"(이사야 53:3)이었으며, 종교주의자들의 소름끼치는 맹목적인 완고함을 직면했고, 따라서 "슬픔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6).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으며,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헌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단순히 "복음" 또는 그의 "이름," 즉 그가 옹호하신 모든 것, 즉 그의 의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가 그 말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주목하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태복음 19:29).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는 다른 말로 했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8:29, 30).

오직 하나의 하나님 나라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하나님 나라만이 영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교 복음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즉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구하고," 그리고 세상이 마침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도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 당신과 나의 운명이며, 삶의 의미 퍼즐에 대한 답입니다.

부록 1

하나님 나라 복음의 다양한 신약성경 제목들

다음의 표현 목록은 먼저 복음의 "주요 정의"를 제공한 다음 신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동등한 복음 제목들을 제공합니다. 성경의 모든 복음전도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모든 초대는 "하늘에 가는"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용어가 아니라 그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물론 우리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은 그분이 하셨고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과 "설교" 또는 "전파"에 대한 언급들을 합치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언급이 약 325개 있습니다. 신약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사도행전 8:12)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절(사도행전 8:13)에서는 시몬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즉, 시몬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의미입니다 (시몬의 경우 믿음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게 되었고 (23절)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 설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비밀을 풀고 우리 자신과 인류 전체와 이 땅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주는 열쇠입니다.

복음의 "근원적 정의"는 복음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히브리서 2:3).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최초의 전령이었습니다(침례자 요한이 간략하게 소개함, 마태복음 3:2). 복음에는 특수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의 주된 기본적인 제목은 18번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마태복음 3:2, 4:17, 23, 24:14, 9:35, 눅 4:43, 8:1, 9:2, 6, 11, 60, 10:9) ; 16:16; 사도행전 8:12; 19:8; 20:25; 28:23, 31)

하나님 나라에 관한 동일한 복음을 설명하는 교환 가능한 다양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마태복음 13:19; 디모데후서 4:1,2; 계시록 1:9 참조)

= **하나님의 복음**(마가복음 1:14 =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 15절; 로마서 1:1; 15:16; 고린도후서 11:7; 데살로니가전서 2:2, 8, 9; 베드로전서 4:17)

= **복음** (마태 11:5; 마가 13:10; 14:9; 16:15; 누가 3:18; 4:18; 7:22; 9:6; + 80회)

=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복음**(마태복음 24:14)

= **이 복음**(마태복음 26:13)

=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사도행전 20:24)

=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사도행전 20:25)

= 하나님의 모든 조언을 선포함(사도행전 20:27)

= 구원의 복음(에베소서 1:13; 로마서 1:16)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마가복음 1:1)

= 그리스도의 복음(고린도후서 9:13)

=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고린도후서 4:4)

=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디모데전서 1:11)

= 복음의 신비(에베소서 6:19; 로마서 16:25 참조)

=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요한복음 17:6; 17:8: "말씀을 받으라")

= **하나님의 말씀**(37번) = **그의 말씀**(디도서 1:3; 요한일서 2:5)

= **말씀**(46회)

= 진리의 말씀(고린도후서 6:7, 에베소서 1:13, 골로새서 1:5, 2)
디모데후서 2:15; 야고보서 1:18)

= 진리에 대한 지식(디모데전서 2:4, 디모데후서 2:4, 2:25; 3:7; 디도서 1:1; 히브리서 10:26)

= 진실(50회)

=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 (누가복음 24:47)

= 주의 말씀 (사도행전 8:25, 12:24, 13:44, 48, 49, 15:35, 36, 16:32, 19:10, 19:20, 데살로니가전서 1:8, 4 :15; 데살로니가후서 3:1; 베드로전서 1:25)

= 복음의 말씀(사도행전 15:7)

= 우리의 복음(데살로니가전서 1:5; 데살로니가후서 2:14; 고린도후서 4:3)

=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데살로니가후서 1:8)

= 그의 은혜의 말씀(사도행전 14:3; 20:32)

= 은혜와 진리(요한복음 1:14, 17)

= 십자가의 말씀(고린도전서 1:18)

= 하나님의 말씀(요한복음 3:34; 8:47; 계시록 17:17; 19:9)

=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의 말씀(요한복음 6:68)

= 나의 (예수님의) 말씀(요한복음 5:24; 8:31, 37, 43, 51, 52; 14:23, 24; 15:20; 계시록 3:8)

= 나의 (예수님의) 말씀들(마태복음 24:35; 마가복음 8:38; 13:31; 누가복음 6:47; 9:26; 21:33; 요한복음 5:47; 14:10, 24; 15:7)

= 나의 가르침(요한복음 7:16, 디모데후서 3:10)

= 나의 이 말(마태복음 7:24, 26)

= 나의 말 (요한복음 12:47, 48)

= 나의 (바울의) 복음(로마서 16:25)

= 나의 (바울)의 말(사도행전 26:25)

= 나의 (바울의) 메시지(고린도전서 2:4)

= 나의 (바울의) 설교(고린도전서 2:4)

=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 (마태 13:11; 마가 4:11; 누가 8:10)

=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로마서 16:25)

= 그리스도의 신비(골로새 4:3, 에베소서 3:4, 골로새서 1:27)

= 신비(로마서 16:25; 에베소서 1:9)

= 믿음의 신비(디모데전서 3:9)

= 경건의 신비(디모데전서 3:16)

= 생명의 말씀(빌립보서 2:16, 요한일서 1:1)

= 하나님의 신비(계시록 10:7)

= 믿음의 말씀(로마서 10:8)

= 그리스도의 말씀(사도행전 10:36; 로마서 10:17; 골로새서 3:16)

=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베드로전서 1:23)

= 이식된 하나님의 말씀(야고보서 1:21)

= 우리의 보고("듣는 말씀") (요한복음 12:38; 로마서 10:16)

= 믿음 (32회)

= 이 구원의 말씀 (사도행전 13:26)

= 이 구원 (베드로전서 1:10)

= 이 하나님의 구원(사도행전 28:28)

= 우리의 공동 구원(유다서 1:3)

= 단번에 성도들에게 전달된 믿음 (유다서 3장)

= 진리의 표현(고린도후서 4:2)

= 화해의 말씀(고린도후서 5:19)

= 성령의 검(에베소서 6:17)

= 의의 말씀(히브리서 5:13)

= 나의 인내의 말씀(계시록 3:10)

= 그들의 간증의 말씀(계시록 12:11)

= 예수님의 증거(계시록 1:2, 9; 12:17; 19:10; 20:4)

= 다가오는 시대에 관한 복음(계시록 14:6)[1]

---

1 "영원한 복음"은 오역입니다. 복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 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어로 "*Aionios*"는 "도래하는 시대와 관련되어"를 의미합니다. "아이오니오스 복음은 그리스도교 언어로 된 '영원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대에 관한 복음'이다."(Nigel Turner, Ph.D., *Christian Words,* p. 456).

따라서 많은 구절에서 "영원한"("한없는")은 "천년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박탈된 복음의 증거에 대해서는 계시록 14:6에 대한 『뉴 스코필드 참조 성경』*NewScofield Reference Bible*과 『엉거의 성경사전』 *Unger's Bible Dictionary*의 "복음" 항목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나라의 오는 시대와 관련이 있는"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부록 2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다양한 성경 구절에서 끌어낸 이 구절들에서 어떤 인상을 얻습니까?

죽은 자는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세기 3:19).

"죄를 짓는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4). (영혼이 불멸의 영혼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여호와께서 스올/하데스[죽은 자의 영역]에 내려가게 하시며 일으키시며"(사무엘상 2:6-8; 살리는 = 일으키게 하는 = 부활).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기 14:10-14).

"내 소망이 스올에 내려가겠느냐? 같이 갈까 먼지 속으로?" (욥기 17:16).

"내 눈을 밝히사 **사망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시편 13:3).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시편 88: 3-5).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잊음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시편 88:10-12).

"스올이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할 수 없음이니이다.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이 주의 신실하심을 바랄 수 없나이다"(이사야 38:18).

"오늘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드린다.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하니이다"(이사야 38:19).

"그런즉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은 내가 **티끌 속에** 누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나는 있지 아니하리라"(욥기 7:21).

"내가 구덩이에 내려가면 내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먼지가 주를 찬양하리이까? 그것이 주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리이까?" (시편 30:9).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송하지 아니하며 잠잠한 데로 내려가는 자도

행하지 아니하리로다"(시편 115:17).

"여호와여 돌아와서 내 영혼을 구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소서. **죽음에는 당신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께 감사하겠습니까?" (시편 6:4, 5).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욥기 14:7-12).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기 17:13-16).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화려함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시편 49:12).

"그들은 양과 같이 스올을 위하여 지정되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형상이 스올을 삼키어 거할 곳이 없으리라"(시편 49:14).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시편 146:3, 4).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도서 9:5, 10).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19).

미래에 대한 예언: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죽은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 있는가?) (다니엘 12:2, 13).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28, 29) .

"의인의 부활에 너희가 상을 받으리라"(누가복음 14:14).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요한복음 12:17).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1:11, 14: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그리스어 완료 시제가 암시하듯이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그의 잠에서 깨우리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cp. 죽음의 잠, 시편 13:3).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요한복음 11:43).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요한복음 12:17).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를 깨우십시오]"(고린도전서 6:14).

"주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그에게 제시하시리라"(고린도후서 4:14).

예수님이 부활 하신 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행 2:29, 34, 13:36, 37).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가 오실 때에 일으킴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3).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는 불멸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참조 고린도전서 15:50-55). 마지막 나팔 소리(cp. 계시록 11:15-18: 일곱째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 때에만 (그리고 조금 더 일찍도 아니고!) 그 하데스가 극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호세아 13:14을 인용합니다. "나는 그들을 죽음에서 구속할 것이다. 죽음이여, 너의 가시가 어디 있느냐? 오 스올아, 너의 침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스올의 해방에 관한 이 구절을 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이라고 어디에서나 말하는 부활의 사건으로 봅니다(고린도전서 15:23).

하데스/스올이 이미 예수님에 의해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이론은 고린도전서 15:55에 있는 이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데스는 미래에만 극복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주후 96년에 기록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직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13-15 후반부에 사망과 음부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를 내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1:15-18, 20:1-4에서 충실한 죽은 자들을 음부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잠들어 있거나** 땅에서 깨어 생존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든, 잠들어 있든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이 부활 안에서 함께 생명을 얻기 전의 상태를 "잠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니엘 12:2과 정확히 같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 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떤 이들은 영생에 이르리니…"

"주께서 천사의 외침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데살로니가전서 4:16).

부활 전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는 죽어서 자거나 깨어나 살아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 미래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0).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빌립보서 3:10, 11).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립보서 3:20, 21).

1세기 후반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모두 가부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에녹과 엘리아 선지자를 포함함 선지자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 13, 39).

그는 그들이 이미 하늘[천국], 행복, 기쁨 속에 있다고 정말로 믿었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의 부활을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15:22, 23). 당신은 이미 살아있다면 어떻게 "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미 살아 있고 불멸이라면 어떻게 다시 살아서 불멸이 될 수 있습니까?

부활/불멸화가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에 유의하십시오. [마가복음 8:38].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디모데후서 2:15-18).

이제 죽은 자가 실제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중요한 경고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신명기 18:10, 11).[1]

1 나의 소책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Happens When We Die?* 를 참조하십시오.

부록 3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도적인 권위자들

『그리스도와 복음서 사전』이 제공하는 마태복음 속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에 반드시 필요한 지침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으로 그는 그의 사역을 시작했고(마태 4:17)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좋은 소식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4:23). 그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었지만, 그의 생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인자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며(16:17, 19:28, 24:30)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그 후에 열두 사도가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19:28) 그 동안 그 자신도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침례(28:18)로 제자를 삼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10:7, 24:14). 이렇게 해서 얻은 제자들의 몸은 자연스럽게 공동의 목적으로 결속된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형성할 것입니다(21:43)."[1]

---

1 『그리스도와 복음 사전』*Dictionary of Christ and the Gospels*, Vol. II, p. 145.

같은 권위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새 이스라엘의 필요성의 견지에서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관한 것**임은 당연합니다.… 이와 같이 이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 알게 해 주고 그 준비 기간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비유들이 첫 번째 복음서의 편집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때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속 모든 곳에서 그 구문이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그 비유들이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가라지 비유는 또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을 다룹니다. 세상의 끝에 인자가 와서 그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여기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장면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정화된 현 세상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암시하지 않습니다."[2]

---

2 같은 곳, 강조 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일한 견해가 마태에 대한 그의 논평에서 마태에 대한 이 글의 저자에 의해 표현됩니다. (W.C. Allen,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St. Matthew, T & T Clark, 1907, pp.lxvii-lxxi).

나의 의견: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마태가 신자들이 "하늘에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된 땅에서 그들과 함께 통치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점을 훌륭하게 지적합니다. 신약성경의 통찰력 있는 독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성경 이후 시대에 그것을 대체한 것 사이의 현저한 차이에 대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즉 신도들이 죽을 때 이 땅이 제거된 영역으로 떠나는 것. "그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었지만 그의 생애에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의 어떤 것**으로 이해됩니다."(아래 인용). 복음서 기록의 주요 분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에 대한 인정된 권위자의 진술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미래의 실체를 의미한다는 것은 정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는, 영성화하는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자체와 구별되는 것은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전파의 토대가 되는 내재적[즉, 이미 현존하는] 형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3]

『국제표준성경백과사전』은 미래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심판이 가가웠다'라는 불가분의 함

---

3 한스 콘젤만Hans Conzelmann, 『성 누가의 신학』*The Theology of St. Luke*, p. 122.

의를 내포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마가복음 1:14,15에서의 '회개하라'는 것은 '심판을 피하다"는 뜻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주로 미래의 내용, 즉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입장하게 되는 것이며 소극적으로는 앞선 심판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판결로부터의 해방.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 최고의 선입니다...사람의 본성은 그의 영적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것이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누가 22:30), 족장(마태 8:11)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든 간에[?!] 현 물질세계의 질서를 단순히 개혁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소진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4]

"마가복음 1:14, 15: 마가는 예수님의 전파 활동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설교와 좋은 소식은 마가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회개와 믿음의 연합이 교회의 언어를 드러내는 1:15에 정확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사도행전 5:31; 11:18; 20:21). 마가의 관심은 이 설교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시고 그러므로 이 부르심이 오늘날 이 복음을 읽는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전체 복음에 대한 짧은 해설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실 때, 그는 구약에서 만들어진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지만(시편 103:19; 145:11 이하) 주로 마

4 『국제 표준 성서 백과사전』*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1929년, Vol. 4, p. 2667.

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전받지 않는 주권에 대하여 (이사야 52:7)…유대교는 모든 원수를 멸하고 모든 고난이 끝난 후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였으니…(마가 9:1, 47; 14:25; 마태 13:41-43; 20:21; 누가 22:16, 18; 고전 15:50 외) 하나님께로부터 옴(마가 9:1; 마태 6:10); 누가 17:20; 19:11).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이 기다려야만 하고 (마가 15:43) 구하고(마태 6:33) 찾을 수 있는 것이며, 받고(마가 10:15; 비교. 누가 12:32) 그리고 상속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9이하; 갈라디아 5:21; 야고보서 2:5). 그러나 스스로 창조할 수 없고…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으로 장래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 순간에 결정됩니다. 회개는 다름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5]

유니언 신학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어니스트 스콧은 좋은 점을 지적하지만 복음에 대해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종교 전체와 동일시되며, 때로는 그 안에 중심으로 간주되는 어떤 요소와 동일시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속죄나 하나님의 사랑,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시나 인간 형제애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느슨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처음에는 분명히 이해되었던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

5 『마가의 좋은 소식』*Good News According to Mark*, 에두아르드 슈바이처 Eduard Schweizer, 45, 46, 47면.

서 갈릴리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으나... **기쁜 소식은 본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방식에서 그가 이미 친숙한 아이디어를 채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청중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들의 희망은 세례 요한에 의해 새롭게 자극되었습니다...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가까웠다고 선언한 선지자가 이제 일어났습니다...이스라엘의 종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상의 직접적인 기원을 찾아야만 합니다.… 통치하는 왕은 보이지 않는 왕의 부섭정일 뿐이라는 점이 왕실이 확고히 확립된 후에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자신의 백성에 의해서만 알려진 유일한 신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은 온 땅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분의 주권을 소유하게 될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더 높은 수준의 예언에서 미래의 정화된 이스라엘은 높은 모범으로 모든 나라들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끌어들이도록 고안됩니다. 더 자주 이스라엘은 완전한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고 그분에 의해 주권적인 위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탁월한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스리실 것입니다....한편으로 하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반면에 왕권은 미래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은 모든 권세를 이기고 그분이 왕으로 자신을 확립하실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표명될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을 그들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행복한 시간에

이스라엘은 고양될 것이며, 정의의 대의가 확립되고 주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의 자연은 원래의 영광으로 회복되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소가 큰 목초지에서 풀을 먹을 것입니다. 달의 빛은 태양의 빛과 같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메시아]는 시온 산에서 통치할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6]

신약은 구약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셨습니다:

1)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누가 4:43)

2)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 (로마서 15:8)

3)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해력을** 주시기 위해 (요한일서 5:20)

4) 그의 죽으심뿐 아니라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이사야 53:11).

성경 이후 시대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원래의 믿음은 큰 변화를 겪었고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 철학을 교회의 가르침에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본래 신앙의 변화는 마침내 1500년대에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간청인 종교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되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래 의미를 간절히 구하면 회복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 나

---

6 1931년, 11-21페이지.

라에 관한 것이며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와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데 (마가복음 1:14, 15), 이제는 교회에 의해 선포됩니다.”[7]

“저와 대부분의 교회 친구들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복음은 전체적 분량에서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현대 그리스도교인들이 선포한 이 제한된 복음 메시지는 그것이 오늘날 미국에 미치는 제한된 영향을 설명할 것입니다.”[8]

“스탠리 그렌즈는 현대 세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실패한 시도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새로운 조직적 중심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장합니다.”[9]

“지난 1년 동안 풀러신학대학의 3개 학부 각각의 교수진이 모여 다음 질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12년 전, 고故로베르트 구엘리치는 이 질문을 취임 연설의 주제로 삼았고, 수년간의 전문적인 작업으로 인해 이 근본적인 주제를 거듭 성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구엘리치는 ‘성경의 영감’을 주제로 한 신학 포럼 후 설립자인 찰스 풀러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풀러는 자신이 신학교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날을 간절히 고대했다고 말했습니다.”[10]

---

7 『하퍼 콜린스 성경 사전』*Harper Collins Bible Dictionary*.

8 개리 버지Gary Burge, 『NIV 애플리케이션 논평』*NIV Application Commentary*.

9 『복음주의 신학 개정』*Revisioning Evangelical Theology*.

10 『신학, 뉴스와 노트』*Theology, News and Not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나의 의견: 이것은 놀라운 입장입니다. 사실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승인된 피와 그의 부활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하늘[천국]' 간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플라톤의 죽음의 가르침이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더 진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플라톤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엉성한 존재인가요?! 그는 우리가 진실하기만 하면 비록 인간의 본성과 운명,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도 무시할 정도로 정말로 관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도적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러한 견해는 역사적 전망도 부족하고 사도적 그리스도교 문헌의 전체 사상과도 모순됩니다. 새로운 운동의 이름인 그리스도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초대 교회의 이차적 요소라는 생각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게도, 그것은 초대교회 형성의 조건이 되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초대 복음전도자들의 설교는 윤리적 이상에 대한 부르심이나 어떤 진리에 대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의 선포였습니다…메시아의 인격에 관해서는 초대 교회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이시며,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도입하시기 위해 오신다

Spring 2004.

고 믿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그리스도교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알았던 것과는 다른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어떤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11]

복음전도자들을 위한 조언!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으면 미묘하게 하거나 괜히 머리를 쓰지 마십시오. 말뚝 박는 기계를 사용하십시오. 그 지점을 한 번 강타하십시오. 그런 다음 돌아와서 다시 때리십시오. 그런 다음 세 번째로 또 치십시오. 엄청난 타격을 주십시오."

---

11 샤일러 매튜Shailer Matthews, D.D, Chicago Seminary의 신학 교수, 『신약성경에서의 메시아적 희망』*The Messianic Hope in the New Testa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44, 155.

부록 4

주요 권위자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들의 상태

유명한『해석자의 성경사전』에는 “어떤 성경 구절도 죽음의 순간에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된다는 진술을 승인하지 않습니다.”[1]

노먼 스내이스의『구약성경의 유명한 관념들』에는 “[구약의] 어떤 구절도 영혼의 불멸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이는 전혀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2]

1846년에 열린 복음주의 동맹은 신앙 진술에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을 올렸습니다.

존 버나비의『그리스도교 단어와 그리스도교 의미』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해체는 육체에만 해당되며 인간의 영혼은 타고난 체질에 따라 불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멸성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며, 거기에는 만왕의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여 실제 인간을, 인격성의 본질을, 분리가능한 것으로 상정하고, 영혼이 신체라는 감옥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은 그리스도교 인류학의 부분이 아닙니다. … 예수님은 탈신체화된 영혼이 영원히 산다는 교리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조

---

1 Vol. 1, p.802.
2 p.89

상들의 믿음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지도 심지어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의 믿음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3]

그렇다면 왜 교회들은 육체를 잃은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부단히 말하는 것입니까?

벌린저의 『컴패니언 성경』은 고린도 후서 5:8에 대해 "누군가 특정 단어를 골라 문장으로 구성하여 범위와 문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본문의 다른 단어를 무시하는 것, 즉 '몸을 떠나 주와 함께'라는 말을 인용하고 부활의 소망(고린도후서 4:14 전체 구절의 주제)을 불필요한 것처럼, 마치 '주님과 함께'가 그것 없이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포기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부활 시에 새 몸을 얻고 그 부활을 통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의 재림 때만 "주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7: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법과 은혜』에서 나이트 교수는 "구약에서 인간은 육체에 거하는 영혼, 육체가 죽을 때 육체의 압제에서,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해방될 영혼으로 결코 간주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서 이원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4]

로드니 클랩의 『교차로에 있는 가족』에는 "그리스와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에 따라 우리는 종종 영혼과 육체를 첨예하게 분리하고 개인의 영혼

---

[3] pp. 148, 149.
[4] 79.

은 죽음에서 살아남는다고 강조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육체가 없는 영혼이 [하늘]천국으로, 더 쾌적하고 완전한 살아있는 존재로 탈출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는 더 나은 곳으로 가셨다’라는 유명한 말과 비교]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소망을 개인의 문제로, 개별 영혼이 천국으로 날아가는 문제로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어느 것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5]

마틴 루터는 “나는 성경에서 전도서 9:5(“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만큼 우리의 상태와 조건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잠든 죽은 자들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의 간청과 연옥이라는 허구에 대항하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설교』에서 “좋은 사람들의 영혼은 육체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하나님의 신탁에서 가장 작은 기초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천국[하늘]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아닙니다.”[6]

셜리 거스리, 『그리스도교 교리』. (거스리 박사는 조지아주에 있는 컬럼비아 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였다. 그는 『신앙의 다양성—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래에 인용하는 그의 책은 “고전 텍스트”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죽음을 충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

5 pp. 95, 97.

6 J.A.T. 로빈슨Robinson, 『결국, 하나님』*In the End, God,* p. 104.

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릇되게도 낙관적이라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고 거부하려는 입장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희망의 기초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영생에 대한 희망을 파괴하기 위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적인 그리스도교적 희망을 옹호하기 위해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지칭하는 것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교리는 성경 저자들이 직접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교회가 탄생한 고대 세계의 [이교] 그리스와 동양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리였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학자들 중 일부는 그것의 영향을 받아 그 교리에 맞추어 성경을 읽고 그것을 교회 사상에 도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교리가 우리와 함께 줄곧 있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개혁교회의 고전적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면, 내 몸은 죽을 것이지만 나 자신은 정말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리가 맞다면 죽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불멸의 영혼이 나의 죽는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은 죽지만 나 자신은 살아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고 내가 실제로 속한 영계로 돌아간다고 그 교리는 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따라 '오직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불멸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이 전통적인 희망을 거부해야 합니다...[죽음]은 우리의 불멸의 신성한 부분이 다른 곳에서 살기 위해 떠났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 우리가 '죽고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 내 영혼은 내 몸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이고 피조물이며 유한하고 필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몸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우리 자신의 내장된 불멸성에 있다면 우리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7]

로버트 카폰, 『심판의 비유들』: "부활과 심판에 관해 우리가 논의하는 동안의 마지막 하나의 신학적 요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을 속죄의 웅대한 성례전으로 보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은 영혼불멸에 대한 우리의 불행한 집착일 것입니다. 그 교리는 교회가 그리스 사상의 넓은 세계로 진출한 이래로 우리가 갇힌 비히브리적 철학적 짐의 한 조각입니다. [즉각적인] '죽음 직후의 삶'이라는 동반적인 관념과 함께 그 교리는 우리에게 곤란한 문제들만 안겨 주었습니다. 두 개념 모두 심판의 유일한 기초인 죽은 자의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합니다."[8]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1931년 드류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건적 불멸성은 신약성경의 지배적인 교리이며 나에게는 우리가 각 영혼이 내재적으로 불멸이라는 헬레니스틱 가정으로부터 해방된 책들을 접하자마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는 것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또는 대부분의) 인간의 마음에서 그 길을 이기게 된다는 믿음 사이의 원리상의 필요한 모순은 (그러나) 없습니다." (후자의 진술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영혼의 자연적 불멸성을 믿는 것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는 그가 확실히 옳습니다.)

얼 엘리스 교수, 『신약 역사의 그리스도와 미래』: "본질적인 사람 (영혼/영)이 육체적 죽음에서 살아남는다는 플라톤의 견해는 누가의 그리스도

---

7 p.378.

8 어드만스 Eerdmans, 1989, p. 71.

론과 역사 속의 구원 신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종말론에서는 그것은 그리스도교적 희망의 플라톤화, 시간과 물질로부터의 구속을 재현합니다. 반대로 누가는 개인의 구원(그리고 상실)을 마지막 날의 시간 속에서의 물질의 부활에 두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자'로 만들고, 모든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모델이 이해되게 했습니다.

"인간학적 이원론은 내 생각에는 주로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만든 그리스도교와 그리스 철학의 장대한 종합과 함께 교부 교회의 사상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그리고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기 그리스도교인의 희망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의 그리스도교를 특징짓지 않았으며, 그 기독교 교부들처럼 아테네에서 연마된 렌즈를 통해 본문을 읽을 때만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9]

"죽음은 구원의 개별적인 성취가 아니지만, 죽음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의 보살핌 아래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망자들은 시간 속에 머무르지만, 그들은 시간을 재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과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사이의 개인 존재의 공백은,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시계의 똑딱 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은 단지 미래를 향해 열린 한 순간일 뿐입니다. '중간 상태'는 죽은 자와 관련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경험이지, 산 사람이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죽은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테네에서 연마된 렌즈로 갈아 끼운,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른 수많은

9 브릴Brill, 2000, p 127.

사람들이 아주 다른 그림을 봅니다. 그들은 인격의 일부인 영혼은 존재의 소멸에 종속되지 않고 (따라서 자연 세계의 요소가 아님)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은 '분리되어' 신체없는 지복상태로 들어가거나, 주제의 변형으로, 신체적 몸이 이미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영적 몸으로 교환되는 임종시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과 다른 많은 곳에서 주어진 프로그램과 시간표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많은 전통적인 뿌리와 많은 부착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신학들은 바울의 역사 안에서의 구원의 종말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몸의 부활을 주장하고 인격적 구속을 전체적 물리적 우주의 변형에 의한 구속과 결합시키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에 설정하는 것은 몸을 인격으로, 즉 인격을 육체적 몸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변화된 신체적 몸은 [재림 때] 하나님의 전능한 창조의 말씀에 의해 땅에서 불러내어질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변화된 신체적 몸이나 창세기 창조 때의 원초적으는 생명이 없었던 신체와 다른 것이 아닙니다."[10]

---

10 pp. 177, 178.

부록 5

영혼은 하늘[천국]으로 가는가?

죽은 자들의 상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기교회의 증언

여호와의 증인 등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으로 분류되지만, 초대 교회 역사의 기록은 "정통파"가 진짜 이단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초대 교회는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있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즉시 천국으로 가는 것을 가르쳤습니까? (나는 여기서 교부들이 이해한 것과 같이 영혼의 상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의 영혼의 즉각적인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2세기 중반의 **이레네우스**의 말입니다. 이레네우스는 일부 사람들이 성경의 부활 프로그램을 왜곡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정통파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은 의인을 높이기 위해 미리 수립된 계획을 뛰어넘고 그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미리 훈련받는 방법에 대해 무지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단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육신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죽음과 동시에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영혼이 죽어서 즉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자들'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오늘날 현대의 정통에 따르면 영혼이 즉시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자들입니다. 이것은 이레네우스를 이단자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체적 인간에 영향

을 미치는 부활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교 체계로부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부활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않기로 선택하므로, 만일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으면,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주님께서 사흘 만에 친히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시고, 숨을 거두신 순간 몸을 땅에 남겨 두시고 곧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고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주께서 죽은 자들 있는 곳에서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마태 12:40)...다윗은 그에 대해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의 영혼을 음부 지옥(무덤)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부활되던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요한 20: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런즉 그들이 ... 속사람[영혼]이 육신을 이곳에 두고 떠나서 천상의 영역으로 올라간다고 보는 이들이 어떻게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레니우스는 이와 같이 오늘날의 가르침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의 영혼이 있었던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로 가셔서'(시편 23:4), 후에 육신으로 일어나셔서 부활 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의 영혼도...보이지 않는 곳[하데스 음부]로 가리니... 거기 남아 부활 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다음 자신들의 몸을 받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들의 온전한 육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급히 하늘로 날아가신 것이 아니요 오직 부활의 때를 기다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정통파 사람들의 의견은 **이단적** 담론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인의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또한 부패를 물리치는 일의 시작인 지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합당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데 점차 익숙해집니다."[1]

(따라서 이레니우스는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전체 "정통"의 전통, 즉 3세기 이후로 결국 성경의 가르침을 압도한 그 전통을 비난합니다.)

후에 정통이 되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저스틴 마터의 항의도 마찬가지로 날카롭습니다. "잘못된 견해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 소들의 멍에의 경우와 같이, 둘 중 하나가 멍에에서 풀리면 한 마리로는 쟁기질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이나 육체는 그들의 연합에서 멍에를 풀고 벗어나면, 영혼과 육체는 혼자서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영혼은 분리되어 활동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면 무엇인가? 영혼은 그 자체로서 사람인가? 아니다. 사람의 영혼이다. 몸을 사람이라 부를까? 아니다. 그것을 사람의 몸이라고 한다. 그런즉 이 중 어느 것도 스스로 사람이 아니요 이 둘이 함께 된 것을 사람이라 칭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과 부활로 사람을 이르게 하셨으면 그가 한 부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전체를 부르셨으니 곧 영혼과 육체이다. 그런데, 그들은 영혼은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 그분의 영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데...그렇다면 그에게 무슨 감사가 있으며 그가 뜻하신 바 그의 능력과 선하심이 어찌 나타나리요 본성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자기의 것을 구원하는 자는 감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자

1 『이단에 대한 반대』*Against Heresies*, Bk. 5.

신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 그들의 영혼인가 몸인가? 명백히 둘 다이다. 부활이 단지 영적인 것이라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몸은 따로 떨어져 있고 혼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 하시고 몸을 일으키사... 어찌하여 우리가 더 이상 이 믿지 아니하는 변론을 견디며 이런 변론을 듣고도 퇴행하는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영혼은 썩지 아니하나 육체는 죽고 부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전에도 플라톤에게서 들었다. 구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혼에게만 구원을 선포하셨다면, 우리가 플라톤에게서 들은 것 외에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가?"[2]

따라서 저스틴은 천국이나 지옥에서의 영혼의 즉각적인 생존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플라톤주의임을 암시합니다.

저스틴은 여기서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는 육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신조에 포함키는 동시에 의식이 있고 탈신체화된, 즉 육체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즉각적인 구원을 받는 영혼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영혼은 비록 탈신체화되었지만 실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저스틴과 이레네우스의 생각과는 모순되며 그들에 의해 단호하게 이교도로 식별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통"은 부분적으로 영지주의적이고 이교도적입니다.

---

2 『트라이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 ch. 80.

저스틴 마터: 트뤼포와의 천년기에 대한 대화:

트리포: "당신은 이곳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임을 정말로 인정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백성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와 족장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저스틴: "저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며,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시듯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순결하고 경건한 믿음에 속한[3]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일부 사람들이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경스런 이단자들이 되어 모든 면에서 참람되고 무신론적이며 어리석은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라서…나는 인간들과 인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로 선택하고 그분에 의해 전달된 교리들을 따르기로 합니다. 왜냐 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어떤 자들과 함께 타락하여, 부활의 진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며,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죽을 때 하늘로 옮겨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그러나 나와 모든 점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교인인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예언자 에스겔, 이사야 및 다른 사람들이 선언한 대로 그 후에 건축되고 단장되고 확장될 예루살렘에서 천 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

---

3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텍스트가 손상되었고 저스틴이 "속하지 않는 ..."이라고 썼다고 믿습니다. 저스틴Justin이 무천년주의amillennialism를 덜 비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 중 한 사람인데, 그가 계시를 받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천 년 동안 거하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의 일반적이고 영원한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저스틴의 진술 (전체, ca 150 AD)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부활의 진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들이 **죽을 때 영혼이 하늘로 옮겨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만일 그가 올바로 생각한다면, 사두개인들Sadducees 또는 그와 유사한 제니스태Genistae, 메리스태Meristae, 갈릴리인들Galileans, 헬레니스트Hellenists, 바리새인들Pharisees, 뱁티스트들Baptists의 분파는 단지 유대인이라고 불리기만 하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셨듯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뿐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결코 유대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범사에 옳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천 년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은 선지자 에스겔과 이사야와 다른 사람들이 선언한 대로 건축되고 단장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4]

라틴 교회의 아버지 터툴리언(종종 서양 그리스도교의 아버지로 알려

---

4 『트라이포와의 대화』*Dialogue with Trypho*, ch. 80, 『니케아 이전 교부들』 *Ante-Nicene Fathers.* 어드먼스Eerdmans, Vol. 1, p. 239.

짐)도 죽을 때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현대의 "정통"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이 죽을 때 육체를 떠나 천국에 간다는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플라톤**은... 그가 좋아하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즉시 보냅니다. 영혼이 [임종시]에 어디로 옮겨지는지에 대해 이제 대답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그들 자신의 영혼, 즉 지혜로운 자의 영혼만을 위한 **천상의 저택**에 둡니다. 플라톤은 이 목적지를 모든 영혼들, 심지어 모든 철학자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에서 자신의 철학을 계발한 사람들에게만 이 목적지를 허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체계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영혼은 에테르로 높은 곳으로 옮겨지고...그들이 쓰러뜨리는 다른 모든 영혼들은 **하데스**로 던져집니다.

"**하데스**의 더 낮은 지역은 그 자체로 텅빈 동굴이나 세계의 지하 하수구가 아니라 지구의 내부에 있는 광대한 깊은 공간과 그 내부에 숨겨진 오목한 부분으로 우리는 가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땅 한가운데, 즉 땅 속에 숨겨져 있고 땅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훨씬 더 낮은 곳에 놓여 있는 심연의 깊은 곳의 은밀한 내부 움푹 들어간 곳에서 3일을 보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나 또한 사람이시므로 '성경대로 죽으매'(고린도전서 15:3), '같은 성경대로 장사되셨느니라.' 동일한 존재 법칙으로 그는 죽은 사람의 형태와 상태로 음부에 머물면서 완전히 순응했습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땅 아래로 내려가시기 전에 그곳에서 조상들과 예언자들을 자기와 함께 참여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데스에 있는 동안 족장들의 상태를 바꾸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데스가

지하 지역이라고 가정해야 하며 충실한 사람들의 영혼이 낮은 지역에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믿기에는 너무 교만한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보다 위에 있는 종이요 주보다 위에 있는 제자들' 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활의 위로를 기대해야 한다면 틀림없이 그 위로를 받기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길,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은 이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이 거기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말합니다], 같은 감옥이 그들 모두가 죽었을 때 기다리고 있다면 이교도와 그리스도교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아직 들리지 아니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영혼이 참으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강림하실 주님께서 땅에서 만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그를 영접하기 위하여 아직 공중으로 들리워 올려지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일어날 것인가? [1 테제. 4:13-18] 하늘은 아무에게도 열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세상이 지나가고 그 때에 천국이 열릴 것입니다."[5]

또 다른 "교회 교부"인 히폴리투스(ca 170-236)는 분명히 영혼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의 영혼이나 불의한 사람들의 영혼 둘 다 감금되는 하데스에 대해 말해야만 합니다.[그는 하데스의 해방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인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얻으리니 그들은 참으로 현재 음부에 갇혔으나 불의한 자들과 같은 곳에 있지 아

5 『영혼에 대한 논문』*Treatise on the Soul*, ch.55.

니하니…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그분은 영혼을 다른 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스스로 일으켜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이루실 것입니다."[6]

현대 학자들은 널리 퍼져 있는(지금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장려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견해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놀랍게도 실제로는 "이교도적"이자 "영지주의적"입니다. 더욱이 초기 그리스도교 변증가들의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천국에 가거나 죽음 직후의 지옥불은 그리스도 이후 약 300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새롭고 이단적인 교리였습니다. 그리스도교 교리의 표준 현대 텍스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종말론적 희망이 헬레니즘적 범주에서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교가 많은 그리스 [이교도] 사상 패턴을 채택한 헬레니즘화 과정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당하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고 부활할 때까지 그곳에 남아 그 사건을 기다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때에 저희 몸을 받아 온전히, 곧 육신으로 일어나서 주께서 일어나신 것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입니다.' 이레네우스의 진술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우주적 부활 때까지 머무는 거처 또는 연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장의 요점이 반영지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레네우스는 이 지상 생활이 끝나면 영혼이 즉시 하늘의 거**

---

6 『플라톤 비판, 우주의 원인에 대하여』*Against Plate, on the Cause of the Universe*, 1, 2.

처로 올라간다는 영지주의적 생각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초기 교부들이 인간 존재의 일부는 순전히 불멸이라는 이교 사상과 싸웠기 때문에, 신에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인생은 끝이 납니다."[7]

죽은 사람이 하늘에서 의식이 있는 "영혼"으로 살아남는다는 대중적인 생각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인상적인 항의가 더 있습니다. 그러한 항의가 성직자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촉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앨런 리차드슨은『성경의 신학언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성서 저자들은** 창조된 질서의 존재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기인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확신을 굳게 붙잡고 죽음 이후의 삶을 육체가 없는 탈신체화된 존재로 생각할 수 없었다. [수백만의 진지한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우리가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5:3), 그러나 그 성서 저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인간의 생명인 몸과 영혼의 친밀한 일치의 조건 하에서의 갱신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온전한 인간의 죽음으로 생각되었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썩지 않음 또는 불멸성과 같은 문구는 ‘유일하게 불멸성을 가지신’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는 데에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디모데전서 6:16). 사람은 자기 안에 불사의 특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만일 그가 죽음의 파괴적인 능력을 극복하려면 그것을

---

7 브라텐/젠손Braaten/Jenson,『그리스도교 교의학』*Christian Dogmatics*, Vol. 2, p. 503,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개신교 신학 교수 한스 슈왈츠Hans Schwartz가 작성한 섹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덮는 옷처럼 죽음을 제쳐 두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5:53, 54). 인간에게 이 가능성(디모데후서 1:10)이 생기며 인간 삶의 보편적인 특징인 부패(로마서 11:7)를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희망이 확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이다.”[8]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에 그토록 많이 스며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에 대해 폴 알트하우스 박사는 그의 저서 『마틴 루터의 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소망은 마지막 날의 부활에 있었다. 이것이 먼저 죽은 자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15; 빌립보서 3:21). **이 부활은 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全人]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다.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죽음이 또한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이해한다...**따라서 [전통적인 정통에서] 원래의 성경 개념은 헬레니즘, 영지주의 이원론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활에 대한 신약의 개념은 영혼의 불멸성에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마지막 날은 또한 그 중요성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영혼들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종말론적 긴장은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강렬하게 향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과 신약성경에서의 소망의 차이는 매우 크다.”[9]

그 차이는 성경을 그 출처로 주장하지만 신약성경, 초대 교회 교부들

---

8 pp.111, 112.

9 Fortress Press,1966, pp.413, 414

및 현대 지식 있는 학자들이 거부하는 이교도적 플라톤주의를 반영하는, 장례식에서의 현대 설교에서 목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 조장된, 이교 사상에 대한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명백한 이교주의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려진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의 다음과 같은 논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

"그리스도교가 히브리적 뿌리로부터 절연하여 헬레니즘과 로마 양식을 획득한 정도로

1) 종말론적[즉 미래의 지상 하나님 나라] 희망을 잃었다.

2) 폭력과 죽음의 '이 세상'에 대한 묵시적 해결책을 포기했다.

3) 고대 후기의 **영지주의 구원의 종교**에 병합되었다.

저스틴(서기 150년) 이후로

1) 대부분의 '교부들'은 플라톤을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으로 존경했다.

2) 이제 하나님의 영원성이 하나님의 미래를 대신하였다. 성육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안에서 잉태될 때의 창조,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할 미래를 기대하는 대신에 영원성을 돌아보게 했다.

3) **'하늘'[천국]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대신했다.**

4) 영혼을 육체로부터 구속한다는 [이교도] 관념은 생명의 근원인 영을 대체했다.

5) 영혼불멸이 몸의 부활을 대신하게 되었다.

6) 사람들은 영혼이 육체에서 탈출하기를 희망했다."[10]

10 『생명의 정신』*The Spirit of Life*, 2001.

책소개

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도 불과 수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비밀을 아신다고 주장하셨다. 그는 그 비밀을 불멸성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교하시면서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수천 개가 넘는 교파들은 진정한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지침으로 성경을 따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분열되었다. 성경을 토대로 하여 앤서니 버저드는 교회가 구원 복음의 주요 요소를 버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개신교 개혁자들은 사실상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철저히 저항하지도 개혁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교회 전통의 유산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혁신하지도 않은 채로 유지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과 그 복음을 현대의 편의에 따른 믿음으로 변모시킨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해 철저히 고찰하고 비판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복음주의자들과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설파하신 것을 망각했다. 그들은 복음을 비성경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랫동안 성경 연구와 집필, 그리고 교육에 종사한 앤서니 버저드는 불멸성의 비밀이 다른 데가 아닌 바로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제언한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의해 모호하게 되었고 무시되었다. 교회는 신약성경을 혼란스러운 책으로 만드는 믿음 체계를 물려받았다. 많은 교회사 전문가들이 이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은 하나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운명은 지상에 실현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 속으로 진입하게 될 미래의 부활을 통해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이다.

앤서니는 비전문가들을 위해 쓴다. 처음 아홉 개의 장들은 예수님의 불멸성 비밀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예수님의 경이로운 목적들과 주장들』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는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학자들에게도 호소한다.

.

역자후기

이 번역서의 문장들은 대부분 직역 위주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읽히는 한국어 문장들로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윤문작업을 위해 다시 여러 번 읽으며 수정해 나가고, 오류도 바로잡으며, 또한 역자 주를 통해 주요 개념들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부분들도 포함하는 개정판을 준비해 보려고 한다. 이 책의 초벌번역 과정에서는 구글Google 번역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아직은 한 문장 한 문장 원문과 대조하여 읽으면서 오역된 것들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많이 고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동안 구글 번역 프로그램이 놀랄 정도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성경 구절들의 장과 절 표기 등을 포함하여 단순한 기계적 작업들을 대신 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마태복음 6:33에서 읽을 수 있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성경 구절에 대해 묵상하는데, 두 사람이 식탁에서 하는 모임이지만 예수께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 18:20)라는 말씀을 언제나 떠올린다. 또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책의 저자인 앤서니 버저드 Anthony Buzzard가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설교/강의를 듣는다. 이 번역서는 버저드의 『예수는 누구인가?』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이어서 그의 허락을 받아 세 번째로 번역한 책이다.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그의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Biblical Unitarianism에 대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을 표방하는 그룹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과 그리스도아델피안에 관해

서 버저드는 전자는 예수의 선재설과 적은 무리/큰 무리 구별 등에 대해, 후자는 사탄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영혼불멸설에 입각한 믿음이 그리스와 로마 사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보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 혹은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추상적인 통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에 구체적인 정부로 설립될 실제적인 나라라고 보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본다. (삼위일체설과 영혼불멸설에 대해 부정하면 지배적인 정설을 위협하는 위험한 "이단"으로 배척되고 있지만,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집단에 의해 억압당한 하나의 정통 신앙이 이단이고, 이른바 정통이라는 것도 싸움에서 이긴 하나의 이단이라고 보는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의 관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시편 107편 21절-22절에서 "야웨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라는 말씀에 있는 "감사제" sacrifices of thanksgiving가 지피티GPT-4의 답변대로 오늘날에는 "기도"와 "찬양/예배," 그리고 "봉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기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야웨의 일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저자소개

저자 앤서니 버저드Anthony Buzzard는 영국의 서리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교Oxford University와 베다니 신학대학Bethany Seminary에서 교육받았다. 그는 신학과 현대언어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애틀란타 바이블 대학Atlanta Bible College에서 24년 동안 교수로 재직한 후 퇴임하고, 계속 집필하며 교육과 여행,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지식을 전하고 있다. Restoration Fellowship (https://focusonthekingdom.org)에 공개되어 있는 그의 저서들은 *The One God, the Father, One Man Messiah*; Translation: New Testament with Commentary; *The Coming Kingdom of the Messiah; Jesus was not a Trinitarian; Our Fathers Who Aren't in Heaven,* 그리고 *Who is Jesus?*와 *What Happens When We Die?* 등이 있다.

역자소개

역자 정형철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근대영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비교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영미문학과 디지털문화』(2008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와『종교적 이미지의 형상적 기능』(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인문학분야 우수학술도서),『종교와 트랜스휴머니즘』(2018년 한국연구재단 저서출판 지원도서)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비평적 실천: 포스트구조주의 문학이론의 이해와 적용』과『들뢰즈와 시네마』등이 있다. 그리스도교와 관련된『예수는 누구인가?』,『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번역서들과『기독교와 트랜스휴머니즘』과『성경과 치유』라는 저서들이 있다.

성 경 의 믿 음 으 로 안 내 하 는 가 이 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앤서니 버저드 지음 | 정형철 옮김

BOOKK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의 믿음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의 믿음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발 행 | 2023년 4월 12일
저 자 | 앤서니 버저드 Sir Anthony F. Buzzard
역 자 | 정형철
펴낸이 | 한건희
펴낸곳 | 주식회사 부크크
출판사등록 | 2014.07.15(제2014-16호)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19 SK트윈타워 A동 305호
전 화 | 1670-8316
이메일 | info@bookk.co.kr
ISBN | 979-11-410-2450-5
www.bookk.co.kr
ⓒ 정형철 2023
본 책은 저작자의 지적 재산으로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예수님의 경이로운 목적과 주장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

The Amazing Aims and Claims of Jesus:

What you didn't learn in Churches

A Guide to the Faith of the Bible

[Lessons 1 to 7]

앤서니 버저드 경

Sir Anthony F. Buzzard, Bt., MA(Oxon.), MA Th

레스토레이션 펠로우십

www.restorationfellowship.org

애틀랜타 성경대학

Atlanta Bible College

800-347-4261 • 404-362-0052

©2006 앤서니 버저드

ISBN 0-9673249-6-3

일러두기

*저자 앤서니 버저드Anthony Buzzard의 원저서『예수의 경이로운 목적과 주장: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던 것들』*The Amazing Aims and Claims of Jesus:What you didn't learn in church* 에는 7개의 학습들Lessons이 "성경의 믿음으로 안내하는 가이드"A Guide to the Faith of the Bible라는 표제하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번역서는 그 7개의 학습들을 번역하여『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라는, 역자가 정한 제목으로 출간한 것이다. (9개의 장Chapter들과 5개의 부록Appendix은 원저서의 제목대로 하여 별도로 출간한다.)

*이 번역서는 한글로만 이루어지도록 원저서의 언어인 영어나 기타 외국어의 병기를, 하주footnote를 포함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배제했다.

*이 번역서에서 인용한 성경은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을 주로 활용했고, 본문 속에서 짧게 인용한 것들은 원저서의 영어번역을 그대로 번역한 것들도 있다.

이 장들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변함없는 동반자인 제 아내 바바라Barbara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대업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숙련된 일꾼인 제 딸 사라Sarah,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요컨대, 한때 이곳에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것의 원래의 상태였던 에덴으로 변모시키고자 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사도행전 20:24-26).

“그들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한복음 17:17의 예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말을 이용하여 자신을 알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계시,” 『뉴 샤프-허족 종교지식 백과사전』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그리스도교가 택한 공식적인 노선은 ... 역사적 예수의 실제적인 언어와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 (바트 어만 Bart. D. Ehrman, 『예수: 새천년의 묵시적 예언자』*Jesus*: *Apocalyptic Prophet of the New Millennium*)

“예수님의 역동적인 종교에 비해 완전히 진화한 그리스도교는 다른 세계에 속한 것 같다”(게자 버미스Geza Vermes, 『예수의 정통 복음』*The Authentic Gospel of Jesus*).

“다신교가 위장하여 교회에 들어갔다”
(프리드리히 루프Friedrich Loofs 교수, 『도그마의 역사』*History of Dogma*; 폴 슈로트Paul Schrodt, 『최근 신학에서 도그마의 시작 문제』*The Problem of the Beginning of Dogma in Recent Theology*).

목차

머리말 /9

제1과: 그리스도인 되기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17

제2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믿는 것 /39

제3과: 그리스도교 복음을 믿는 근거 /65

제4과: 기쁜 소식에 대한 현명한 대응 /91

제5과: 하나님 나라: 세계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121

제6과: 하나님 나라: 미래의 사건 /145

제7과: 예수님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 계획 /171

책소개

역자후기

저자/역자 소개

머리말

이 책의 처음 아홉 장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훈련을 특별히 받지 않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불멸성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히브리서 1:1-2 참조).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믿는 이들에게 끝없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인생의 큰 수수께끼에 대한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항상 복음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의 주요 주제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두 부분으로 된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잘 모르는 대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기본적인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지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같은 토대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요한복음은 같은 것을 말하기 위해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으로 신약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교 복음과 관련된 사실을 매우 쉽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배경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구약성경에서의 약속에 근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1-2). 당신이 구할 수 있는 성경의 모든 번역본들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놀라운 드라마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한 훌륭한 결말을 약속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과 그의 목적과 주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극적인 미래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대리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아들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가능한 운명, 즉 영생과 죽음(혹은 소멸)을 제시했습니다. 복음은 약속이기도 하고 경고와 도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에 의해, 나중에는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의 처음 아홉 장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독자는 내가 쓴 것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성경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번역본이든 이 책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확증할 것입니다.『리바이즈드 스탠더드 역』또

는『뉴 리바이즈드 스탠더드 역』또는『뉴 어메리컨 스탠더드 바이블』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읽기 쉬운 번역본입니다. 될 수 있으면『킹 제임스 역』은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킹 제임스 역』(1611년)의 영어 번역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번역이었지만 그 언어는 우리가 성경의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킹 제임스 역』을 가장 좋아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고대 영어로 된 것을 읽어도 분명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현대 번역본을 구해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쓴 모든 것은 학술 문헌, 성경 주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 문헌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자신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증거가 희박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잘 보고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그다지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배우는 데에 그것이 필수적인 정보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요소가 빠진 복음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분석도 하지 않은 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분은 예수님이심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제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술은 우리의 그리스도교 문헌들, 신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에 그것의 배경지식과 함께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아이라도 기본적인 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분명하게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독자들에게 다만 열린 마음으로 읽으시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처음 9개의 장은 상당히 단순한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문장은 일반적으로 길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이 책의 2부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7개의 안내 학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학습들에는 더 쉬운 처음 9개의 장들에 있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중복하거나 반복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내 학습들에는 외부 권위자들로부터의 더 많은 확증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더 많은 성경적 세부사항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처음 9개의 장들에 대한 보충 자료들입니다.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의 빈번한 반복도 있습니다. 스타일은 의도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안내 학습들은 탐구하는 독자에게 복음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불멸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발표 자료를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독자는 형식적이든 덜 형식적이든 다양한 환경에서

배운 내용을 전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불멸성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단연코 가장 귀중한 문서입니다. 그것은 귀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도 종종 교회 전통에 의해 놀랍게도 많이 은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성경 본문들 목록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요 기초들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추가적 확인도 포함한 부록을 첨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해와 행동의 방식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독자들은 사려 깊고 분석적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베뢰아의 접근 방식(사도행전 17:11)은 항상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읽으며, 일단 확신하게 되면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성경의 인용문은 다양한 번역에서 가져왔으며 나는 때때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번역했습니다. 많은 현대 번역판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아주 잘 전달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절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대의 의역 성경을 조심하십시오.[1]

교회는 그들이 믿는 것의 대부분을 성경이 아닌 초기의 성경 이후 "교부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1517년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도들은 새로운 "교부들"로서 루터와 캘빈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루터의 접근은 역사적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

---

[1] 예를 들어, 『리빙 신약성경』 *Living New Testament*의 요한복음의 서두

에 이상하게도 비성경적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 자신의 복음 전파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리스도교적인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복형제인 야고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루터의 이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터는 복음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발견되지만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복음서 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에 관한 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이 생각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서 어떤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문을 받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닌 칼빈은 또한 중요한 교리에 대해 자신에게 도전한 저명한 성경 학자를 화형시키는 것을 승인했습니다.[2]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이 옹호하신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교리를 이유로 다른 신자를 죽이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살인에 불과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예수님의 현재 대표자이며, 선포된 신적 권위의 "의자에서" 교황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틀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교황은 자신이 무오하다고 주장합니다. 교황은 자신이 신약성경 사도들의 유일한 진정한 후계자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따르면 교회 전통

---

2 미카엘 세르베투스Michael Cervetus는 1553년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감동적인 설명은 로렌스Lawrence와 낸시 골드스톤Nancy Goldstone의 『불꽃으로부터』*Out of the Flames*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은 성경의 가르침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몸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확실히 마리아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영국 성공회 고위 인사들의 모임을 열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대부분은 영구적인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에는 인종, 배경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지속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교가 먼저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지도 전파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경건한 종교적 사상과 희망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의 유대인 예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유일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그리스도교 메시아(그리스도)이며 불멸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땅에 발을 디딘 인물 중 가장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관찰했듯이, "이와 같이 가르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성경의 저명한 학자들의 말을 되풀이합니다. 나는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예를 인용합니다. 나는 그들의 말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용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 가톨릭 신학도 개신교 신학도 성경적 신학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경우는 그리스 사상에 의해 변질된 그리스도교 신학의 교파들입니다. ...이교 사상이 "그리스도교" 사상을 크게 지배했습니다...영혼의 불멸은 전혀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3]

"영혼의 불멸"이라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속 읽으십시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구인지,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 환영받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신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정확한 교회 전통을 따르지 않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요한복음 4:24)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은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과 교회 생활의 의미에 대해 배운 것을 예수님께서 승인하실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독자에게 하는 나의 제안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고 전파하신 본연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항상 지혜로운 일입니다.

---

3 노먼 스내이스Norman Snaith 교수, 『구약성경의 독특한 사상』*The Distinctive Ideas of the Old Testament*, p. 188, 89.

제1과

그리스도인 되기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교 복음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학습들에서 제시된 논의는 예수님의 희생적, 속죄적 죽음과 함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교 복음에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고린도전서 15:1-3). 그러나 그것들이 전체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복음을 조사해야 할 필요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 전도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요소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라는 용어는 결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실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부활 전과 후에 나온 구원 메시지에 대한 신약성경의 설명에서 신앙의 첫 번째 조항이 됩니다 (마태복음 4:17, 마가복음 1:14, 15, 누가복음 4:43, 5:1, 사도행전 8:12, 19: 8, 20:25, 28:23, 31: 디모데후서 4:1, 2 등). 예수님께서는 그 단계에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대로) 약 서른 개의 장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는 훨씬 나중에 마태복음 16:21에서 그 점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는 것이 아님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명해 줍니다.

주요 본문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14, 15)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12)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 28:23).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30, 31).

모든 지식 체계에는 파악해야 하는 기본 아이디어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데이터를 구성해야 하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이 중심적이고 지배적인 아이디어는 전체로서의 주제의 성격을 결정하고 주제의 모든 부분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기본 논제인 핵심 개념은 모든 부차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교 신앙

의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도록 고무하는 정보의 몸체로 다가옵니다. 그 정보의 출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 자신인데, 그분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통하여,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된 대리자인, 아들 메시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적인 핵심 개념은 무엇입니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단 하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기본 개념을 파악하고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필수적인 복음/구원 메시지로 여기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보통의 읽기 능력을 지니고, 어떤 번역본이든 성경을 가진 채,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 사상의 중요성은 신약성경의 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으뜸 개념이 21세기 복음 전파에서 대중에게 거의 보이지 않거나 보인다고 해도 명료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은 근본적인 개념들이 이례적으로 상실될 수 있는 방식의 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놀라운 것은 조직화된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으로 선포하신 것을 복음으로 선언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의 복음이 오히려 두드러져 보이게 되는 것은 오늘날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의 제시에서 그 그대로의 복음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중심 사상

모순에 빠질 두려움 없이 우리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가동시키는 중심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그 한 개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주된 사상입니다. 그것이 대중을 향한 그들의 외침 소리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성경 속에, 특히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기록에 세심하게 기록되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마가복음 1:14)입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복음, 즉 당신에게 불멸성(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워진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도록 당신을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5, 계시록 5:10, 디모데후서 2:12, 계시록 2:26, 3:21, 5:10, 20:1-6, 22:5, 이사야 32:1, 고린도전서 6:2;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28-30).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참조 마가복음 1:14, 15). 다음으로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복음" 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주목하십시오(로마서 1:1; 로마서 15:16; 고린도후서 11:7; 데살로니가전서 2:2, 8, 9).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것과 같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베드로전서 4:17 참조).

예수님, 바울, 베드로가 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8개의 언급은 하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신약성경의 증언을 입증합니다.

성경을 펴서 마가복음 1:14, 15을 찾아보십시오. 여기에서 예수님의 경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전파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갈릴리로 와서 마음과 생활 방식의 완전한 변화(회개)와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믿도록 동포들을 소집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참된 믿음과 모든 참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천국[하늘 나라=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는 계명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이자 제시하신 믿음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시작하여 그가 가르친 대로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라는 사실을 즉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의 복음으로 가르친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 5:24; 12:44-50; 마가복음 8:35-38).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4, 15)라는, 인류에 대한 그분의 시작 명령을 따르도록 촉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려주는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데살로니가후서 1:8, 베드로후서 4:17). 하나님 나라 복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분개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라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46).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같은 개념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 또는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발표될 때 누가가 우리에게 준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정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리라" (누가복음 1:32). 예수님의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들의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제기한 질문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었습니까?" 였습니다 (사도행전 1:6).

종교적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었듯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역할에 관해 가브리엘이 약속한 것은 지상에 세워질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왕권은 행악자들이 제거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메시아와도 화해하게 될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시작될 것입니다. (이사야 1:26과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의 많은 구절들, 예를 들어 이사야 2:1-5 참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의 선교봉사의 직무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전체 경력의 기초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43).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이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그리스도교적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이다." 이 본문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의 가르침에 기초해야 하는 전체 그리스도교 신앙의 열쇠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그의 사역에 대한 모든 이유를 우

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자주 인용되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 하나인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누가는 즉시 계속해서 예수님이 "메시지" 또는 "말씀"을 전파하셨다고 말합니다(누가복음 5:1; 마가복음 2:2; 사도행전 8:4, 5, 12). 이것은 그리스도교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마태복음 13:19), "하나님의 말씀"(누가복음 8:11), 또는 단순히 "말씀"(마가복음 4:14) 및 같은 의미의 다른 구문들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냥 "복음" 또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마태복음 24:14, 마태복음 4:23, 9:35, 마가복음 13:10)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과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메시지도 아닌 바로 이 메시지를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 복지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이며 단지 단 하나의 메시지,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43, 5:1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말씀)"[1]와 동일시합니다.

이 복음 메시지의 전파는 예수님과 그분이 자신을 돕도록 선택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이 어디서나 전파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온 갈릴리

---

[1] 하나님 나라의 한 복음에 대한 신약성경에서의 다른 명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나의 책 『메시아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신약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결책』*The Coming Kingdom of the Messiah: A Solution to the Riddle of the New Testament*을 800-347-4261[미국]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마태복음 4:23; 9:35).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 요약 설명을 반복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들[열둘]을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의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추종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6:33)라고 지시하십니다.

같은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분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지배했습니다. 거의 6주 동안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사도행전 1:3).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나라와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도전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곳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10)라고 기도하라고 촉구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잠재적 신자들 위한 중요한 정보

누가는 잠재적 개종자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침례를 받기 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의 진술은 초기 신조처럼 읽힙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 [침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1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고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신세계, 즉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의 통치를 돕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언약한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문자적으로 너희와 언약하여]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2]”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28-30 참조).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수행한 그의 사역 전체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사도행전 20:25)라고 요약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앞 절에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항상 복음으로 선포한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알려줍니다(사도행전 19:8). 의심이나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는 두 번째 보고서인 사도행전을 로마에서의 바울의 활동을 묘사하면서 끝맺습니다. 2년 동안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과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것들을 전파했습니다(사도행전 28:23, 31). 이것은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전한 구원의 복음 메

---

2 많은 번역본들에 나오는 “심판” 이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행정하다,” 또는 “지배하다“로 적절하게 번역됩니다. 비교. 구약 사사기의 “사사” 는 통치자였습니다. 또한 왕들이 “심판”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시편 2:10, I Macc. 9:73 등). 많은 현대 주석은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30에서의 “심판” 은 관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8:23, 31).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의 복음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19, 20).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 세상에 끊임없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천국[하늘 나라=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우리 앞에 놓인 이 증거와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성경적 진리를 찾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경의 진리에 담긴 그리스도교 구원 메시지의 주요 개념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이 구원에 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중심이며, 진정한 그리스도교를 형성하는 기본 사상입니다.

전통적인 설교와의 비교

성경적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토대로 확립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 교회의 다양한 교단들에 대해 조사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설교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 중 하나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이라는 구절은 현대 복음의 제시에서 거의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막연한 "우리가 죽을 때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 인기 있는 설교자는 그리스도교인들이 "하늘에서 무지개를 닦고," "하늘 요리를 준비하며," 또는 "하늘 정원을 가꾸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예

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도 충실한 사람들의 장래의 보상으로 [불멸의 영혼이 가는] "하늘" 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상속받을" 준비를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분은 추종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마태복음 5:5), 그가 다시 오실 때 함께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요한계시록 5:10).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람의 다음과 같은 말은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오래 전부터 이례적으로 부재했음을 지적합니다! 분명히 교회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파했던 것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저명한 교회 지도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고려해 보십시오.

> 모든 세대는 복음 속에서 자기 세대에 특별히 중요한 무엇인가를 찾는데, 이전 시대에는 간과되었던 어떤 것, 때로는 교회의 모든 이전 시대에 간과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부여된 광대한 탁월성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의 거의 전체 기간의 신학과 종교 저술에서 그것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더 이상 강조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3]

이 영국 국교회의 저명한 학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약성경의 기록에서 "더할 수 없는 탁월성" 을 갖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리스도교 역사의 전체

---

3 캔터베리 전 대주교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 『개인 종교와 친교의 삶』 *Personal Religion and the Life of Fellowship*, 1929, p. 69, 진한 인쇄 강조 추가.

기간의 신학과 종교 저술" 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신자들 사이에서 긴급한 관심의 명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의 영향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시대 이후 거의 2000년 동안 계속 기능해 왔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교회가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차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제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설교와 가르침에서 결여되었던 요소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의 핵심과 중심,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현대 학자들의 증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전체 메시지와 사명의 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중심점에는 강력한 의견 일치가 있습니다... 일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삶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었습니다."[4] 그러나 그 저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사도 시대 이후로 교회가 전파한 메시지에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5]

더 많은 저명한 이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절대적 중심성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 용어[하나님 나라]가 그

---

4 토마스 그룸Thomas H. Groome, 『그리스도교 종교 교육』*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1980, p. 39.

5 같은 책, p. 42.

의 선언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다." [6]

>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자료는 그의 설교를 지배한 개념, 그의 모든 활동에 의미를 부여한 실재가 이 "하나님 나라"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그 의미는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두 가지 필수적인 열쇠를 제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초점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칼 라너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7]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자신에 대한 배타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다른 저명한 증인들은 우리의 논지를 확증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 "예수님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9]

지난 세기로 접어들자 로빈슨은 뱀프톤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의 독특한 사명의 대표적이고,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요지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체적으로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다." [10]

---

6 한스 큉Hans Küng, 『그리스도교인이 되는 것에 관하여』*On Being a Christian*, p. 214.

7 존 소므리노Jon Sobrino, S.J., 『교차로에서의 기독론』*Christology in the Crossroads,* 1976, p. 41.

8 노먼 페린Norman Perrin, 『하나님 나라의 언어』*The Language of the Kingdom*, p. 1.

9 레지날드 풀러Reginald Fuller, 『사랑의 계명에 관한 에세이』*Essays on the Love Commendment*, p. 51.

10 『하나님 나라』*Regnum Dei*, 1901, pp. 8, 9

예수의 복음 메시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시대의 복음전도 분야에 대한 한 주도적인 저자가 현대의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11] 그 진술은 1974년 "세계복음화에 관한 로잔 국제회의"에 참가한 후에 한 저명한 전도자가 한 말입니다.

교회성장 운동의 저명한 대변인이 다음과 같이 인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합니다.

> 현대의 학계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라는 견해에 만장일치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교인이 된 30년 동안 왜 그것에 대해 더 많이 듣지 않았는지 크게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읽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52번, 마가는 19번, 누가는 44번, 요한은 4번 언급합니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내가 실제로 들었던 목회자들의 설교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다룬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설교 원고들을 뒤지다 보면, 나는 내 자신도 그것에 대해 설교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12]

---

11 톰 사인 Tom Sine 인용, 『겨자씨 음모』*The Mustard Seed Conspiracy*, pp. 102, 103.

12 피터 와그너Peter Wagner, 『교회 성장과 온전한 복음』*Church Growth and the Whole Gosspel*, p. 2.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러한 진술들의 비판적인 의미가 간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그린은 선도적인 복음전도자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 언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피터 와그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17; 4:23; 9:35; 24:14; 누가복음 4:43; 누가복음 16:16).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하신 후에도 항상 동일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 사도들을 통해 계속되었습니다(사도행전 8:12, 14:22, 19:8, 20:25, 28:23, 31, 디모데후서 4:1, 2).

또 다른 유명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지난 16년 동안 나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관한 설교를 들은 적이 단 두 번밖에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이 침묵이 다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학자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다....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관용구보다 더 많이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회중에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현대 설교자는 이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할 것이다. 사실 내 경험은 그 반대였으며 그것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13]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잠재적인 개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

[13] I. 하워드 마월 박사 Dr. I. Howard Marwill,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Preaching the Kingdom of God, *Expository Times*, 1977년 10월, p. 13.

메시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10:17)?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부면에서 동의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 아크테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 신약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들 중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는 것인데, 요즘 일반적인 신도들은 그것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하고 있다. 그 도래는 구약성경의 모든 주요 신학적 복합체속에서 약속되었다...선지자들은 추방의 심판과 대조적으로 새로운 출애굽(이사야 52:11-12)과 광야에서의 방랑(이사야 48:20-21)과 함께, 새롭게 약속된 땅(에스겔 34:25-31)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약속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예레미아 31:31-34)를 유지하며 이스라엘이 신실함과 안전함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녀[이스라엘]의 빛으로 모든 민족을 그녀와의 교제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다(이사야 60:1-3; 56:6-8). 이스라엘은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예견했고 그녀의 예배에서 그것을 미리 맛보았다(시편 47, 96-99). 구약성경의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그녀는 그 도래를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14]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개할 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현대의 설교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포괄적인 의의가 없다는 우리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교학 저널의 사설에서 아서 글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14 『신학과 예술로서의 설교』*Preaching as Theology and Art*, pp. 41, 42.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솔직히, 나는 이 주제에 대한 확고한 설명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님의 생각과 사역을 지배했다는 널리 받아들여진 사실과 이 침묵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 경험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동료들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들었다는 데 쉽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한 확고한 설교에 관해서는, 그들도 곰곰이 생각해 본 후, 그 주제를 다루는 목사는 보기 드물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기 시작했습니다.[15]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의 상실

위의 사실은 간단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모든 가르침의 주요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스스로를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결코 많이 말한 적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현대의 설교자들은 그것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현대 복음전도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복음전도 의제의 일부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홍보하는 소책자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없음을 지적함으로써 쉽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 1900년 동안 그리스도교라고 일컬어졌었던 것과 예

15 『선교학』*Missiology*, 1980년 4월, p. 134.

수님과 사도들의 그리스도교를 비교한다면 복음의 내용의 현저한 상실이 있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설교에 대한 성경적 기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포되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교의 주요 개념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전통적 그리스도교에서는 주요 개념이 아니며, 또 그런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리스도교와 전통적인 그리스도교가 복음의 내용을 정의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사실 요약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신 많은 구절들 중 일부를 인용함으로써 성경적 그리스도교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지대한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태만 사용한 "하늘 나라" Kingdom of Heaven라는 용어는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들은 상호교환 가능한 용어들입니다.)

마태복음 4:23: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 주셨다."

마태복음 8:11,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9:35: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 주셨다."

마태복음 13:10: "여러분[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19: "사람이 하늘 나라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에..."

마태복음 6:33: "먼저 하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13:41: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하늘 나라에서 모든 죄의 원인과 그의 법; 그들은 이것을 풀무 불에 던질 것이다."

마태복음 13:43: "그 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마태복음 6:9, 10: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라고 기도

하십시오.”

마태복음 19:24: “낙타가 사람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이...”

마태복음 20:21: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마태복음 26:2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14: “이 하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나라들 앞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이 다른 동네에도 가셨으니 이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음이니이다.”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동네와 동네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보내사 그리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

누가복음 9장 11절: “그들을 친절히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누가 9:60: “ ‘죽은 자들을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선포하십시오.’ ”

누가복음 12:32: “적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21:31: “그러므로 너희도 이러한 일[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을 확신할 지니라.”

누가 22:28-30: “그러나 당신은 나의 시련 중에 나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나와 계약을 맺은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당신에게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성구 인용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의 주요 초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중요성이 압도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의미를 위해 결정적인 것, 즉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마가복음 1:14, 15)라고 외치심으로써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강력한 명령으로 모든 곳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도전은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시급합니다. 마음과 삶을 바꾸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항상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인 구원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다음 학습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핵심 구절의 의미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신 대로 복음에 전념하고 예수님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는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순종하도록 초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불멸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정확한] 진리(참 복음)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디모데전서 2:4).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대답이다."[16]

---

16 A. 로버트슨A. Robertson, 『하나님 나라』*Regnum Dei*, Bampton Lectures, 1901, p. vii.

제2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메시지를 믿는 것

주요 본문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2:44).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사야 16:5).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아 3:1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2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아 23:5, 6).

주후 27년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집중적인 복음전도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그는 청중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참조 마가복음 1:14, 15)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에 대한 그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니엘과 모든 선지자들이 약속한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 즉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사무엘하 7장)를 도래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해 지적인 믿음을 지니는 것이 제자의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하며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곳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성격은 오늘날 우리가 설교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한 전령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을 직시하여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본질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 메시지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지상명령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여기서 예수님은 추종자들에게 그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고 개종자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을 믿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그것을 발표하는 "팀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그것이 올 때 온전히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라는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청중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지상의 신성한 세계적인 정부를 떠오르게 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동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인정하신 선지자들의 글들은 세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약속했습니다. 다니엘서가 대표적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의 백성에게 주권과 왕권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실"(다니엘 7:27, 원문: 예루살렘 성경) 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상적인 정부, 즉 하나님 나라 혹은 제국은 지상에서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워진 땅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평화는 전 세계로 확장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초자연적인 격변에 의해 도입될 지상의 신성한 세계 정부를 분명히 의미합니다. 이 땅의 새 질서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께서 설교

를 시작하셨던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망이었습니다. 구약 정경의 종결에 뒤이은 문헌들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저술을 검토함으로써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것은 위협과 약속을 수반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믿고 그에 따라 삶을 재정비함으로써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신성한 통치의 영광에 들어갈 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곳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실 때 파멸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신약성경 전체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운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메시지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신약성경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교는 그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쓸모없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복형제인 유다는 1세기 말에도 사람들에게 긴급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서 3)라고 촉구했습니다.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새로운 세계 질서의 확립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신적 개입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것이 지난 1600년 동안의 신학을 상당히 당혹스럽게 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세계에 부과될 실제 정부로서의 하나님 나라라는 이 중심 개념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수

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증한 선지자들의 비전(로마서 15:8)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동시대인들과 함께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권위 있는 지위를 누릴 실제적인 "외재적"이고 "구체적인" 소망을 공유하셨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구주의 약속보다 더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계시록 2:26-27; 3:21, 새번역 [예루살렘 성경]).

이러한 보증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로 (계시록 2:18, 3:14)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참된 증인은 참된 복음 전파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교회로 직접 나아갑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약속된 메시아와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이 주도하는 세계 지배에 대한 유대교적(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교적) 희망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같은 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경이로움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합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신성한 계획의 집행자인 메시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

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5:9, 10, 새번역 [원문: 예루살렘 성경]).

이러한 평범한 진술을 무너뜨리고 덜 "공격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종교적"이고 덜 정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교회의 "통치"나 "마음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생각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본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 약속된 통치권은 현세의 시련들을 통해 승리한 이후에만 부여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만 부활하셨을 때에 아버지의 보좌에서 권위의 지위를 얻으신 것처럼, 그들은 (장래의) 부활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유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미래 세계의 지배자로 승인하시기 전에 시련과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구절들에 대해 주석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러한 약속을 소극적으로 지키려고 시도합니다. 그 주석가들은 그렇게 "유대인적인"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것 같으며, 때때로 그러한 성경 본문들에 "비그리스도교적" 또는 "조잡한"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비그리스도교적이고 비메시아적인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불편한 자료를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을 "묵시록적"[1] 문학

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분류하면 덜 공격적인 것으로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계시록 (묵시록)으로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교적 [세계종말을 알리는] 묵시입니다 (계시록 1:1). 그러나 이것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말씀보다 예수님의 정신을 덜 반영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약속이 너무 정치적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것이 반드시 비(非)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전 세계에서 활동하시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깊이 뿌리박힌 사고 습관은 오랫동안 "영적"인 것은 지상에서 작동하는 실제 정치적 구조와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사고는 수세기에 걸친 그리스적, 플라톤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플라톤주의자가 아니었고 바울은 철학의 극단적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골로새서 2:8).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유하신 히브리인의 견해는 그러한 이원론적 용어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적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진술을 "영적으로" 만들거나 일레고리화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단지 평범한 정보를 해체하여 무엇이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뜻하도록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용어로 그리스도교를 구

---

1 새로운 시대를 소개하는 파국적인 신의 개입을 묘사. 그리고 지상의 새 정부.

성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통치권을 함께 나누실 자신의 의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새 정부에서 행정 관리들로 일하는 명예로운 자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2](누가복음 22:28-30).

정확히 동일한 정치적 보상이 이전 경우에도 이미 사도들에게 약속되었었는데, 메시아 정부가 집권할 때라고 하는 특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28).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복음)" 에서 제시하셨던 기본 개념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강력한 장벽들이 수 세기에 걸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적 맥락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그것을 "재해석" 하고 (원래 의미를 버리는 정교한 방법!) 그것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 속의 하나님 나라" 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새 판본이 그의 원래 메시지를 대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선한 명분" 에 추가된 반면,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바대로 이해되는 메시아적 하나님 나라에 관

---

2 "심판"이라는 단어는 이 문맥에서 "행정" 또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사유하는 왕들은 "사사", 즉 통치자였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한 복음은 교회 신도와 설교자들에 의해 자주 삭제되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님에 관한 것들" (사도행전 8:12, 28:23, 31)의 형성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마가복음 1:14, 15)을 요구하신 그분의 원래 선포에 순종하여, 우리는 성경적 배치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지적인 반응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마가복음 1:14)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믿음으로써 응답해야 한다는 (마가복음 1:15) 선언은 예수님의 청중들에게 자신들의 민족적 희망이 실현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까웠다" 는 발표는, 주의 날에 관해 예언자들이 오래 전에 사용한 것과 같은 말로서 사람들이 가장 긴박하게 그 도래를 준비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결국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잠에 빠진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 9:5, 10). 우리는 장차 부활할 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다니엘 12:2; 고린도전서 15:23).

하나님 나라 개념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기록된 메시지들 안에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의 작업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가복음 5:17).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그러한 예언들의 확실한 성취에 주의를 환기시킬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인 메시아가 다스리는 신성한 정부의 지상 확립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 통치 아래에서의 세계 평화의 시대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사실은 성경과 유대교의 역사에 관한 수백 개의 표준적인 서적들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문헌에 대한 전문가는 그 예언자들의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분명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수세기 동안 유대인들은 머지 않은 미래에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그의 이름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것이 메시아적 희망의 본질이다.

이러한 희망에 비추어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 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대감, 즉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임박한 변화에 대한 기대를 마음 속에 품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으로 중심적이고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시게 될 그 변화를 기다리며, 그분의 택하신 제자들로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3]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교인들의 희망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시대를 열기 위해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구약 학자는 예언자 다니엘이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황금시대와 동일시하며 역사의 마지막 국면에 이 땅에 세워질 것으로 예견한다"[4]고 주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워진 땅에서 운영되는 신성한 정부 아래에서의 인간 사회의 구조 조정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경 번역자들이 제시한 주제의 표제들만 보면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화" (이사야 2:1-4), "미래의 회복" (이사야 4:4-6), "유덕한 왕의 오심" (이사야 33:17-24), "이스라엘의 해방" (이사야 43:1-7),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부활" (이사야 60장)의 시대에 대해 배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는 "메시아 시대의 시온" (예레미아 3:14-18); "열방의 개종" (예레미아 16:19-21); "미래 왕" (예레미아 23:1-8), "북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 (예레미아 30장); "유다에 대한 회복의 약속" (예레미야 31:23-26), "장대하게 재건된 예루살렘" (예레미아 31:38-40), "미래의 제도들" (예레미아 33:14-26) 등에 대해 읽습니다.

에스겔은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에스겔

---

3 H.D. 해밀턴Hamilton, DD, 『하나님의 백성』*The People of God*, Vol. II, pp. 19, 20.

4 D.S. 러셀Russell, 『묵시록, 고대와 현대』*Apocalyptic, Ancient and Modern*, p. 26.

37:15-28)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화해: 미래의 행복에 대한 약속"에 대해 말합니다 (호세아 14:2-9); 요엘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 (요엘 4:18-21)를 예견합니다. 아모스는 "회복의 전망과 목가적 번영" (아모스 9:11-15)에 대해 온화하게 씁니다. 오바댜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 승리를 묘사합니다 (오바댜 21;비교. 미가 4:1-5). 마지막으로, 스가랴는 "메시아적 구원"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제공합니다(스가랴 8:1-17). "메시아" (스가랴 9:9-10); "이스라엘의 회복" (스가랴 9:11-17). 그는 "예루살렘의 영화" (스가랴 14:1-21)에 대한 묘사로 끝맺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감동적인 비전을 숙고해 본 사람이라면 그 요점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대리자 곧 약속된 다윗의 자손의 감독 하에 모든 민족들을 위한 평화와 영원한 안전의 시대가 지상에 도래할 것이라고 한마음으로 선언했습니다. 어빙 자이틀린이 이사야에 대해 기록한 내용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의 희망을 요약한 것입니다.

> 그 선지자는 이 시대가 끝나고 오만, 압제, 전쟁, 우상 숭배가 모두 함께 사라질 새 시대가 도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교만에서 벗어난 후에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5]

---

5 『고대 유대교』*Ancient Judaism*, p. 228.

옥스퍼드의 저명한 구약학 교수는 다니엘서에 대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메시아적 시대를 환란이 끝난 직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들의 나라가 아시리아의 손에 맡겨지는 시대 (이사야 11: 1-10, 28-34, 30:19-26, 31절 참조, 31:7, 32:1-8, 31:8 참조; 미가 5:4-7).”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최종 적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 비전이 예수님의 역사적 사역 동안 또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틀린 생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나라들이 칼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명백하게 알 것이며, 왕-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회복된 다윗의 보좌에서 열방의 통치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아직 가시적으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누가복음 1:32, 33). 예수님께서 아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때가 과거에 언제 있었다는 것입니까 (미가 5:5-7 참조)? 미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좋은 일들에 대한 약속

미래의 황금시대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리스도교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명하셨을 때(마가복음 1:14-15), 그의 메시지에는 개인적인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실 때 절정을 맞이하게 될 그분의

계획을 믿는 지적인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회개"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의 전체 전망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개인들로서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일하시는 계획을 믿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려면 "하나님 나라" 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기쁜 소식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배경에는 여러 가지 기본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 예수님을 최고 경영자로 하는, 다가오는 세계 정부에 대한 정보와 그 도래에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정부" 및 "임원" 과 같은 용어는 권위의 오용을 목격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의 약속은 메시아의 자비로운 통치 하에서 실현될 지상의 정의와 평화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에서 평화와 정의를 누가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그의 청중에게(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이 받은 유명한 약속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국은 나중에 다윗의 저명한 후손이 권력을 장악할 때 항구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8-16, BC 1000년경).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제공한 이 놀라운 신성한 신탁은 정보의 진정한 금광 같은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련된 신약성경 신학의 필수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의 지침서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와 그의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이 민족적 영광의 약속

을 유대 민족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회복된 왕국에 대한 소망을 바탕으로 한, 예수님 탄생 50여 년 전의 "솔로몬 시편"의 다음 발췌문은 미래의 메시아 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 그 자체는 성경의 공식 정경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약성경의 시편과 선지자들의 구절, 특히 사무엘하 7장, 시편 72, 89, 132절 등과 같은 수많은 메시아적 구절들로부터 직접 영감을 얻습니다.

> 주여, 주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그의 영원한 후손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의 나라가 주 앞에서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보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아시는 때에 저희 왕 다윗의 자손을 일으키사 주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에게 강한 힘을 주셔서 불의한 통치자들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짓밟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방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출하게 하소서. 지혜와 의로 죄인들이 상속받지 않게 하시고, 도공의 항아리처럼 죄인들의 오만함을 깨뜨리고 쇠막대처럼 그들의 모든 물질을 부수며 그의 입의 말씀으로 불법적인 민족들을 멸하시면, 그의 경고에 따라 열방이 그의 면전에서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죄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가 의로 인도할 거룩한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의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백성의 지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들 가운데 머물지 않으실 것이며, 악을 아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모두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그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을 그들의 지파대로 땅에 분배하고...그가 이방 민족들을 그의 멍에 아래에서 섬기게 하고 온 땅 위의 보다 더 뛰어난 곳에서 주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여 처음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리니 민족들이 땅 끝으로부터 와서 그의 영광을 보고, 쫓겨

났었던 그의 자녀들을 선물로 가져오며,하나님께서 그녀[예루살렘]를 영화롭게 하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리라.

그 [메시아]의 시대에는 그들 중에 불의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거룩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주 메시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과 기수와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전쟁을 위해 금과 은을 모으지 아니하리라. 그는 전쟁의 날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의 왕이시니 하나님께 강한 소망을 두는 자의 소망이시라...

오 주여, 주의 자비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당신은 풍성한 선물로 당신의 선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 중 누구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귀는 가난한 자의 소망 있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인자하신 심판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며 주의 사랑은 이스라엘인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사랑하시나이다. 우리를 위한 주의 징계는 맏아들인 외아들이 사려깊은 자를 돌이켜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축복의 날, 곧 메시아가 통치하실 지정된 날을 위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기를 빕니다. 그 때에 태어난 자들은 여호와께서 후대를 위하여 행하실 선한 일을 보며 복이 있습니다. 주 메시아의 징계의 채찍 아래 있게 하고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의와 능력의 지혜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로운 행실을 하게 하며, 모든 사람이 주를 경외하게 하므로 긍휼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선한 세대로다 (솔로몬 17, 18의 시편에서).

이 시편들은 구약성경이 제시한 메시아적 소망의 본질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했던 당시의 흐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누가복음(1:32; 2:11), 요한계시록(11:15-18; 19:15-16) 및 기타 신

약성경의 본문들과도 놀라운 연관성을 보입니다.

왕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요 대표자는 기원전 6세기의 예언자 다니엘이었습니다. 일련의 놀라운 비전들에서 그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2:44)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니엘서 2장의 위대한 형상으로 묘사된 적대적인 세계 제국들을 대체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메시지를 받은 그 선지자에 따르면, "위대한 하나님이 왕[느부갓네살]에게 장래에[히브리어로는 *be acharit hayamim* [마지막 날에], 즉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을 알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신뢰할 만하도다" (다니엘 2:45).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함께 그 나라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칭호이지만 "그리스도의 몸" 을 구성하는 추종자들을 포함한다)에 의해 통치될 것인데, 그들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14). 통치할 권리는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인자에게 부여되어야 했으며 (다니엘 7: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27,

RSV).

그 밝은 미래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의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2:1-5, 원문: 예루살렘 성경).

그 새 시대가 도래할 때,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 4:3)가 될 것입니다. 성전 지역을 정결케 한 후,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안에서 흘린 피를 정결하게 하셨" 을 때 (이사야 4:4), "여호와께서 오사 시온 산 온 면과 거기 모인 자들에게 임하시리니 낮에는 구름과 연기요, 밤에는 번쩍이는 불의 광채니라. 야웨의 영광은 천막과 장막이 되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될 것이니라" (이사야 4:6).

예언된 하나님 나라의 기적적인 성격은 메시아의 초자연적 수태와 일

치합니다. 마태는 [메시아 탄생] 700년 이전에 이사야가 전한 신탁의 궁극적인 성취를 예수님의 기적적인 잉태에서 봅니다. 마리아의 기적적인 임신에 대해 그는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22)라고 간단하게 보고합니다. "그녀 안에서 나신 [태어나신]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태복음 1:20).

미래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약속된 왕의 위엄입니다.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6]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7]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주 여호와 [야웨 사바오스Yahweh Sabaoth]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이사야 9:6, 7).

약속된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이 나타나면 이사야의 예언이 더 나아가 성취될 것입니다.

---

6 표준 히브리어 사전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성한 영웅"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바로 그 영광을 반영해야 했습니다(누가복음 1:35은 이 아버지-아들 관계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7 물론 메시아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다가오는 시대의 부모이십니다. 그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 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1-5).

미래의 왕의 정의로운 통치 하에 자연까지도 상응하는 조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11:6-9).

다니엘의 환상에서와 같이, 이전의 악한 정부의 폐허 위에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

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이사야 16:5).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모든 적대 세력의 추방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사야 24:21, 22). 그 시점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사야 24:23).

땅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때가 올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사야 32:1, 2).

예수님의 표어인 하나님 나라의 없어서는 안 되는 배경을 제공하는 이 복합적인 개념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4, 15)라는 그분의 첫 번째 기록된 명령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의 그리스도교적 희망

갈릴리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위해 캠페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라는 친숙한 용어를 사용

함으로써 모든 예언자들이 말한 바에 근거하여 지상의 평화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세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궁극의 "신정 통치자"로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명확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래의 지상 메시아적 정부"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 사명의 기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하시려고"(로마서 15:8)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도록 임명된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좋은 소식에 응답하도록 대중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현재는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위한 긴급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소식에 현명하게 응답하라는 초대는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마태 24:14)는 사명에 충실하게 순종함에 따라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게 경고를 받을 때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마태복음 24:14). 그래야만 지상에 신성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도입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음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진정한 그리스도교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문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 특히 그 사실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을 믿으라"(마

가복음 1:14, 15).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내가 보내심을 받은 까닭이니라" (누가복음 4:43).

"이 천국[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마 24:14).

어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같은 복음

"신학" 은 명백한 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기술을 고안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1과에서 보았듯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 "하나님 나라 복음" 이 경시되었습니다. 신학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말하고 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4:43 등,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에! 누가복음 18:29-34 참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마태, 마가, 누가의 결정적인 증거들을 무시함으로써 이런 과정을 시도했습니다. 신학은 또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교회의 활동을 기술한 명시적인 정보를 우회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적인 믿음이 성경적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첫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침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12).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누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공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그것을 반복합니다(사도행전 1:3, 6; 19:8; 20:25; 28:23, 31). 그는 심지어 로마에서의 바

울의 그리스도교 선교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31)라고 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라는 완전한 공식 칭호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가는 메시지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일부가 배척했던 바로 같은 그 메시지입니다. 그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했습니다" (사도행전 28:23).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구원의 메시지를 원래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복음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은 바울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과 동일시합니다.

성경을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가 (물론 "예수님에 관한 것들" 에 추가하여) 복음의 주요 구성 요소라는 결론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역 전반에 걸쳐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이며,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마가복음 16:15, 16; 마태복음 28:19, 20) 청중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복음)과 메시아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만(사도행전 8:12; 19:8; 28:23, 31) 침례를 승인하는,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습적인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침례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사도적 신앙의 공식(사도행전 8:12),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것들" (사도행전 28:23, 31 비교)에 대한 믿음의 공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된 강조와 함께 이 초기 신앙고백 공식을 사

용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그리스도교 복음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3과에서 우리는 예언자들의 말에 드러난 배경을 참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 환경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구약 예언의 유산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뿌리 뽑으려는 모든 시도를 막을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 메시지는 부단히 그것을 위협하는 많은 대체 메시지들로부터 방어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분명히 "소비주의의 복음"이 아니고, 또한 탈신체화된, 즉 육체가 없는 영혼을 위한 장소인 "하늘"의 복음도 아닙니다.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좋은 소식' 입니다."[8]

---

[8] A. 로빈슨Robinson, 『하나님 나라』*Regnum Dei*, Bampton Lectures, 1901, p. 62.

제3과

그리스도교 복음을 믿는 근거

주요본문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6, 7).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7).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43).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사역을 통해 우리는 그의 전도 활동은 공개적

인 선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선포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믿고 그에 따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에 반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4, 15).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43). 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항상 제시하셨던 복음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상 그리스도교 복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회가 침례를 받을 후보자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8:12;비교. 사도행전 28:23, 31)을 믿으라고 요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히브리서 13:8)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긴급한 응답을 계속 요구하는 그의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고린도전서 15:58),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교사나 지지자로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참조: 예를 들어 누가복음 8:3).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11). 그러나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60). 마태복음 5:5, 즉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가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개종자들은 "천국에 간다," "내가 천국에 갈 때," "누구누구는 더 좋은 곳으로 갔어" 등의 말을 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상속받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제자도입니다. "[천국으로]하늘로 간다" 고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구약의 예언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예언들은 주의 날 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파국적인 개입에 이어서 뒤따르는 황금 시대가 지상에 도래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택하신 대리자 메시아(그리스도)의 감독 아래 세계 전역에 공의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 2:44; 7:18, 22, 27 참조)

제1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식이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오신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데 동의하는 성경 신학 전문가들의 말을 길게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사실은 신약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목적 진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43).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명백하게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부르는 교회 측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제에 대해 놀랍게도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대변인들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에 걸쳐 하나님 나라는 복음 메시지나 그

들의 교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 전도를 다룬 그들의 저술과 소책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놀랐는데, 그들도 또한 놀랍게 여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은 가장 중요한 주제인 복음 메시지를 토대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 성경 문서들을 긴급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응답이며 따라서 예수님을 주 메시아로 받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누가복음 2:11).

우리의 의혹은 사도 시대 이후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내포된 구약의 뿌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주로 도입한 이질적인 사상의 홍수 속으로 원래의 신앙이 침몰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미래에 지상에서 권력을 행사할 실제 정부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그것은 "마음 속의 하나님 나라," 즉 종교적 이상, 종종 인간 자신의 열망과 꿈의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사에서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 선언은 "개인적인" 구원이나 사회적 개선을 다룬다고 주장하는 보다 더 "편안한" 복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일부 본질적인 사실들, 즉 예수님의 죽음, 매장, 그리고 부활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차적 요소인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믿을 필요성(마가복음 1:14, 15, 행 8:12, 28:23, 31)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 올라간다는 "하늘" [천국]에 대한 막연한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도래할 지상의 하나님 나라 황금시대의 약속을 대체했습니다.

이 고갈되고 축약되고 왜곡된 형태의 복음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1.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구약의 뿌리가 무시됩니다.

2.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선포하신 것에 대한 마태, 마가, 누가의 명백한 증언이 무시됩니다. 루터와 칼빈, 그리고 우리 시대의 C.S. 루이스와 복음 전도자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예수님의 복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핵심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의 명백한 진술들이 우회됩니다(사도행전 8:12; 19:8; 20:25; 23:28, 31).

4.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유대적"이고 메시아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반유대적 성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문서들은 어떤 논쟁의 여지도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처음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누가복음 18:31-34).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가 구주의 죽음과 부활이 아닌 다른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점은 우리의 전체 주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더 강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누가복음 8:1).

후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9:1-2).

이 단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임박한 체포에 대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하실 것에 대해,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으로 증명됩니다.

>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춰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누가복음 18:31-34).

심지어 부활 직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0:9).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후의 일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복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구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 없이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선언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4, 15; 마태복음

4:23; 9:35; 누가복음 4:43; 누가복음 8:1 등).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부활 후에도 (사도행전 1:3; 1:6; 8:12; 19:8; 20:25; 28:23, 31)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에 추가된, 이제 역사가 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8:12, 28:23, 31). 하나님 나라 메시지는 복음의 주요 구성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음을 위해 추가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한 주제입니다.

히브리 배경 추가

현대 주석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청중들에게...오늘날 흔히 말하는 공허하거나 모호한 용어가 아니었다. 그 개념은 구약에서 오랜 역사와 광범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1]고 지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원 복음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복음 자체가 현대 청중들에게는 "공허하거나 모호한" 것이 되었다는 결론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유산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는 한 회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요청한 예수님의 처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믿음의 반응이 없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14, 15).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은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메

---

1 휴 앤더슨Hugh Anderson, 『신세기 성경, 마가복음』*New Century Bible, The Gospel of Mark*, p. 84.

시지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따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마가복음 8:35, 38)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고귀한 운명을 확신해 왔습니다. 그 민족과 그 민족의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부분으로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5-6).

이스라엘 전체는 자체에 부여된 높은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패권의 약속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충실한 남은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왕권으로의 초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반복되었습니다.

>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5:3-5, 원문: 예루살렘 성경) .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지위에 대한 전망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소집한 교회의 새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16, 빌립보서 3:3)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실한 교회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보증을 언급했습니다.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시록 3:21; 2:26, 27).

이러한 전망으로 인해 디모데후서 2:12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슬로건"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모든 시대들과 모든 민족들의 충실한 사람들은 "땅에서 왕처럼 다스리도록" (계시록 5:10)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왕족의 미래이며, 그들은 이 매우 높은 영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위)에서 예수님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묘사하는 많은 시편들 중 하나인 유명한 메시아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에 새 정부를 세우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단호한 개입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시편에 호소한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메시아적 희망이 예수님 자신의 완전한 승인과 함께 그리스도교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계시록 2:26에서 예수님이 인용함].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원문: 예루살렘 성경).

"땅끝이 너희 땅" 이라는 약속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 (계시록 2:26)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주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천사 합창단이 "땅에서 왕으로 통치할" (계시록 5:10) 충실한 사람들을 노래할 때와 천년 동안 메시아와 함께 통치하는 성도들을 예견하는 유명한 천년기 구절에서 동일한 주제를 채택합니다 (계시록 20:4). 이 성도들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의 미래 시대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그 다가오는 [유명한] 시대" (누가복음 20:35)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워진 땅 위의 미래 하나님 나라 시대이며,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응답하고 사도행전 2:38, 8:12 등을 따라 물 침례를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이 죽음 속에서 잠이 든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다니엘 12:2, 13, 고린도전서 15:23 등 참조).

복음에서 메시아적 요소의 상실

이 메시아적 자료를 회피하려는 주석가들의 시도는 자신들의 "탈메시아화" 된 그리스도교의 특별한 형태들을 구축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기념비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땅에 자신의 통치를 부과하는 것을 인간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예수께서 세상의 나라들을 부수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파하고 가르쳤던 최초의 메시아닉 그리스도교 번안은 해체되었습니다. 그 메시아닉 프레임워크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로 남아 있는 것은 신약성경에 대한 믿음으로는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 믿음과는 확연히 다른 종교 체계에 부착되었습니다. 천상의 공기같은 "하늘" [천국]에 대한 약속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땅을 기업으로" (마태복음 5:5) 하라는 예수님의 부단한 초대와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재림하실 메시아의 정부 아래 세계 평화가 확립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개정된" 형

태는 땅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 [“하늘”]에서의 개인을 위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추종자들에게 미래의 신세계 질서인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맡을 책임있는 지위를 제공하셨습니다. 그 신세계 질서에 대한 믿음은 복음에 대한 지적인 믿음의 첫걸음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4, 15).

그리스도교의 중심적인 요점을 잃는 것은 달에 가기를 희망하는 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발사대와 우주선이 필요하다고 결정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장비를 얻은 후에 장비가 무엇을 위해 필요했는지 잊어버립니다. 발사대와 우주선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달 여행은 잊혀집니다. 교회 신도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궁핍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신약성경의 그리스도교에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직책에 대한 희망은 그리스도교 전체의 모험에 자극을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직책에 대한 신자의 소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소망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제자가 내디뎌야 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고 그것의 궁극적인 실현을 보장합니다.

“복음” 에 대한 현대의 제시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십시오,” “예수님을 삶으로 부르십시오” 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관념은 없습니다. 청중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

시기 오래 전에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에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정치적 상황과 비교되는데, 후보자가 자신의 선언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캠페인에 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 즉 복음을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개종자들이 믿음으로 입문하는 과정을 왜 그토록 정확하게 요약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침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12).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요청하는 것(마가복음 1:14, 15)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교 설교의 핵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적 방법에 따른 복음전도에 없어서는 안 될 길잡이로서 오늘날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열정을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누가복음 4:43),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주님을 영접" 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요한복음 17:8, 사도행전 8:12 등).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접함" 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 을 의미합니다(요한복음 1:12). 예수님의 이름은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져온 복음 계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요한복음 5:47 참조).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마지막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제공하는 우리 시대의 소책자들에서 이 간단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더 알아보기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많은 부분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미래 세계 제국에 대한 이 빛나는 이야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6, 7, RSV)).

임명된 통치자는 "지혜와 이해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의 특징을 지닐 것이고, "그의 기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이사야 11:2, 3, RSV). 그와 함께 "방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이사야 32:1). 메시아의 완전한 정부의 결과는 자연 자체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 35:1-10).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복음의 언어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게" 될 미래의 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 구절에서 우리는 "시온을 복음화하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 읽었습니다(40:9). "복음"과 "통치"라는 두 개념의 결합은 자연스럽게 신약성경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성경 본문이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언급할 때마다, 유대인 주석은 히브리어 동사 "통치"를 명사로 번역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유대인의 타르굼Targum, 즉, 이사야 40:10 주석).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는 "주의 하나님 나라가 세세토록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면할 때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배경으로부터 뿌리가 뽑히면, "하나님 나라"는 많은 성서 독자들의 마음에 참으로 모호한 용어가 됩니다. 이 중심적인 복음 용어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부여한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그 결과 중요한 구원의 정보가 불가피하게 손실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동일한 연결이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발견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문맥은 주님의 공개적인 표명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사야 52:10).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우 중요한 구절들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세상의 제국들을 대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와 함께, 초자연적 개입에 의해 도입되어 지상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 또는 정부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4, 15)라고 외치면서 요구하신 것은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확증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소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묘사에 덧붙이기 위해 우리는 밝은 미래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을 좀 더 인용합니다.

>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

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17-25, RSV).

하나님 나라 복음

사도들의 사역을 통틀어 구원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8:12)입니다. 같은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평화의 복음" 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복음의 가장 빈번한 명칭은 다음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 복음" 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 12 사도들, 70인이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포의 핵심을 형성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증거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내용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17: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

하라 천국[하나님 나라]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 (침례자 요한도 마태복음 3:2에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마찬가지로 촉구했습니다.)

마태복음 4:23: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9:35: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13:19: "누구든지 천국[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습니다."

마태복음 24:14: "이 천국[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정보는 복음 메시지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논쟁의 여지 없이 입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구원의 메시지로 남아 있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마태복음 24:14).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라는 용어가 14회 나옵니다. 마태와 같이 마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필수적인 구원의 메시지라고 이해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4, 15).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메시지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광범위하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38).

누가는 복음이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열네 번 (누가복음 4:43; 8:1; 9:2, 11, 60; 10:9, 11; 16:16; 행 1:3; 8:12; 19:8; 20:25; 28:23, 31, 아래 인용)에 걸쳐, 그는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정의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누가복음 9장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누가복음 9:11: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9:60: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10:9, 11: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누가복음 16: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모두가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엄숙하게 충동받는다"고 옮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사도행전 1:3: "[사십 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19: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변론하고 변론하니라."

사도행전 20:25: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더라"

사도행전 28:30, 31: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요약합니다. 이것을 그는 즉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함"(25절)과 동일시합니다. 누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대한 최근의 함 연구가 올바르게 지적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는 예수님과 사도들과 제자들과 바울의 사역을 요약한다"[2]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저자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3]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공하는 수백 개의 소책자들과 종교 서적들을 보고 판단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메시지의 핵심이거나 메시지의 일부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문구는 거의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정보의 억압?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라는 문구가 없는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저명한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설교의 중심적 주제였습니다. ...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교국의 위대한 고전적 전통의 중심적 주제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에서 비롯된 **주요 전통은 "복음을 전파하다" 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다"라는 말은 했지만 "하나**

---

2 로버트 오툴Robert O'Toole, S.J., 웬델 윌리스Wendell Willis 편집, 『20세기 해석의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in 20th-Century Interpretation*, p.153.
3 같은 곳.

님 나라를 전파" 하지는 않습니다.[4]

빌리 그래험 복음전도 협회에서 발행한 최근 소책자의 제목은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입니다. 저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이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구원의 복음," "평화의 복음"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24)이라는 구절도 언급되지만, 놀랍게도 교훈적이고 설명적인 바로 다음 구절(사도행전 20:25)은 완전히 생략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을 "하나님 나라의 선포" 로 정의합니다!

국제 표준 성경 사전은 "복음" 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의할 때, 그 용어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 어떤 곳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이라고 부른다(마가복음 1:14; 로마서 1:1; 데살로니가전서 2:2, 9; 디모데전서 1:11).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이라고 부른다(마가복음 1:1; 로마서 1:16; 15:19; 고린도전서 9:12, 18; 갈라디아서 1:7).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행전 20:24)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평강의 복음" (에베소 6:15)이다. 구원의 복음(에베소 1:13); 또 다른 것은 "영광스러운 복음" (고린도후서 4:4)이다.[5]

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20여 군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

4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egin, 『하나님 나라의 표징』*Sign of the Kingdom*, p. vii, 진한 인쇄 강조 추가.

5 p.1281.

기쁜 소식" 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특별한 침묵은 그리스도교 저술로 알려진 많은 것들의 특징입니다(제1과 참조).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조사를 (제4과에서)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적 교회에 의해 어떻게 복음의 내용이 전도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누가는 몇 가지 평행구들을 사용하여 교회의 전도 활동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문자적으로 "말씀을 복음설교하고" 4절) 있었으며, 빌립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고" (5절), 따라서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14절). "저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 (25절). 그러나 이 기록의 중심에서 누가는 구원의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는 신중하게 표현된 공식을 통해 "그리스도를 선포함," "메시지를 선포함" 또는 "복음을 전파함"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헬라어 '페리' *peri*]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도행전 8:12)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가장 완전한 요약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다른 지점에서 그것을 반복합니다(사도행전 28:23, 31). 그것은 그의 다른 "간단한" 진술을 정의하고, 복음의 모든 선포들을 위한 집결 지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 텍스트들은 복음을 정의하는 문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현재의

“복음들” 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복음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이라는 구절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에 지혜롭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가복음 1:14, 15)믿어야 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신약성경의 모든 설교는 구원의 복음에 관한 이 기본 논제를 참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한 예수님의 호소에서 벗어나면 설교는 왜곡되어 “다른 복음” 이 될 위협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왜곡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의 설교자들의 말을 듣기만 하면 그들이 무엇을 설교하든지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선포의 주요 요소가 침묵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주의 이름으로, 구주의 그러한 “입에 재갈 물리기” 는 현대 설교의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중심점입니다...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이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수렴됩니다.” [6]

---

6 『그리스도와 사도 사전』*Dictionary of Christ and the Apostles*, Vol. 1, p. 486.

제4과

기쁜 소식에 대한 현명한 대응

주요 본문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1-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 2:44).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32, 33).

1894년에 "본질적인 그리스도교"에 대한 일련의 설명적 설교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셨으며 우리에게 주신 모범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항상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 보셨습니까 (마가복음 6:10)? 오늘날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 현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모범적인 그 기도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현저하고 분명하지만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 단 두 번만 언급하셨습니다...반면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적어도 백 열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저자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짓궂고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성 어거스틴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대영제국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숙고해야 할 때입니다.**[1]

---

[1] 휴 프라이스 휴즈Hugh Price Hughes, M.A., 『필수 그리스도교』*Essential*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 즉 그리스도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에 담긴 주요 주제입니다(누가복음 4:43 등).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예수님이 의미하신 바를 알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메시지를 믿으라고 하신 그의 요청에 대해 올바르게 응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채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결함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위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제공한 구원 메시지의 본질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가복음 1:14, 15, 누가복음 4:43, 마태복음 4:17, 사도행전 8:12, 28:23, 31).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 곧 신자들의 공동체와 동의어라고 막연하게 상상해 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전체로서의 신자들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 통치나 우리의 마음에 국한될 수 있는지 성경적인 증거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목표로서 "하늘"[천국]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하늘"[천국]에 대해 말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개념화의 근거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Christianity, pp. 57-59, 진한 인쇄 강조 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신의 교리를 어디에서 발견하고 양육하셨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을 다니엘서, 특히 다니엘서 7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아하신 책 중 하나였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폭풍 같은 그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나사렛에서 평화로웠던 몇 년 동안 부지런히 깊이 연구한 책 중 하나였습니다. 공적 사역이 시작되고 그는 다니엘서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는데, 다니엘서를 일단 이해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수많은 비유담들에 상당한 빛을 던져 줍니다...그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삶에서 성취해야 할 첫 번째 목적이라고 거듭 선언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라는 잊지 못할 명령으로 우리의 모든 의무를 요약하셨습니다.[2]

다니엘서에서 힌트를 얻어 하나님 나라(또는 하늘 나라)가 실제적이고 외부적인 제국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이전의 세계 정부로부터 갑자기 그리고 극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될 제국일 것이고, 그것은 "인자"(다니엘 7:13, 14)와 "성도들"(다니엘 7:27)에 의해 관리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다니엘의 증거로 볼 때 그것은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만 확립되는 보이지 않는 통치를 뜻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의 지상에서의 위치만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이 틀림없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묘사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백합니다.

---

2 같은 책., p. 59.

“그리고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나라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이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멸할 것이지만 그 자체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2:44).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은 이전 세계 제국들의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 을 부수는 돌에 비유됩니다. 이 파괴 사건의 확실성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다니엘 2:45) 라는 것에 토대를 둔다.

> 그 [인자—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칭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14, 27, RSV)

하나님 나라는 모든 나라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땅에서(“온 하늘 아래에서”) 권력을 잡을 것이며, 그 설립은 완전한 정치적 재조직화를 초래하는 국제적 격변인 재앙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정은 “인자” 와 “성도들” 의 손에 의해 집행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반복되는 주제 (그러나 드물게 전파되는 주제)

는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이 새로운 세계 정부, 즉 하나님 나라의 집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28-30; 고린도전서 6:2; 디모데후서 2:12, 계시록 2:26, 3:21, 5:10, 20:4). 신약에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메시아와 함께 통치하도록 임명된다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

이러한 배경 정보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공개 선언은 역사상의 큰 미래의 위기에 대한 경고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른 히브리 선지자들이 예견한 엄청난 사건은 즉각적인 회개와 생활 방식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므로" (마가복음 1:14, 15) 회개하라는 외침의 요점은 단지 하나님께 충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선포의 위협적인 요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마태복음 3:2) 때문에 개인과 국가가 취하는 행동에서 "전면적으로 변화" 해야 한다는 침례자 요한의 호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 3:12).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과 똑같은 말로 이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인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 3:2, 4:17). 그 메시지에는 위협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음

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인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그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자신을 준비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주제가 신약성경 전체를 지배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가능한 운명이 있습니다. "헛간 아니면 모닥불" 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리스도교 복음에서 중요한 경고 요소입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의 기저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의 날" 이라는 잘 알려진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신성한 진노의 날은 신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성약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므로 잘 알려진 가라지의 비유에서 좋은 씨는

> 천국의 아들들[제자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13:38-43).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나" 게 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세상 끝에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현과 동시에 악인들은 "풀무 불에 던져" 질 것입니다. 의인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악인이 멸망하

는 심판에 의해 도입되는 새 질서임이 분명합니다.

이 성구들에 나오는 나라는 확실히 현 시대의 나라가 아니며, 더욱이 "마음 속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끝"에 있을 것으로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묘사된 하나님 나라와 훌륭하게 일치하며,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서로부터 자신의 가르침을 도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단순한 사실들은 의인들의 빛남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 나오는 다니엘서의 문맥에 의해 확증됩니다. 그 말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의 일부입니다 (다니엘 12:2-3).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자가 깨어 영생에 이르"게 될 때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궁창의 광채와 같이 밝게 빛날" (다니엘 12:3)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따르면 의인들(마태 13:43)이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들"임을 주목합니다 (다니엘 12:3).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 53:11).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계획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예수의 동시대 사람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동족들이 간절히 바랬던 하나님 나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소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영향을 미치는 신세계 질서였습니다. 그것을 개시하는 "주의 날"은 그 파괴력 때문에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심판을 넘어서 새롭게 재생된 지구가 등장할 것이며, 온전하고 평화로운 정부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용된 모든 사람들에게 황금 시대를 보장할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청중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다가올 역사상의 큰 전환점에 대해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이사야 2:9-20, [원문: 예루살렘 성경]).

두려운 "주의 날"에 뒤이어 이 땅에 도래할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대한 희망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역사가와 신학자 모두가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구문인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한, 없어서는 안 되는 안내를 제공합니다.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1세기 히브리인들의 환경에 확고하게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마가복음 1:14, 15; 비교. 사도행전 1:3, 1:6, 19:8, 20:25, 28:23, 31)을 요청하시면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맥락에서 분리되어 성경적 의미를 거의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종교적 사상과 이상에 수용 가능한 다양한 다른 방식들로 재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예수님에게 그 탓을 돌리거나 그것을 그분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의하는 적절한 역사적 의미의 상실은 우리의 모든 신학적 혼란과 분열의 핵심입니다.

한 저명한 그리스도교 역사가는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 위대한 구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의와 평화와 번영의 황금 시대에 대한 기대가 회당에서 읽혀지고 해설된 성경 학습에 의해 유지 존속되고 있었다. .... 그 기대가 때에 따라 선지자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위대한 그 순간이 당도했음을 선포했다.[3]

자신들의 선언을 통해, 예수님과 요한은 사람들에게 신약성경에서 하나님

---

[3] G.F, 무어Moore, 『종교의 역사』*History of Religions*, p. 107.

나라의 예상된 도래와 동등한 "주의 날"이라는, 다가오는 신성한 개입에 대해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임박한 심판과 그에 따른 신세계 질서의 출범에 대한 기대가 전반적으로 지배적입니다. 그들의 권고의 모든 말은 위대한 사건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교 복음의 사도적 설교는 역사에 대한 이러한 히브리적 관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제 청중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히브리적 준거 틀을 모른 채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재적인 개종자들이 신약성경의 기본 "어휘"를 배울 때만 시정될 수 있는 오해를 초래합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로 축소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가장 확실하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보장합니다. 그 나라는 예언자들이 예견한 하나님 나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도래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마태복음 6:10).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사도행전 8:12; 28:23, 31; 마태복음 13:19; 누가복음 8:12).

예수님의 유대성에 대한 오랜 혐오

주석가들은 그들이 구주의 메시아적 전망에 직면했을 때 종종 예수, 즉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상의 학파를 인용함으로써 메시아

적 나라에 대한 (따라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러한 반감을 가장 쉽게 예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감을 가진 학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는

> 지난 시대의 학습된 결과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그는 책들을 공부했고 책들을 소화했다. 그는 그것들로부터 그의 위대한 종말론적 [**미래와 관련된**] 체계를 끌어냈다...그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바로 이 인간적인 지혜를 생산하고, 그 책의 신성한 기원에 대해 가능한한 크게 주장함으로써 그 책의 진정한 기원에 대한 자신의 성찰을 자신으로부터 은폐하려고 한다. 그로 인해 그의 작품은 예언의 붕괴를 기념하는 것이 된다....극의 마지막 막은 두 단계로 묘사된다....우선, 메시아의 전투가 있고 그 후에 그리스도와 순교자들의 천년 통치가 있다...이것은 참으로 공식적인 유대 종말론이다....우리는 여기에서 고대의 친숙한 민족적 유대 언어로의 가장 완전한 회귀를 본다. 그리스도교인이 유대인을 대신하고 이방인에 대한 멸시를 이어받아...그런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변화는 헛된 것이었다.[4]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용한 글에 따르면 그는 단지 무지한 유대인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예

---

4 폴 베른레Paul Wernle, 『그리스도교의 시작』*The Beginnings of Christianity*, 1903, Vol. I, pp. 364, 372-374, 진한 인쇄 강조 추가.

수님이 자신들의 오해와 모순된다고 비난합니다! 불신앙은 피할 수 없는 형벌을 수반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사야 7:9, LXX).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의 권세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의 전체 메시아적 전망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거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인용합니다.

> 한 권의 책, 즉 요한계시록은 그 독특한 성격과 그리스도교 종말론[미래에 대한 가르침]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대부분의 환상들에는 특별히 그리스도교적이라고 할만한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교적 사용을 위해 단지 피상적으로 개조한 것일뿐 유대교 원천으로부터 전유한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해 왔다. 저자에게 문학적 독창성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전체적으로 유대적이라는 것이다. 메시아의 천년 통치를 누리기 위한 성도들의 부활, 천년 말의 곡과 마곡의 전쟁과 그들의 멸망, 일반 부활과 최후의 심판, 황금빛으로 빛나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며 생명의 강과 매달 수확하는 새 열매와 약용 잎을 맺는 나무에까지 이르러서는 유대 종말론의 진부한 사상과 이미지가 된다… 신체적 부활과 천년 통치. [이것들은] 교회로 인도되었고, 무지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졌다. 2세기에 천년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는 믿음**]은 소아시아와 그 근원으로부터 신학을 취한 넓은 지역에서 정통이었다. 그것은 이레네우스의 믿음이다. 그것은 신학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고, 계속해서 열광의 전염병을 일으켰다.[5]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어떤 식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이 훌륭한 요약에 박수를 보낼 수 있으며, 동시에 신약성경의 위대한 진리가 비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폄하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진부한 것"으로 일축되는 무례한 방식에 대해 놀랄 수 밖에 없습니다.

개신교 그리스도교의 많은 부분들의 토대를 만든 "창설 교부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 루터는 처음에 ("신약성경 번역의 서문" 1522)에서 그 책 [요한계시록]이 예언적이거나 사도적이지 않은 모든 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면서 그 책에 강한 혐오감을 표명했다...그는 그것을 성령의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그는 저자가 그의 책에 대해 하는 명령과 위협(22:18, 19)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한 축복의 약속(1:3, 22:7)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또한 보관해야 할 고귀한 책들이 많이 있다고 본다. 많은 교부들이 그 책을 거부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은 그의 영이 무엇을 나누어 주는 대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 영이 이 책에 적응할 수 없고, 내가 이 책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모든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
> 나중에(1534) 루터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교적 유용성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것을 해석하지 않는 한 숨겨져 있는, 어리석은 예언이

---

5 G.F. 무어 Moore, 『종교의 역사』*History of Religions,* pp. 144, 145, 진한 인쇄 강조 추가.

라고 생각했으며 해석에 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 후에도 확신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그 책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했고, 1545년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와 함께 색인에 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부록으로 인쇄했다...쯔빙글리[주요 종교 개혁가]는 계시록을 "성서적이지 않은 책"으로 여겼으며 심지어 칼빈까지도, 영감에 대한 자신의 높은 견해로, 요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6]

독자들은 루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분명히 거부하고 칼빈은 종말에 대한 묵시록을 받아들이기를 머뭇거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칼빈과 루터를 지지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숙고해야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18, 19).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3).

요한계시록이 부록으로 분류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코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의 가닥을 모아 예수님의

---

6 "계시Revelation", 『해스팅스 성경 사전』*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IV, p. 241.

재림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세상을 이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묘사하는, 구약과 신약의 기대에 정확하게 맞는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릴 때 마침내 이 땅에서 그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현재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라]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시편 97:1 및 99:1 비교, "여호와께서 통치하기 시작하셨나이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계시록 11:15-18).

이것이 복음 메시지에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계 전역에 평화와 조화가 만연하도록 인류 정부들의 전복을 예상한다는 사실은 널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신약성경에서 틀림없이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한 현 시대"(갈라디아서 1:4)를 끝내는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로만 올 것입니다.

반메시아적 경향

요한계시록을 부정하는 것은 많은 전통적 신학에 깊이 뿌리박힌 반메시아적 경향을 나타냅니다. 주석가들이 계시록을 비그리스도교적이라고 평가하고, 성경의 정경에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거나, "유대적" 천년 통치 예언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재해석" 하려고 시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인류에게 평화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소진하신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지상의 메시아적 정부에 대한 예언자들의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신이 영광 중에 재림하는 것을 기다려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에서 "주의 날" 은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기" (데살로니가후서 1:7-8) 위해 오실 때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대의 소망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언제까지나이까?" 라는 괴로워하는 외침이 그 답을 찾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이 구절마다 추구하며 긴장했던 것은 이 메시아적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신약성경에 재림이 300번 이상 나온다고 계산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동의어를 감안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자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밝은 미래 사이의 긴장의 선이 느

슨해지면 믿음의 생명력이 상실되고 제자도의 요점이 무너집니다. 현재 교인들은 종종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멘토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미래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책의 마지막 장 전체에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성경적 희망의 모든 부요함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체 없는 미래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상의 신자들에 대한 전망은 복음 메시지의 일부이며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그의 부활(사도행전 8:12; 28:23, 31)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비극적으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일회용으로, 우리의 대단히 뛰어난 과학적 견해로는 수용할 수 없는 원시적 사고 방식의 유물로 취급하여 폄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교 교리를 안개 속에 가둡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모든 사람이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은 역사의 엄청난 절정이 아니라 무의미한 사건으로 축소됩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실 때까지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 메시야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등한시하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귀환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세 이전에 죽은 신자들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데살로니가전서 4:13, 고린도전서 15:23, 요한계시록 11:15-18).

다음 질문은 장로교 잡지의 한 성직자 대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에 내포된 엄연한 현실에 직면하기를 꺼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 왜 우리 교회에는 재림에 관한 설교가 그렇게 적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모든 그리스도교인이 신학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셨고, 현존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오시게 될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전통에서 편안함을 느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재림을 문자화하는 것은 재림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모두 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가 상대적으로 짧고 내일이 영원에 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잡지의 다음 호에 수록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심각한 질문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에 대해 그 목사가 파악하기 어렵게 대답을 적당히 회피한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내가 그의 대답을 이해한다면 그는 사실상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교제를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데 동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제로 재림을 믿는다면 재림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모두 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간단하게 대답

> 할 수 없습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재림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신약성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림을 영적인 문제로 변화시키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에 관한 신약성경의 교리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수 세기에 걸쳐 그리스도교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온 많은 것들의 전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교리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가 인상적인 "신학적" 언어로 가려져 있을 때,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 속임수를 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림에 대해 많은 전통적 신학이 행한 일을 "영성화"라는 용어로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발시켰습니다. 예언자들의 전체 비전과 하나님 나라 복음 전체는 지배적인 미래 요소가 제거되면 위험에 처합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제안된 복음조차도 미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동일한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들이 복음화를 정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음화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통치하시는 주로서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과 해방의 선물을 주신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7]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셨고 나중에서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

7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 세계에 대한 국제회의 복음화, 스위스 로잔, 1974년 7월.

불멸을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지에 응답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불멸성의 씨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발견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참조 마태복음 13:19; 누가복음 8:12; 베드로전서 1:21-25).

복음의 미래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14, 15. 복음 전파가 이 구절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예수님의 긴급한 요구는 "하나님 나라" 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함축합니다. 예수님의 주요 구절이 불분명하면 복음 자체는 모호해집니다.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에 대한 정의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언급을 버리고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라고 그들이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1-5에서 한 바울의 말에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신의 복음 메시지에 대한 바울의 훌륭한 진술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는 "제일 중요한 것으로" (3절)라는 작은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고린도 사람들 중 일부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는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12). 이 특별한 믿음의 위기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은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교 복음에서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죄사함을 얻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즉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실이 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형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핵심적인 사실들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3절) 전파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에서 동등하게 중요한 다른 것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도 있었습니다(사도행전 8:12; 19:8; 20:25; 28:23, 31).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기 오래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누가복음 4:43;비교. 누가복음 18:31-34).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동의어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일치하는 미래의 사건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고

린도 사람들은 그 믿음을 구원의 복음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몇 구절 후에 하나님 나라 교리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언급한 후(23절), 예수님이 오실 때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합니다(25-27절).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는 "살과 피"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50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나팔에 죽음에서 나와 눈 깜짝할 사이에 불멸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51, 52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구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동등하게 필수적인 설교와 더불어 신약의 복음 메시지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부활 전과 후의 선포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중요성에 대한 방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상충되게 설정하는 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잘못 다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43; 마가복음 1:14, 15; 마태복음 4:17; 사도행전 8:12; 19:8; 20:25, 28:23, 31 등). 다시 한 번 우리는 복음 메시지에 대한 누가의 포괄적인 요약 진술인 사도행전 8:12 (사도행전 28:23, 31에서 반복됨)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마태복음 13:19; 누가복음 8:12 비교).

복음에 대한 현대적 진술들

복음에 대한 정의는 1974년 로잔 전도 대회에서 제시되었습니다(위에서 인용).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죄의 용서, 그의 부활과 현재 하늘에서의 통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그토록 두드러진 구원의 미래 차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부재는 복음 메시지를 반으로 자르고, 선지자들에 의해 약속된 메시아 정부에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으로 다시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강한 강조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은 과거와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활동에 대한 언급을 찾기 위해 복음 메시지의 현대적 진술(소책자, 책,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호소문)을 검색해도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궁극적인 목표, 즉 "하늘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자리를 얻는 것(다니엘 7:27)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5)라는 구절보다 그리스도교적 목적이 더 분명하게 정의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5:10).

복음의 희망

그리스도교 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실은 미래에 대한 성경적 관점, 원래 그리스도교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형성했던 그 관점의 상실에서 비

롯됩니다. 수세기 동안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죽을 때 "하늘[천국]에 가는 것" 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이 개념은 근본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필요성을 약화시킵니다. 신약에서 소망(그리스도교의 세 가지 덕, 즉 믿음, 소망, 사랑의 두 번째 덕목)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실현에 대한 믿음과 함께 미래의 선에 대한 열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등하게 고려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에서는 주로 미래를 언급합니다. 소망은 오직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8]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에 분명한 소망이 심어졌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서 1:4-7).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13, 14). 몇 구절 후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

---

8 "희망Hope", 『해스팅스 성경 사전』*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I, p.583.

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18). 신자들은 다가오는 새 질서에서 메시아와 함께 지상에서 통치하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서 미래의 희망이 바울 복음의 일부였음이 분명해집니다. 사도적 복음전도는 죄사함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의 약속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개종자에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정부를 전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여하기 위해 임할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미래의 사실에 대해 서약하지 않는 복음 메시지는 신약의 복음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배운 소망은 바울이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NIV) 그들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말하는 그러한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골로새인들이 영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 준비된 "소망으로 말미암은" (골로새서 1:5, NASV)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는 그들의 희망을 "하늘에 쌓아 두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충실한 사람들을 위해 하늘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미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지상에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유대적 믿음입니다(참조 베드로전서 1:4,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을 때 "하늘에 가는 것" 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땅을 상속받고" (마태복음 5:5), 그 안에서 다스리는 것(계시록 5:10)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천국]을 위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로잔 협약의 복음전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역사의 목표로 계획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속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도 전파합니다. 복음 메시지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사도행전 5:32) 그는 현재의 삶에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기 위해 "계약금"으로 지금 그의 영의 약속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직분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도적 지향은 신약성경의 패턴을 반영하여 복음에 통합됩니다.

복음의 틀을 회복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

예수님의 메시지는 유대인의 구약성경 틀(예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17) 안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궁극적인 의미를 글로 되풀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많은 현대 성경 독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믿으셨고 그들과 함께 다가오는 평화의 하나님 나

라에 대한 그들의 연합된 비전의 성취를 갈망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믿으라는 호소도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촉구합니다(마가복음 1:14, 15). 이 지점이 신약성경의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를 위해 죽는 희생양으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다시 보내어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사도행전 3:21, 디모데후서 4:1).

신약의 용어로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초자연적인 격변에 의해 도입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 간단한 계획을 염두에 두고 신약을 읽으면서 증거를 조사하면 성경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나라가 "죽으면 하늘[천국]"이라는 약속과 함께 지금은 종교적 이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석"(거부하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는, 완전히 기만적인 방법)되면 신약의 명확성은 상실됩니다. 메시지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교 복음이 세워진 유대적 묵시적 틀을 단순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현대 표현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필수적인 구원 정보의 손실을 증언합니다. 영국 국교회의 학식 있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정신이 히브리 정신 대신에 차례로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 믿음과 실천에서의 참사가 발생했는데, 교리나 실천 면에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9]

---

9 캐논 구지Canon H. Goudge, "유대인의 소명,"The Callings of the Jews,『유대교와 그리스도교에 관한 에세이』*Essays on Judaism and Christianity*.

회복은 예수님과 바울의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가 복위될 때 시작될 것입니다

>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은 잔치에 초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10]

---

10 그리스도교 역사학 교수인 찰스 귀그네버트Charles Guignebert, 『예수』*Jesus*, 325, 326면.

제5과

하나님 나라: 세계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주요 본문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창세기 13: 14-17).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 3-8).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8).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5-6).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29).

팔레스타인 땅의 왕권과 소유는 하나님 자신과 그가 택하신 백성 사이의 언약의 기초가 되었으며, 처음에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권은 그들의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높은 이상에 부응하는 데 그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이스라엘의 구약성경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하나님의 표준을 충족시키는 데 실패한 이야기였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통치권을 행사한 예외적인 본보기였습니다(일부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 계획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적의 압제 속에서도 불타오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소망은 궁극적인 이상적 왕이신 메시아가 선지자들이 그토록 생생하게 예언한 세계 평화의 황금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날이 밝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시작하실 당시에도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기도가 계속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주기도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창조하신 세상에서 자신의 위대한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성스럽게 되기를. 그가 그의 나라를 당신의 살아 있는 날과 당신의 날에, 그리고 이스라엘 온 족속의 살아 있는 날에, 빨리 가까운 때에 세우기를 빕니다."

저명한 독일 신학자가 말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정한 배경은...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유대 사상, 그의 왕적 활동의 표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 사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 바이스는 이것이 구약에서 지배적인 강조점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강조점에는 세속적 또는 인간적 왕권과의 갈등에 대한 사상이 수반됨을 보여줍니다. 그 개념은 세상의 왕권에 대한 심판의 행위로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우리는 선지자들이 ... 닥칠 큰 위기를 선포할 때, 왕으로서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표현한 소망은 하나님의 강력한 왕적 활동이 나타나서 그의 백성이 구속救贖되고, 그의 적들과 그들의 적들이 멸절되며, 현재의 악한 사물들의 상태 [비교. 갈라디아 1:4, "이 악한 시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역전되는 것인데...

---

1 존 와이스John Weiss,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설교』*Jesus' Preaching of the Kingdom of God*, 1892.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이면에 있는 희망입니다.[2]

통치자가 될 운명의 사람

그리스도교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는 히브리어 성경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오래된"을 "낡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히도 우리에게 "구약"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어 성경, 즉 구약성경을 "너희[그리스도교인들]에게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너희[그리스도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성경"(디모데후서 3:15)이라고 언급했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성경의 히브리어 부분의 신성한 계시에서 발견되는 지혜와 이해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온 땅을 다스리"(창세기 1:26)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황금 실의 시작을 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부섭정이라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사람(창세기 1:26)은 하나님의 "모사품"이며 모형에 상응하는 표상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조각품인 "우상과 같이 깎아서 새긴 조각상"을 의미합니다. "'이미지'와 '닮음'은 모두 표현으로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의 '원형'

---

2 노만 페린Norman Perrin,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in the Teaching of Jesus*, p. 19, 존 바이스John Weiss의 작업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자 '원본'으로 보여줍니다."[3]

시편 필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높은 지위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8:4-6). 존귀와 위엄은 왕의 속성이다(시편 96:6, 10, 13: "존귀와 위엄을 옷 입은 자 하나님이 오시어 천하를 다스리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문제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히브리서 2:8)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된 두 번째 아담으로 다시 오실 때 사람은 다시 한 번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정의로운 정부를 위한 희망

"현재의 악한 상태" (갈라디아서 1:4)와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사이의 긴장은 성경 전체에 감동과 극적인 느낌을 줍니다. 일관된 "플롯" 이 성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아담은 신성한 직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그 악마(극의 아주 간교한 악당) 사탄의 간계에 속아 그에

---

3 프리드리히 호르스트Friedrich Horst, "Face to Face", *Interpretation*, 1950년 7월, p. 260.

게 자신을 "팔아 버립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남녀 한 쌍이 악한 통치자, 즉 사탄에게 "투표"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 지속됩니다. 누적된 반역은 창세기 6장에서 위기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사악한 천사적 존재들("하나님의 아들들," 비교. 시편 29:1; 89:6; 다니엘 3:25; 욥기 38:7; 욥기 1:6; 2:1)이 인간의 유전 시스템에 개입하여 거인 종족을 생성합니다. 지상의 이 끔찍한 상태는 대홍수 때의 세계 재앙을 불러왔으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여덟 명뿐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그들의 전임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폭군의 두 번째 종족이 천사와 인간의 잡종적 "결혼"(창세기 6:4; 민수기 13:33; 또한 유다서 6장 참조; 베드로후서 2:4)에 의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명백히 고칠 수 없는 사악함에서 인간을 구출하기 위한 신성한 해결책은 "아브라함의 씨"(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16)에 대한 약속에 있습니다. 사탄 정부(고린도후서 4:4: 사탄은 "이 시대의 신")로부터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는 희망은 "여자의 씨"(창세기 3:15)가 우리의 현재(악) 세계 시스템을 영원히 끝낼 때만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소유권이 정당한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넘어갈 때 일어날 것입니다. 땅에 대한 지배는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은 두 번째 아담(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의 사람)이 "이 세상 나라들"(계시록 11:15)을 차지하고 "그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릴"(시편 110: 2) 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새 세계 정부의 취임식에서 메시아와 함께 "[메시아의] 권능의 날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들"(시편 110:3)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불멸의 존재로 새 생명을 누리며 새롭게 활력을 얻은 그의 백성은 이 땅에 새 사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임무를

돕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교회의 지배를 조장하는 현대의 모든 "뉴 에이지" 운동과 그룹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성경적 계획에 대한 위험한 왜곡입니다.)

아브라함, 땅과 왕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는 조건으로 땅(창세기 13:14-17, 위)을 소유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창세기 12:1-4). "충실한 자의 조상" 인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모범 그리스도인" 입니다. 그는 반대되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로마서 4:18), 그가 약속된 메시아의 "아버지" 가 되리라는 확신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업에는 약속의 땅과 다름이 없는 나라가 포함되었으며,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 경계를 넘어 땅 끝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로마서 4:13).

로마서에 대한『국제 비평적 해설』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을 보면 주어진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세계적인 메시아 통치의 약속은 할례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에도 의존하지 않고 믿음의 산물인 의에 의존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상속이 실제로 어떤 법적 제도에 의존하고 그러한 제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다면 믿음이나 약속이 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

다.[4]

"세계적인 메시아닉 통치"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주요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동의어입니다(누가 4:43, 마가 1:14, 15, 사도행전 8:12, 19:8, 20:25, 20:25, 28:23, 31 등).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것은 "세계적인 메시아닉 통치"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재림 때 공개적으로 표명되기를 기다리는 통치입니다. 그것을 현재의 일로 여기도록 강요하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미래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이 이미 미리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으로 하는 시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성경적 계획으로부터의 탈선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제(따라서 그리스도교 자체에 관한 주제)에 내포되는 대규묘 혼란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5에서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는 동안 상속 재산의 "한 평"도 받지 못했다고 간단하게 알려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뒤를 이을 자손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히브리서. 11:8-13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

[4] p. 109.

>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1:8-13, 13:14). (도시가 땅으로 오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족장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에게 약속된 곳 (히브리서 11:8, 9), 즉 그들이 언젠가 상속받을 곳에서 살았다는 점에 가장 유의해야 합니다. 그곳은 "하늘 너머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릴 땅입니다. 모든 성경의 웅대한 중심 주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님(마태 1:1)이 다시 오실 때 이상적인 정부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성경 독자들이 메시아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 "공동 상속자", 장래의 "공동 통치자"로서의 부르심의 중요성을 "듣고"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마태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계시록 5:10: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시록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

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디모데후서 2: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고린도전서 3: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히브리서 2:5: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복종시키셨습니다]."

시편 115:16: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계시록 2:26: "이기는 자가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누가복음 19:17: "열 도시를 다스리십시오." 마태 25:23: "많은 것을 다스리십시오."

시편 112:1, 2; 111:6; 113:7, 8: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그의 자손이 땅에서 강성하리라…열방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그 일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데살로니가전서 2:12: "여러분을 불러 자신의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이 밝은 미래를 향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핵 멸종으로 적들과 동료 신도들을 계속 위협하는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범주에 속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윗 왕조차도 전사로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서 제외되었습니다(역대기상 28:3). 여기에 그리스도교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산상 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품성과 행동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영을 통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소위 "세대주의" 신학의 대중적인 형태는 "산상수훈은 정확히 교회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위협적으로 선언합니다.[5] 이보다 예수님 말씀과 더 확실히 모순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이 바로 그리스도교 교회를 위한 진리이며,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임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적인" 가르침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가르침에 대해 요한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이서 9).

이와 관련하여 1676년에 쓴 퀘이커 교도 지도자의 말은 요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악에 저항하라"와 "악에 폭력으로 저항하라"를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들

---

5 존 발부어드John Walvoord, 『마태에 대한 주석』*Commentary on Matthew*.

은 누구나, 또한, "네 다른 뺨도 주라"와 "저희를 노략하고 불과 칼로 추격하라" 또 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와 "벌금과 투옥과 죽음으로 그들을 핍박하라"와 같은 것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도 발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마와 함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빛과 어둠, 선과 악.[6]

선지자들이 본 하나님 나라

이전 과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 메시아가 감독하시는, 인류를 위한 평화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히브리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의 말을 계속하여 광범위하게 인용했습니다. 역사의 큰 전환점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사도행전 1:11) 일어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세계 정치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사건을 준비하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권고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실 때에 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 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

6 로버트 바클레이Robert Barclay.

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에스겔 37:21-26).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네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에스겔 36:8-15 [원문:예루살렘 성경]).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호세아의 비전은 그에 못지않게 감

동적이고 명확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 14:1-10, 원문: 예루살렘 성경/한글 개역개정 14:1-9)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

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 3:18-21).

이 약속은 이전 구절에서 설명한(요엘 3:15-17) 주의 큰 날 이후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모스가 그와 유사하게 제시한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8-15 [원문: 예루살렘 성경])

모든 것의 회복

오순절 직후 베드로가 전한 강력한 설교는 회개에 대한 전형적인 자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러한 복음전도의 공식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합합니다.

>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사도행전 3:19-21).

"회복"이라는 핵심 단어는 청중들에게 다가올 메시아 시대의 약속된 축복의 전체 복합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완전한 주역이 된(사도행전 1:3) 제자들이 분명히 흥분된 어조로 물었습니다. "지금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사도행전 1:6).

위대한 회복의 시간은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달력의 날에 관해서 모르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으로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13:32: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전지의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모든 주장들을 종식시키는 증거입니다.) 물론, 회복

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계시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임박한 세계 변화의 징조는 이미 존재하는 다니엘의 예측에 근거하여 예수님에 의해 상세하게 알려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시대의 삶" 에 대해 매일 말씀하셨습니다.(우리의 번역본들에서 "영원한 삶" 이나 "항구적인 삶" 이라고 부적절하게 옮겨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적으로 이교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게 만드는 표징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세계에서 사도들은 메시아적 통치에서 국가의 봉사자로서의 위치를 향유해야 합니다 (마태 19:28).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베드로는 그 민족과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곧 교회의 일부가 된 우리에게(갈라디아 6:16) 확증합니다. 즉 베드로는 메시아가 임할 때 온 세상이 보편적인 갱신을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하늘에 머물렀다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37). 이것은 누가복음 4장 43절과 평행을 이루는 요한의 말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증거하는 것이 전체 사명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전파가 "진리" 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36). 강력한 선전 캠페인은 너무 오랫동안 일반 성서 독자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결코 지상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이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설명하는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많은 신약성경 본문들)의 이상과 모순되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가 현재의 악한 제도 즉 "세상"에 기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조직된 모든 정부 제도의 통치자 또는 "군주"(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내에서만 행동함)입니다. 그것은 성경적 그리스도교의 기본이며 신약성경에서 거듭 선언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누가 4:6,7).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4).

"온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안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5:19).

"마귀[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태고의 뱀이 온 천하를 미혹하느니라" (계시록 12:9).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일으킨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군대를 대적하는 것이니라" (에베소 6:12).

사탄의 기만적인 폭정의 본질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그것은 "종교" 의 영역으로 깊숙이 확장됩니다.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13-15).

약속의 땅에서의 생명에 대한 희망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점점 더 고조되는 압력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대의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 이기 때문에 (마태 24:12),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철저한 성경 연구와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적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충성스런 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앞으로 누리실 기쁨" (히브리서 12:2)에 대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불멸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었습니다. 신약을 읽는 현대 독자들은 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적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 하늘로 떠나는 불멸의 영혼에 대한 이교도 개념은 부활하여 약속된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성경적 희망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한 저명한 학자는 성서 신앙에서 땅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그 약속의 내용은 자손과 축복과 땅으로 이루어진다...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윗 제국의 발흥을 예언하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다윗이 헤브론에서 취임할 때 야웨와 맺은 언약(열왕기하 5:1 이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반영한다...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으로 흡수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후의 모든 역사의 기초가 되는 기반이었다...복잡한 헥사텍 [성경의 처음 여섯 권] 전체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주제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 작업의 주요 목적은 모든 성경적, 신학적 중요성은 이 하나의 선도적 개념과 관련하여 헥사텍의 다른 모든 개념이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족장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결정적인 것은 땅에 대한 것이었다...헥사텍에게 땅은 약속의 땅이고 불가침의...오경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이 유대인을 위한 계시의 기초로 남아 있었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가나안 땅] 거민과의 통혼을 통해 여호와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가차 없이 여호와의 지원을 철회하고 땅을 잃게 될 것이다.
>
>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땅에 대한 관심과 땅에 대한 희망이 헥사텍 외부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 약속은 정착에서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사도행전 7:17 참조 –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부분적으로 성취

됨] 그 정착은 완전한 정착으로 간주되지 않았다[사도행전 7:5 참조 –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함] ...역사에 성취된 약속은 그 내용이 소진되지 않고 다른 차원의 약속으로 남는다...땅의 약속은 성취된 후에도 계속해서 새롭게 선포되었다...약속과 성취가 구약의 많은 부분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전통은 어떻게 바뀌어도 계속해서 그 **땅에서의 삶**의 희망을 담고 있었다.[7]

구약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을 가진 예수님은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잠시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땅이 도래할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시편 37:11, 마태 5:5 인용)라고 약속한 그리스도 복음의 도전적 자극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주제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 중심 구조는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 명령(창세기 1:26),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갱신되고 (창세기 12장 이하), 다윗의 집에서 확증되어(사무엘하 7장),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마태 1:1)으로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가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일" (누가 1:32-35, 사도행전 8:12, 28:30, 31)의 약속을 중심으로 두 개의 보고서(누가복음과 사도행전)를 작성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지배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땅을 책임져야 합니까? 지상에 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이 치유되는 것은 단지 지

---

7 데이비스W.D. Davies, 『복음과 땅』*The Gospel and the Land*, 1974, pp.19-25, 36. 강조 추가.

금 우리의 삶에서 먼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재림할 때 권세를 얻게 되는 세계 정부로서 그것을 마침내 받아들임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요컨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교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그분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분의 대속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회개는 창세기부터 묵시록(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난 역사 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이 계시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의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침례는 좋은 소식에 대한 지적인 믿음을 따릅니다 (사도행전 8:12). 그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베드로후서 1:11)과 같은 땅(마태 5:5)을 받기를 바라며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 기업은 분명히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과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도 먼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도래할 나라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단지 이차적으로,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31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더라면 많은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원문] 좋은 소식 성경/한글 개역개정).

히브리 예언의 아름다운 꿈은 말세에 하나님 나라나 메시아의 나라가 인류 제국들의 경계를 넘어 궁극적으로 온 땅을 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예언은 황금시대를 말하면서 결코 지치지 않았다. 그녀[히브리 예언]는 먼 미래에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새벽이 온 세상을 덮게 될 때를 보았다...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는 그 시대의 표현들 중의 하나로서 안에 회복된 헤브라이즘의 꿈이 들어 있는 황금의 관이다.[8]

---

8 헨리 버턴Henry Burton, 『성 누가』*St. Luke*, pp. 251, 251.

제6과

하나님 나라—미래의 사건

주요 본문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누가 13:28, 29).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 14:25).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누가 22:18).

"[말세의 이 대격변]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 21:31).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마태 6:1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 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미가 4:6-8).

이전 학습에서 논의한 내용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 나라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복음전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할 말이 거의 없다는 것은 최소한의 말을 해도 당혹스럽습니다. 메시지에서 하나님 나라가 부재할 때 복음 자체가 위험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정직한 사람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으로 가르친 것과 지금 복음으로 제시되는 것 사이에서 이 놀라운 차이를 발견할 것인데,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귀중한 정보를 찾아 더욱 파고들도록 자극합니다.

신약성경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와 미래에 관련되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려는 시도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 측면에만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대개 그 "완성"에 대한 모호한 언급과 함께 일축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차원은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 이미 상속받았다고 말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 노력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약속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을 때마다 나타나 현재화됩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4월에 6월 날씨를 가질 수 있지만, 4월이 참으로 6월이라고 말하면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인 "하나님 나라"를 그것이 미래에 있게 될 사건으로 지칭하는 압도적인 분량의 언급들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1] 성경 독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가장 좋아하는 본문으로 아래와 같은 누가복음 17:20, 21을 택하여 고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이라는 그 필수적인 신약성경의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재림과 관련된 미래의 사건으로 묘사하는 많은 구절들을 제외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보다도 우선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임재할 것이라고 결론내리거나 킹 제임스 성경의 누가복음에 따라 "네 안에" 있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21을 따라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즉 네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그것

---

[1] "하나님 나라: 현재인가 미래인가?"The Kingdom of God: Present or Future?라는 우리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www.restorationfellowship.org

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내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은 여기에서 확실히 잘못 번역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누가복음 17:20, 21의 바로 다음 문맥을 고려한다면, 인자의 오심(누가가 다른 곳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누가복음 21:31)이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편에 비취듯이...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 저희를 멸하였는데, 그것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과 동일할 것이다" (24, 29, 30절)라고 표현됩니다. 나중 장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알려줍니다.

>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누가 21:25-31).

우리 앞에 있는 이 증거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메시아의 임재로 한정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고, 마음 속에 확립되는 종교적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번역본들이 확인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으로서 "그들 가

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번역본들은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이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래할 때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합니다.

누가와 다른 신약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로 시대의 종말에 예수님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악한 세상에 부과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근본적인 구약과 신약의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동기를 부여하는 역동성, 즉 지금 위대한 날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가 오실 때까지 생존하든, 부활을 통해서든, 메시아를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도입될 세계사의 새로운 단계라는 방대한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현재의 악한 시대가 "완성"[완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즉, 종말이 올 것입니다, 마태 24:3). 그 때에 하나님 나라가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통치체가 출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 도래는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 6:10; 누가복음 11:2). 우리는 이 청원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만들어서 그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자라게 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퍼지게 하소서" 또는 "당신의 나라가 완전하게 되게 하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청원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벽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지상에서 일어날 사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는 사탄이 "이 시대의 신"(고린도후서 4:4)이라는 현재의 위치에서 추방될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퇴위는 신성한 계획에 따라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전체에 스며 있는 세계관입니다.

주기도문은 장래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 나라 계획을 경외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에 대한 전체 계시를 나타냅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때 새 하늘과 땅으로 묘사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요청은 미래 하나님 나라의 "다음 날을 위한" 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려면 지금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앞서 겪는 시련과 일반적인 악이라기보다 아마도 악마를 지칭하는 그 "악한 자"로부터 구

출해 달라는 요청으로 끝납니다.

예정된 시간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는, 그리스도교인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시도들은 실패로 끝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에 대해 의식하면서 활동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스도교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심지어 (콘스탄틴 시대 이후로) 그리스도교국 자체를, 때로는 세속 나라와 협력하여, 지금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일은 신약성경의 세계관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탄은 현재 "이 세상 제도의 통치자"입니다. 국가들은 현재 확실히 그리스도교적이 아니며 확실히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의 나라들을 왕국으로 변모시키려고 시도하는 사탄과 "팔짱을 끼는 것 [무기를 함께 드는 것]"은 재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단순히 "세상의 친구"가 될 뿐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야고보 4:4).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고린도전서 5:12). 그리스도교적 관리는 이제 신자들의 몸체에 국한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고린도전서 5:12).

현재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려는 믿음의 체계, 이른바 지배주의신학[통치신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확실히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 메시아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유월절 잔의 포도주를 다시 마시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22:18).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마태 27:57)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와 예수님의 역사적 사역 후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 23: 50, 51; 마가 15:43).

글레오바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을 위해 말하면서, 그 당시 분명히 좌절된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의 희망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이는 예수님이시다" (누가복음 24:21)라는 말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권세를 잡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여전히 미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오지 않았다는 누가의 이해에 대한 확증은 누가복음 21:31에서 발견됩니다.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돌아

오는 것으로 인도할 극적인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립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깝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라" (누가 21:31, [원본] 좋은 소식 성경).

누가복음 19장의 비유에 나오는 귀인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매우 중요한 비유는 유사하게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위치시키고 그것을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과 연관시킵니다. 귀인(예수님)은 먼 나라로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셔서 통치할 권세를 받은 다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왕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 정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날 것" (누가복음 19:11)이라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즉각적인 미래는 아닙니다(비교. 사도행전 1:6; 3:21).

그 때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흥분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역사적 배경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수도는 모든 예언자들이 상상했던 대로 메시아 정부의 자리인 예루살렘("큰 왕의 도성," 마태 5:35)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또는 주석가들이 때때로 사용하는 경멸적인 용어로 "조잡한" 것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 그때도, 다른 어느 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때 뿐입니

다. 날짜 설정을 허용하는 정확한 연대기적 데이터는 여기나 성경 어디에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건의 날짜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신약의 재림 교리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을 재림 날짜로 정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오셨다고 하여 그들의 오산의 결과를 피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도는 1844년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두 번째 방"에 특별히 들어가신 것이라고 비성경적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역 후반에도 여전히 도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불특정 기간의 부재 끝에 "먼 나라"에서 돌아오실 때 그것은 권능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메시아가 재림할 때 그는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도시의 인구를 관리하게 하고(17절) "내가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27절) 적들을 처형함으로써 보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된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통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는 권위와 고칠 수 없는 악인을 처형하여 추방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은 신약성경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에는 일부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도교 반대자들을 죽이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칼빈이 세르베투스를 처형한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남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가 전

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모든 경우에 의미되는 것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다른 의미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함을 때때로 암시하는 구절은 잠시 그대로 두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일단의 말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라는 구절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처음 발견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앉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아마도 이사야서 25:6-8에서 약속한 축하일 것입니다.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이 산[예루살렘]에서 예비된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경우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유월절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 26:29, 누가 22:18).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축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누가 22:18).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중요한 지위를 요청할 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상정됩니다 (마태 20:21). 이것은 미래의 메시아 통치에서 인정받기를 구하는 것입니

다. 비록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배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미래 하나님 나라의 실재성과 실제적인 정부로서의 그 성격을 확증하십니다 (마태20:23). 유사하게, 마태복음 19:28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새로운 시대 또는 신세계에 배치합니다. 그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즉 "인자가 자기 영광 속에서 올 때" (마태복음 25:31), 다스리는 권위가 사도들과 공유됩니다. 동시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빛을 발" 합니다(마태 13:43, 다니엘 12:3 인용). 이 사건은 악인들이 "풀무 불에 던져질" (마태 13:42) 때인 "세상 끝" (마태 13:40)에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결합 번역본의 묘사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세계 정부라는 데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28-30).[2]

제자들이 신세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때를 언제로 기대했는지를

---

2 『진정한 신약성경』*Authentic New Testament*, 휴 숀필드Hugh Schonfield 번역.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그 때에 인자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그 때에 왕이 말하기를...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마태 25:31, 34).

반복될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결합한 번역본으로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하나님 나라의 도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재생된 세계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즉 '인자가 영광 속에서 오실 때' 마태 25:31],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복음 22:30]." 이런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진입과 상속

조직신학의 중심이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의 토대에 자리잡을 때 하나님 나라는 성경적 그리스도교의 총합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 역사적 의의를 빼앗지 않고 그것을 위한 [그릇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준비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 세계 정부로서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재림 때 그것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데에 어려움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적 틀 안에서 신약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 없이는 신약성경은 거의 모든 이데올로기에 적합하도록 왜곡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왔습

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개념은 신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것은 언제 발생합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4절). 이것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31절)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상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미래에 가능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생명" 또는 "새로운 시대의 생명" 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시합니다. ("뉴 에이지"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대중 운동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 시대 생명" 이라고 할 수도 있다).

마가는 "생명" 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악인들이 "게헨나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마가 9:43) 될 때로 설정합니다. "생명" 또는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 (우리 번역본들에서는 "영원한 생명" 또는 "무한한 생명" 으로 부정확하게 번역됨)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도록 하라...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늘 나라=하나님 나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구원받는 것). "신세계에서 당신은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됨=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집을 떠나면 영생을 물려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다가오는 시대에서의 생명…그 개념은 다니엘서 12:2의 예언에 토대를 둡니다 (마태19:16, 17, 23, 24, 25, 28, 29).

이 기본 "어휘" 가 신약을 통제합니다. 그리스도교 유산은 항상 미래에 위치합니다. 한 구절(골로새 1:13)에서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나라로의 이전이 이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상에서 비전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미래의 모든 현실을 현재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님께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 한 구절도 마태, 마가, 누가의 주된 증거와 모순되게 사용되거나, 바울이 다른 곳에서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인이 상속받고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분명한 진술들과 모순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하나님 나라" 라는 구절은 성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보상이자 목표가 될 메시아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나 사상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이미 이 세상에 현시되어 있습니다.[3]

로마서 14:17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재림 때로 설정한 그의 말과 모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

---

[3] 로마서 14:17에 대한 『국제 비평적 주석』*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도인들은 이미 흑암의 나라로부터 나와 옮겨졌지만(골로새 1:13), 바울은 단지 몇 구절 후에 "너희는 기업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골로새 3:24)라고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로 미래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주로 지상의 신세계 질서로 이어지는 미래의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도적인 권위자들의 다음과 같은 단순한 진술들은 하나님 나라가 주로 현재에 있는 것이라는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에 대한 필요한 수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마가 9:1, 47; 14:25; 마태 13:41-43; 20:21; 누가 22: 16, 18; 고린도전서 15:50 등),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마가 9:1; 마태 6:10; 누가 17:20; 19:11).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이 다만 기다리며(마가 15:43), 구하고(마태 6:33; 참조, 누가 12:32), 상속받을 수 있는 것(고린도전서 6:9 이하, 갈라디아 5:21, 야고보 2:5)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것을 만들 수 없다.[4]

모든 주석가가 이 분명한 진술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서 사전』이 제공하는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에 꼭 필요한 지

---

4 에두아르드 슈바이처Eduard Schweitzer, 『마가의 좋은 소식』*The Good News According to Mark*, p. 45,

침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 하나님 나라--그리스도의 교리의 중심 주제인 이것으로 그는 사역을 시작했고(마태 4:17)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복음으로 가르쳤다(4:23). 그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었지만 그의 생애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다. 승천하신 후에 인자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16:17; 19:28; 24:30)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그 후에 열두 사도가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 동안 그 자신도 고난을 받고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 그가 어떻게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침례(28:19)로 제자를 삼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했다(10:7; 24:14). 이렇게 해서 얻은 제자들의 몸체는 자연스럽게 공동의 목적으로 결속된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형성할 것이다(21:43).[5]

같은 권위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하늘의 구름을 타고 그가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했던 그 제자들의 이 새 이스라엘에 대한 필요에 비추어 볼 때, 복음에 기록된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따라서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그것을 위한 준비 기간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비유가 첫 번째 복음서의 편집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묻는다면, 그 대답은 ...그 비유를 그가 택하신 이유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에 오게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

[5] Vol. II, p. 145, 강조 추가.

복음의 모든 곳에서 그 구절이 사용된다는 뜻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다양한 수용방식에 대해 예증한다. 가라지 비유 또한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다룬다. 세상의 끝에 인자가 와서 그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이다... 이 복음서의 여기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장면에 대해 그것이 현 세상이 갱신되고 회복되고 정화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암시하지 않는다.

우리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마태가 신자들이 "하늘에 갈"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된 땅에서 그들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탁월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읽는 통찰력 있는 독자는 성경이 형성된 이후 시대에 충성스런 사람들이 죽을 때 지상으로부터 제거된 영역, 즉 하늘[천국]으로 떠난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견해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 놀라운 차이점에 대해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비성경적 사상에 대한 주석가들의 비판은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는 그 전통은 유명한 헨리 알포드의 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상이 크도다"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미래 거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장소의 문제는 성경의 전적으로 다른 증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즉 예언의 일반적인 내용과 신성한 교

섭들에 대한 유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복된 자들의 영원한 처소로서의 일반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니라 정화되고 새롭게 된 이 땅을 틀림없이 가리킨다.[6]

"그가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었지만 그의 생애 동안에는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인용). 복음 기록의 주요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에 대해 인정된 권위자의 또 다른 진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미래의 실체를 의미한다는 것은 정말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는 영적인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와 구별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전파의 토대를 이루는 내재적 [즉 이미 현존하는] 형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7]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는 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직은 가지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사역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비례하여 크게 과장되었습니다. 확실히

---

6 『그리스어 신약성경 주석』*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Vol. I, pp. 35, 36, 강조 추가.

7 한스 콘젤만Hans Conzelmann, 『성 누가의 신학』*The Theology of St. Luke,* p. 122, 강조 추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지금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행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데살로니가전서 2:12).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제대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워질 나라입니다.

이해력을 지니고 신약성경을 읽는 데에 필요한 이 핵심 열쇠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잘 알려진 두 권위자의 진술을 추가합니다.

>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즉, 미래적] 관점에 반대되는 내용이 없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이 또한 주로 미래라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은 주로 미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예수님은 파국적인 변형의 형태로, 하늘에서 오실 메시아 자신의 강림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종말이 올 것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셨다. ...그는 모든 곳에서 이 견해에 자신의 인장을 찍는 것 같았다...그는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설립하는, 파괴와 재건의 마지막 경이를 변함없이 숙고했다.[8]

『그림 타일러 렉시콘』은 신약성경에서의 "나라" 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하늘 나라[혹은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축복으로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그 완전한 확립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엄숙하게 재림하실 때에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때 죽

---

8 "종말론Eschatology", 『그리스도와 복음 사전』*Dictionary of Christ and the Gospels*, 강조 추가.

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사물들의 현재의 상태를 짓누르는 악과 부정이 없어진다.[9]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마태, 마가, 누가 이외의 증거를 조사해 보면, 저자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현재 그리스도인 생활의 미래 보상과 목표를 지시하기 위해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권위자들을 포함하여 『성서의 신학 단어집』은 이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확증합니다.

>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미래]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복음서들 외의 신약성경에서도 사용된다...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기록된 가르침의 지배적인 주제이다....그리스도인의 유업은 하나님 나라, 땅, 영생, 구원, 생명의 은혜, 영광과 동일시된다(마가 10:37 비교, "영광" = 마태 20:21, "하나님 나라"), 장소 (즉, 가나안), 세계...하나님 나라는 유업에 대한 가장 특징적인 묘사이다...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은 미래이다...유업은 소망의 대상이다...그리스도인들은 추정된 상속인들이다. 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아직 기다려야 한다.[10]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다음 성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

9 "바실레이아basileia"(하나님 나라) 『새이어의 렉시콘』*Thayer's Lexicon*, p. 97.
10 pp. 113, 121.

할 것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야고보서 2: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베드로후서 1: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히브리서 12:26, 28: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고린도전서 15: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즉 우리의 현재적 몸을 영적 몸으로 변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데에 요구된다. 이것이 재림 때 일어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50, 51).

계시록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재림 때).

현대의 많은 설교와 달리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구원의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추상적 통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그리스도인의 보이는 몸인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절망적으로 애쓰고 있는, 이 지구상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입할 정부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의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점은 현대 학계의 저명한 이름들에 의해 입증되지만, 자신의 주의 깊은 성경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분명히 파루시아[그리스도의 재림]와 함께 시작될 하나님 나라를 지칭한다." [11]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 라는 용어를 복음서에서 사용된 그러한 묵시적[즉, 미래적이고 극적인] 용도와 분명히 구별하는 것은 없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환난을 거쳐 그곳에 들어간다 (사도행전 14:22)." [12]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누가의 이해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미래에 있으며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13]

---

11 핸첸 E. Haenchen, 『사도들의 행전』*Acts of the Apostles*, 1971, p. 141, fn. 2.
12 캐드베리 H.J. Cadbury, 『사도행전과 종말론』*Acts and Eschatology*, p. 311.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 라는 용어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만 사용되었다." "누가의 신학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예견했다"[14](즉, 미래에 있을 지상의 실제적인 외부적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6).

마지막 인용문은 지상에 있을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에 대한 신약의 증거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적 믿음과 가르침으로 묘사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복음으로 제시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 사도행전에는 신약의 설교에 친숙한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설교자들은 하나님 나라나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설교한다(사도행전 1:3, 8:12, 20:25, 28:23,31). "하나님 나라" 라는 용어는 이 경전의 거의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등장한다. "하나님 나라" 는 저자의 보다 더 특징적인 단일 동사 "복음화하다" 와 분명히 평행을 이루는 공식을 구성한다.[15]

요약

그리스도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정보의 세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 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필수적인 구원 정보는 대중에게 종종 공개되지 않지만 "복음" 을 받아들이라는 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그리스도교의 잘못된]

---

13 케빈 자일스Kevin Giles, 『개혁주의 신학 리뷰』*Reformed Theological Review*, 1981년 9월-12월

14 얼 엘리스 E. Earle Ellis, 누가Luke에 대한 『신세기 성서 주석』*New Century Bible Commentary,* p. 13.

15 캐드베리H.J. Cadbury, 『사도행전과 종말론』*Acts and Eschatology*.

전통은 하나님 나라는 주로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추상적 통치라는 것을 성경 독자들과 교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그리스도교 문서는 미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미 현재의 악한 세계 시스템에 침입했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악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때 개인에게 "왔습니다." 마태 12:28; 누가 11:20), 하나님 나라는 첫째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신세계질서이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 참으로 그리스도교 복음의 이해와 실천에 대한 함축적 의미에서 혁명적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죽을 때 "하늘로[천국으로]" 떠난다는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한 전체 개념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표현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재림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희망의 관점에서 미래를 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천년 하나님 나라(계시록 20:1-6)를 현재 ("무천년주의")로 옮기려는 시도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통해 발생한 성경적 계획의 완전한 혼란의 징후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신약의 가르침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전체 전통 구조는 어거스틴적 플라톤주의에 의해 착색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체 교단에 의해 계속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거부하는 기저에는 반유대주의와 반메시아적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인 것이 지상의 새로운 정치 질서와 관련될 수 없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구약과 신

약의 명백한 메시아적 주제를 끊임없이 억누르거나 무시하고 그것들을 "재해석"하여 자신의 플라톤화된 신앙 형태에 맞게 만들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사도들의 단순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밟는 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인내에 대한 자극이 되도록 의도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막습니다. 신약성경의 전체 차원은 다양한 정도로 현대 신학과 설교에서 빠져 있습니다. 성경적 그리스도교에서 미래는 훨씬 더 명확하게 정의되어 현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약성경의 역동적 의지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손을 맞잡습니다.

>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 나라가 역사의 자연적 과정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인도될 것이라고 가르치며, 이것이 묵시적 종말론에 없어서는 안될 관점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견해를 공유하셨다.[16]

---

16 데스몬드 포드Desmond Ford, 『성경 예언에서의 멸망의 황폐한 것』*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in Biblical Prophecy*, p. 14.

제7과

예수님을 통한 위대한 하나님 나라 계획

주요 본문들

“모든 성경[성서]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16)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태 5:5)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이서 9장).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언 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하늘 나라=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 (마태 7:21-23).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 1:35).

복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에 대해 인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운명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것은 기적적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이유" (누가 4:43; 마가 1: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순종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위해 행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마태 28:19, 20). 자기가 전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개종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제자가 되고 물로 침례를 받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물침례는 "선택적 추가" 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주님" 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46).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믿음, 물 침례, 그리고 끝까지 충실한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과 같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세계는 이제 수천 개의 서로 다른 집단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의 연합된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저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고 그와 함께 여러 시간을 보내며 날마다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경이로운 목표와 주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서 불사의 몸으로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돌아오신 후에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사도행전 10:41).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과 추종자들의 간증은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을 믿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모든 지인들과 갈릴리에서 그를 따라온 여자들이 이것을 보고 멀찍이 섰더라" (누가 23:49). 그들은 그가 잔인하게 처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그가 묻힌 것을 보았고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환각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뿐이며, 우리 모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불멸성의 영광스러운 희망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그 희망을 나누도록 고무받았습니다.

사도들에 대해 어떤 터무니없는 반대가 제기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무덤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추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건강한 것을 본다면, 그가 병원을 떠나는 것을 본 사람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병원을 떠났는지 즉시 의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추측하거나 "맹목적인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은 믿는 것이며 믿는 것은 확실한 증거, 즉 믿을 만한 증인의 증거에 기초합니다. 신약성경 문서들을 잘 알고 있고, 원어로 작업하거나 여러 번역본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것들이 허위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문서들의 저자들은 거짓말로 아무 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은 신약성경과 같은 최고 자질의 글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로마 제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면서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일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맹렬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지칠 줄 모른 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위해 죽었다고 상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직하고 용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2000년 후에 누군가가 그들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대담함이자 오만일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없었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불멸성 추구

예수님의 목적은 대중에게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불멸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가. 죽음의 힘을 넘어서는 법은 무엇이고, 영원히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곳의 남자와 여자에게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믿도록 권유함으로써 불멸성의 비결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단일하고 완전한 대리인이자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즉 이스라엘과 성서의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하게 하신 새로운 기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독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불멸성의 열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사실을 복음 메시지에 덧붙이기 전에 여러 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위대한 좋은 소식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주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새 언약의 조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언약의 조건들과 약정들을 주고(출애굽기 24장), 언약의 말씀이 담긴 책만이 아니라 백성에게 피를 쏟은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선지자로서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15-18, 사도행전 3:22; 7:37). 그는 먼저 마태복음의 다섯 구역들로 된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들에서도 새 언약의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피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주요 언약의 시작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언약의 매우 중요한 말씀인 자신의

가르침을 근거로 새 언약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시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피를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시기 전날 밤, 사도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물론 그 이후의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미래에 재회하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재림할 때 전 세계적으로 권세를 얻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시작할 철저히 정치적인 미래를 약속함으로써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누가복음 22:29-30은 새 언약의 장엄한 요약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에 대한 약속은 특권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상의 국제적,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아셨고 추종자들에게 이 모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관 행정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혼돈의 현 시대에서 다양한 시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탄이 현재 나라들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음, 고린도후서 4:4). 그런 다음 생명이 다할 때까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꾸준히 유지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새로워진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 정부에 참여하는 기쁨과 함께 불멸성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계획은 현세의 삶에서 가능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었고, 현재도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는 일이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상실

교회의 분열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명백한 불멸성 프로그램의 상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람들이 크게 멀어졌기 때문인데, 그렇게 멀어진 것은 사도들의 죽음 이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성경의 기본 교리를 방해하는 그리스 이교 철학의 영향 때문에 점차 부패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조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요한복음 17:3)이신 한 개성체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신조는 참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떠나는 것을 막는 방패가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하신, 기억에 남는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참하나님이신 유일한 분" 으로 믿는 것과 유일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위임하신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불멸성 프로그램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3 참조).

그 신념에는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교회의 역사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죽은 후 일부 초기 개종자들의 이방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마리아에게서 생성시켰을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오해했습니다(누가 1:35). 이 이방인들은 우주에 대한 이교적 관점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의 신조와 모순된 관점을 결국 갖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신조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8-34절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 신조로 확증하신 것이었습니다.

잘못 교육을 받은 이 개종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는 "진행"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인간이 아닌 존재로 선재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새로운 관점을 만들었습니다. 2세기부터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창세기 창조의 창조주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스스로 있고 견줄 자가 없는 만물의 유일한 창조주라고 부단히 주장되었던 아버지 하나님을 대체했습니다(이사야 44:24).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이 첫 번째 단계는 그를 창조된 개성체로 만들긴 했지만 창세기 이전에 이미 창조된 존재로 믿어졌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된 실제 인간 존재로서의 현실적 지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박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는 하늘에서 내려온 역사 이전의 인물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과 그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4세기의 "교부들"에 의한 후속 수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수정 이후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상 영원한 신격의 창조되지 않은 두 번째 구성원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왜곡으로[1]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유니테리언

---

[1] 터툴리안Tertullian(나중에 아리우스Arius와 마찬가지로)에 의하면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Ad Hermogenes*, 3), 그를 삼위일체론자로 거의 볼 수 없습니

[단일주의적] 신조(마가 12:28,34)가 다시 위협받고 곡해되었습니다.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둘(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제3의 위격으로 잘못 정의되었을 때 셋)이 실제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교 철학의 세계에서 차용한 용어를 사용하여, 이제 일련의 교회 공의회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시작이 없다고 주장되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인간 어머니의 태에서 "비개성적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들은 인간적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닉 아들을 그럴듯한 말로 치장했지만 실제로 마리아를 통해 존재하게 된, 다윗의 생물학적 아들은 없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인 다윗의 직계 후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구성원인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새로운 구도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과는 크게 다른 "인간[성]"을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을 비판하는 매

다. 오리겐Origen은 아들의 "영원한 잉태"eternal begetting 개념을 도입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속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불행한 발전의 역사는 칼 하인즈 올리드Karl-Heinz Ohlig의 『하나 혹은 셋? 예수의 아버지로부터 삼위일체로』*One or Three? From the Father of Jesus to the Trinity* (Lang, 2002)에서 매우 잘 분석되고 비판되었습니다.『삼위일체교리: 그리스도교의 자초한 상처』*The Doctrine of the Trinity: Christianity's Self-Inflicted Wound* (International Scholars Publications, 1998)도 참조할 것.

우 명백한 반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회는 하나님이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성경의 신조가 가르친 것과 달리, 더 이상 한 분으로 된 개성체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유대-그리스도교적 유니테리언[단일주의적] 신조를 이렇게 포기하게 된 것은 전례 없었던 용어의 혼란을 초래했고, 수세기 동안의 논쟁 끝에 삼위일체 교리로 알려진 불가해한 "신비"를 낳았습니다. 예수님과 신약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새로운 교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고 강요되어, 믿지 않으면 파문당하는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교 또는 이른바 "정통" 그리스도교의 보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알고 있듯이 삼위일체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신조로 예수님이 인정하셨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효과적인 선전 캠페인은 의심하지 않는 순진한 교인들에게 성경 이후의 수정된 신조인 삼위일체론과 함께,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신조는 때때로 일부 번역본의 잘못된 번역으로[2] 인해 성경 안으로 강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현명하게 읽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

---

2 NIV는 요한복음 16:28과 20:17을 오역하여 예수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인상을 주고, 빌립보서 2:6에서 바울이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본성상 하나님이시니")라고 오역합니다.

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종속성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독특한 지위를 주장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한 분 하나님, 그의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표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잠재력을 반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기에는 "너무 선하다"는 거짓이 퍼졌습니다! 그의 기적, 그의 비범한 삶과 가르침은 그 어떤 "순전한"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으로서의 죄 없는 구세주라는 개념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행한 것과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종교적 상상력에 호소하지만 성경적 가르침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주의적인 문서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요한복음 4:22)라는 것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의 분리되지 않은 신성한 위격임을 믿었다는 사실을 예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래 있는 그들의 전체 역사에 대해 하나님은 둘이나 셋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이 기본적 믿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고 촉구받았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3:29-30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 신조의 개정을 암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하나의 신성한 인격체로 믿는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은, 교육받은 10억 무슬림을 적대시합니다.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 모두 히브리어 성경에 올바르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수천 개의 단수 인칭 대명사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의사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 즉 단일 인칭 대명사가 한 사람 개인을 설명한다는 사실이 모든 문헌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적용된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간 메시아로, 하나님을 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성경의 기본 틀로부터 성경 이후의 이탈은 원래의 그리스도교 신앙에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성경 예언에 나오는 유대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의 초기 상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상실도 함께 수반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교 철학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필멸의 죽음에 종속된 필멸의 존재로 태어났다는 기본적인 성경적 진리를 근본적인 거짓이 압도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선천적으로 불멸이라는 [영혼이 불멸이라는]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거짓으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은 불멸성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내재적 불멸이라는 이교도 개념을 교회가 취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자연 상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불멸성을 달성하는 방법을 대중에게 가르치기 위해 애썼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수님의 요점은 미래의 지상 하나님 나라에서 불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은 모든 곳에서 중생重生은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현명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비밀인 불멸의 본질적인 씨를 뿌리는 분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는 불멸의 씨를 뿌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영적 형제 자매로 낳으셨습니다. 그는 불멸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계속해서 증식하는 과정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 복음은 불멸성을 위한 수많은 후보자들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로마서 7:4).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다른 신자들의 "재생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메시지로 정의되며 "씨"라고도 묘사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 메시지가 수용을 잘 하는 청중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실행될 때, 영원한 생명의 싹이 신자 안에 자리잡게 됩니다. 그의 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포함된 신성한 프로그램에 의해 열립니다. 그는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후보자로서의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은 그 씨앗 메시지에 의해 전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생각과 성품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얻게 될 불멸성의 약속을 전달합니다.

신약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고 가르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없습니다. 구원은 지금 시작되어 끝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로마서 13:11)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로마서 11:22). 예수님은 "잠시 믿는 자가 있느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누가 8: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마태 24:13).

현재의 혼란스러운 종교계에서 많은 함정이 젊은 신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새 언약의 용어를 모세의 옛 언약의 율법과 혼동하게 하는 위협입니다. 바울은 개종자들에게 토요일을 안식일이나 히브리 달력의 절기나 월삭으로 지키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의 주요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담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에베소서 2:15)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1 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음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로마서 14:14, 20, 여기서 바울은 레위기 11장에서 발견된 것과 정반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정한"과 반대되는 "깨끗한"). 유대인이자 그리스도교인인 바울은 "모든 것들이 깨끗하다, 네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레위기 11 장의 정결한 음식 율법을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은 새로운 안식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축하하는 날에 모이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합니다. 사도행전 20:7은 "안식 후 첫날"에 신자들이 모이는 바로 그러한 모임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방문할 때 모금을 피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에 헌금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고린도전서 16:2).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만나는데, 바울은 복음전도를 목적으로 그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물론 회당 집회는 그리스도교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회당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3]

신약성경은 그리스어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원래의 아람어 역본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습니다. 원본 텍스트(자필)가 없고 그리스어로 된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부패가 발생한 곳에는 대개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신성한 이름 "야웨"의 사용이나 발음 방법에 대한 논쟁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신약성경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영감받은 그리스어 사본은 이름이 다른 언어로 합법적으로 음역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새로운 개종자에게 임박한 또 다른 위험은 "방언으로 말"하라는 압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련의 무의미한 음절이 아니라 언어를 의미하는 "방언"의 기적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하는 사도들이나 그들과 함께 말하는 초자연적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말하는 것의 기적이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 속에 말이 들리는 기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군중에게 기적적으로 말했던 사도들이 다른 언어를

---

3 두 언약의 대조에 대해 많은 좋은 문헌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책 『율법, 안식일과 새 언약 그리스도교』*The Law, the Sabbath and New Covenant Christianity*는 율법주의에서 자유로 가는 우리 자신의 여정을 설명하고 성경에서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합니다.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방언들이 말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공인된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방언"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같은 군중에게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아람어나 헬라어로 말했는데 모든 사람이 알아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14장에 있는 언어 은사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방언을 말합니까?" 라고 바울이 물었습니다. "결코" (고린도전서 12:30)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은사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일관되고 안정적인 실제 언어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조적으로, 바울의 감독 아래서 은사는 분명했습니다.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실제 언어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방언"을 번역하여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권고되어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4:13). 고린도전서 12-14장에는 항상 은밀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 "방언"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방언"에 대한 수천 개의 테이프 녹음은 실제 언어가 초자연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관습을 모방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교 종교에는 "방언"의 출처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방언"의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8-12에서 바울은 그러한 특별한 선물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내내 계속될 것인지

에 대해 확실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방언과 예언으로 된 초자연적인 발화들이 제공한 지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대체될 것이라는 점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발화와 예언 자체가 성경의 정경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예언으로 계시된 지식(그리고 번역된 방언은 예언의 한 형태임, 고린도전서 14:5)은 초자연적으로 주어졌으며 바울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실증할 수 있는 기적]" (고린도전서 14:22)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베드로나 열두 사도나 바울과 같은 수준의 사도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사도의 후계자를 안수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며 바울은 "사도의 표적과 기사" (고린도후서 12:12; 로마서 15:19)를 행하는 능력과 예수님을 직접 뵈었던 경험을 토대로 사도직을 주장했습니다(고린도전서 9:1).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의 기초였으며 그 기초는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믿음을 신실하게 대표한 사도들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해 신자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범사에 선을 이루사" (로마서 8:28 참조).

새로운 신자에게는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 혹은 악마는 단순히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악에 대한 은유라는 이론이나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악의 인물이 없다는 이론입니다. 신약성경은 악령들을 인간이 아닌 초자연적인 지성적 존재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불행한 인간들과 구별됩니다. 타락한 초자연적 존재로서의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성스러운 본문으로부터 실재의 모든 차원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주요 요소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악령" 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완벽하게 명확한 기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휘록과 사전을 다시 집필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신약의 저자들이 악령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결코 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그들의 기록을 악령들이나 악한 영들의 말과 행위로 엮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에는 "광기" 와 "질병" 을 설명하는 완벽하게 좋은 단어가 있지만, 저자들은 악령들이 지적이고, 사악하고, 초자연적인 성격을 띠고 동등하게 개성적인 존재인 악마를 위해 일한다고 보는 우리의 교육에 대해 보고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셨으며, 그의 추종자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의 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악으로 설명해 버리는 것은 성경 본문의 신빙성에 도전하고 예수님이 "비과학적인 시대" 의 무지한 희생자였다고 보게 만드는 관점이 있는 것으로 지지자들이 믿게 만듭니다. 악령들의 존재는 신성한 성경 본문의 수백만 독자들에게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약성경의 증거에 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는 이론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못 이해되면 자동적으로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도 오해됩니다. 하나의 큰 교단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동일시하고 복음에 대해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라는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던 오순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으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혼동하는 것은 모든 예언자들이 본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말하는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충성스러운 자들이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의 사실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구절의 대다수는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계시록 11:15-18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료성을 보존하기 위한 황금 본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 제도의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곱째 나팔 때 도착합니다.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대비하여 지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을 통해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미래의 불멸성에 대한 비유적인 "계약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7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하는 수정같이 분명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3)를 주제로 6주간의 일종의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미 예수님의 감독 아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분명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영이 하늘에서 부어진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임하리라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땅에서 회복될 이스라엘 지파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 때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좋은 질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때를 알 수 없다고 알려 주셨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의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질문을 해결하는 이 본질적인 요점에 유의하십시오. 그 영은 "며칠 지난 시각" 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알 수 없는 시간에 도래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순절에 영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같은 사건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복음에 미치는 영향에서 더 파괴적인 것은 세대주의 또는 극단적인 형태의 "초세대주의" 로 알려진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예수님을 그가 전한 복음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단절시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파하실 때 옛 언약 하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고 제언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학파의 한 대표자는 "산상수훈은 정확히 교회의 진리가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산상수훈은 사실 새 언약 윤리의 본질적인 핵심이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긴급하게

적용됩니다.

『엉거의 성경사전』의 "복음" 항목은 "복음의 두 가지 형태" 에 대해 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두 개의 복음서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고 주장되는데, 한편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은혜의 복음" 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큰 환난의 때가 오면 전례 없는 환난의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복위될 것입니다.

이 잘못된 복음 이론의 "극단적" 형태는 심지어 바울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 13장까지만 전파했거나, 또는 같은 이론의 변형에 따라, 사도행전 28장까지 전파했다고 믿기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로 이 기이한 이론에 의하면, 바울이 최종적인 "성스러운 비밀" 의 계시를 받고, 이 새로운 계시 이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제공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세대주의는 신약성경의 복음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열쇠라고 제언하는 신약성경의 핵심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만약 그가 예수님께서 말세에 재림할 때까지 허락하신 동일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지상명령에 불순종했다면 (갈라디아 1:6-9) 복음을 파괴시켰다는 이유로 저주 아래 있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1:6-9). (마태 28:19, 20).

바울은 사도행전 19:8, 20:24,25; 그리고 28:23, 31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0:24, 25는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동일하다고 단번에 해결합니다 (그 사실이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분명하게 되지만).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년에 이전 판본의 복음을 대체하는 특별한 복음을 받았다고 상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그는 그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개종자들에게 그가 일찍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형태의 그리스도교를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만 계시된 복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이 다수적으로 사도들에게 계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3:5). 다행스럽게도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설교자였습니다(히브리서 2:3).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간증입니다. 그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따른 참된 믿는 자의 표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복음으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세대주의의 또 다른 영향력 있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는 추가적인 부활 사건을 고안하는 이론입니다. 팀 라하이와 제리 젠킨스 (『레프트 비하인드』 [남겨지는 자들]의 저자)의 널리 알려진 의견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상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다시 오시기 7년 전에 비밀리에 오실 것입니다. 소위 "은밀한 휴거" 이론은 데살로니가전서 4:13-18을 참조합니다. 죽은 충실한 사람들이 부활하고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휴거"되는, 즉 들리워지는 순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수백만 명이 사라지고 7년 동안 충실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있을 것이며 그

후에 예수님의 공적 출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전" 휴거-부활은 큰 환난이 오기 전에 모든 신자들에게 하늘로의 탈출을 약속하는 즐거운 환상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시기 직전에 있을 미래의 큰 환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태 24:21=다니엘 12:1). 그러나 성경은 큰 환난 전에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남겨지는 자들" 이론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참조 마태 24:29-31). 이것은 충실한 자들의 "포스트" (=후) 환난 모임입니다. 바울은 그의 개종자들에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후서 1:7-8)라고 하여 현재의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기대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예수님의 이해를 확증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7년보다 더 일찍 그리스도인

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거나 고통이 종식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비밀리에 예수님의 "오심"을 삽입하려는 시도는 큰 환난 후에 그리스도인 "택함받은 자들"을 모으겠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에 폭력을 행사합니다(마태 24:29-31).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의 택함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세대주의 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임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그 자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체계는 자멸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가르치셨고 그리스도교는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기초합니다.

신약성경의 메시지에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적 순결, 미움의 제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봉사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불멸성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그것은 매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기적적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워진 땅에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불멸성을 제공합니다(계시록 5:9, 10; 마태 5:5).

검토를 위해 대중에게 제출된 우리의 기본 전제는 교회가 오랫동안 신약성경의 단순함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수많은 교회사와 성경 학자들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국 국교회의 한 저명한 학자의 귀중한 논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정신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든 실천적으로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4]

[4] H.L. 구지Goudge, D.D.

책 소개

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도 불과 수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비밀을 아신다고 주장하셨다. 그는 그 비밀을 불멸성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설교하시면서 분명하게 계시하셨다.

수천 개가 넘는 교파들은 진정한 종교에 대한 자신들의 지침으로 성경을 따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분열되었다. 성경을 토대로 하여 앤서니 버저드는 교회가 구원 복음의 주요 요소를 버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개신교 개혁자들은 사실상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철저히 저항하지도 개혁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교회 전통의 유산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혁신하지도 않은 채로 유지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복음과 그 복음을 현대의 편의에 따른 믿음으로 변모시킨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해 철저히 고찰하고 비판해야 할 때가 되었다. 복음주의자들과 거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설파하신 것을 망각했다. 그들은 복음을 비성경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랫동안 성경 연구와 집필, 그리고 교육에 종사한 앤서니 버저드는 불멸성의 비밀이 다른 데가 아닌 바로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제언한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의해 모호하게 되었고 무시되었다. 교회는 신약성경을 혼란스러운 책으로 만드는 믿음 체계를 물려받았다. 많은 교회사 전문가들이 이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복음, 즉 좋은 소식은 하나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운명은 지상에 실현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 속으로 진입하게

될 미래의 부활을 통해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이다.

앤서니는 비전문가들을 위해 쓴다. 처음 아홉 개의 장들은 예수님의 불멸성 비밀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예수님의 경이로운 목적들과 주장들』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는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학자들에게도 호소한다.

역자후기

이 번역서의 문장들은 대부분 직역 위주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읽히는 한국어 문장들로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윤문작업을 위해 다시 여러 번 읽으며 수정해 나가고, 오류도 바로잡으며, 또한 역자 주를 통해 주요 개념들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부분들도 포함하는 개정판을 준비해 보려고 한다. 이 책의 초벌번역 과정에서는 구글Google 번역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아직은 한 문장 한 문장 원문과 대조하여 읽으면서 오역된 것들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많이 고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동안 구글 번역 프로그램이 놀랄 정도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성경 구절들의 장과 절 표기 등을 포함하여 단순한 기계적 작업들을 대신 해 주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마태복음 6:33에서 읽을 수 있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성경 구절에 대해 묵상하는데, 두 사람이 식탁에서 하는 모임이지만 예수께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 18:20)라는 말씀을 언제나 떠올린다. 또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책의 저자인 앤서니 버저드Anthony Buzzard가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설교/강의를 듣는다. 이 번역서는 버저드의 『예수는 누구인가?』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이어서 그의 허락을 받아 세 번째로 번역한 책이다.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그의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Biblical Unitarianism에 대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서적 유니테리어니즘을 표방하는 그룹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과 그리스도아델피안에 관해

서 버저드는 전자는 예수의 선재설과 적은 무리/큰 무리 구별 등에 대해, 후자는 사탄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 등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영혼불멸설에 입각한 믿음이 그리스와 로마 사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비성경적인 교리라고 보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 혹은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추상적인 통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에 구체적인 정부로 설립될 실제적인 나라라고 보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고 본다. (삼위일체설과 영혼불멸설에 대해 부정하면 지배적인 정설을 위협하는 위험한 "이단"으로 배척되고 있지만, 권력과 영향력을 지닌 집단에 의해 억압당한 하나의 정통 신앙이 이단이고, 이른바 정통이라는 것도 싸움에서 이긴 하나의 이단이라고 보는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의 관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시편 107편 21절-22절에서 "야웨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라는 말씀에 있는 "감사제" sacrifices of thanksgiving가 지피티GPT-4의 답변대로 오늘날에는 "기도"와 "찬양/예배," 그리고 "봉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기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야웨의 일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저자소개

저자 앤서니 버저드Anthony Buzzard는 영국의 서리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교Oxford University와 베다니 신학대학Bethany Seminary에서 교육받았다. 그는 신학과 현대언어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애틀란타 바이블 대학Atlanta Bible College에서 24년 동안 교수로 재직한 후 퇴임하고, 계속 집필하며 교육과 여행,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지식을 전하고 있다. Restoration Fellowship (https://focusonthekingdom.org)에 공개되어 있는 그의 저서들은 *The One God, the Father, One Man Messiah*; Translation: New Testament with Commentary; *The Coming Kingdom of the Messiah; Jesus was not a Trinitarian; Our Fathers Who Aren't in Heaven,* 그리고 *Who is Jesus?*와 *What Happens When We Die?* 등이 있다.

역자소개

역자 정형철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근대영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비교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영미문학과 디지털문화』(2008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와『종교적 이미지의 형상적 기능』(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인문학분야 우수학술도서),『종교와 트랜스휴머니즘』(2018년 한국연구재단 저서출판 지원도서)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비평적 실천: 포스트구조주의 문학이론의 이해와 적용』과『들뢰즈와 시네마』등이 있다. 그리스도교와 관련된『예수는 누구인가?』,『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번역서들과『기독교와 트랜스휴머니즘』과『성경과 치유』라는 저서들이 있다.